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인사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35번지 현대빌딩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한국인의 소화 위장약 -
노루모®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2월 1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5 호

1989년 1월, 드디어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성지 순례에 나섰다.

인도 - 타고르, 간디, 힌두교, 타지마할, 신분제도, 인구 10억의 나라. 이 정도로 인도에 대한 상식이 적은 나는 이제 막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한 불교입문 초년생으로 석가모니 생전의 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북인도에 넓게 펼쳐있는 불교성지의 실상은 나를 무지하게 당혹시켰다. 1월은 건조한 기후라서 어디든지 먼지 투성이고, 온종일 덜컹거리는 버스길, 언제 떨어질지 창문이 덜렁거리는 불안한 비행, 밤샘 기차 여행 끝에 외진 비탈길을 기어 오르고 허허 벌판을 달려가 만난 것은 텁빈 폐허 뿐. 잡초밑에 남아있는 붉은 사암의 건물 흔적과, 주두 없이 몸체만 남은 아소카 석주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하 수 경

성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보드가야 대탑의 위용 만큼은 놀라운 것이었으나 대부분 성지는 너무도 썰렁하여 가슴 아팠다.

더구나 주변에는 '절대 접촉불가'의 천벌(?)을 받은 암갈색 피부의 천민들의 무리가 구걸로 연명하고 있어서, 이곳은 버려진 땅이라

남의 고통 외면했던 나

는 절망감까지 들었다. 부처가 성도하고 설법하던 곳이 이런 고통의 땅이 되다니……

가는 곳마다 걸인들이 수십명씩 까맣게 몰려와 손을 내밀며 적선을 구했다. 나중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없어지고 귀찮기까지 했다. 몇번 잔돈을 주다가, 문득 내가 던져준 선심 몇푼이 그들의 자립을 막고 구걸 습관을 길러주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뼈가 튀어나온 앙상한 노인의 가슴을 보면서도 그 참담한 삶의 고통을 외면했다. 가냘픈 아이들이 내미는 빈 손바닥을 거절했다. 그리고 눈물 닦으시며 한푼이라도 더 주시려는 내 어머니의 자비심마저 가로 막았다. 그러나 진흙으로 찍어낸 모조 부처님상을 10불이나 주고 샀다. 부처님에 관한한 가격을 깎으면 신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돈은 걸인들에게는 소박한 식사 80명 분에 속했다.

그해 초파일 무렵, 신문과 TV에 보도된 인도 풍물에는 내가 인도에 버리고 온 그 비참한 모습들이 소개되었다. 나의 가슴은 뚱뚱하고 계속 내려앉았다. 나는 얼마나 한심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 부처의 깨달음이나 탐내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제 참회하는 마음의 순례를 시작하겠다.

〈전주대 교수 · 화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무소유 정신 IMF 넘자"

조계종 지도자회의 '외래문화 배격' 등 21개항 결의

조계종은 무소유와 분소의(糞掃衣) 정신으로 시대를 향도하고 외래문화 배격, 전통과 환경살리는 불사를 결의하는 한편 문화예산의 2% 확보 추진, 민족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정책 실시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9일과 10일 1박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종단 지도자 3백여명이 참가한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지도자회의'는 전법도생, 민족문화, 민족의 위기상황등 3개 주제에 대한 2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도자회의는 결의문에서 전법도생과 관련 승풍진작, 신도교육과 조직활성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층 포교에 적극 노력, 지역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설립, 문화재 사찰 관람객에 대한 포교 활성화 등을 결의했다.

지도자 회의는 또 민족문화 수호와 관련 상업주의적 외래문화 배격, 환경친화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 전통과 환경을 살리는 불사 추진 등을 다짐하고 정부를 향해 5년내 문화예산 2%이상확보,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정책실시, 문화 전문인력 육성책 마련, 고도보존법 제정, 사지의 발굴 보존 추진, 성보도난 사찰 방화에 대한 근절책 마련, 공원내 전통사찰의 자율권 인정과 공원 입장료 폐지, 일부 공직자의 종교 편향성 시정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도자회의는 민족의 위기상황과 관련한 결의문에서 무소유와 분소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향도해 나간다는 전제 아래 근검절약, 민족 공동체 정신 회복, 남북불교교류사업 추진, 북녘동포 돕기등에 범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 마련된 이 법석에서 우리 종단과 민족이 처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여 발전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도자회의는 9일 입제식에 이어 이어령 전문화부장관의 '문명사적 전화기와 불교의 역할' 최정호교수(연세대)의 '문화비전 2000' 정락스님(용주사주지)의 '민족문화 창달과 전법도생을 위한 조계종의 역할' 강연과 문화공연,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10일에는 분임토의의 총괄발표와 대표토론,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21면〉

〈임연태 기자〉



◇조계종 중진스님 3백여명이 참석한 지도자회의가 9일과 10일 열려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다짐하는 2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보급 고려 청동 관음보살상 발견

'통화(統和)28년(1010)'이라는 제작연대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청동관음보살입상 2구가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에서 발견됐다. 사찰문화연구원이 전통사찰총서 발간을 위해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2구의 보살상 중 높이 66㎝의 청동관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는 드물게 2자가 넘는 높이에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기단부 뒷편에 새겨져 있다. 상태가 양호한 이 관음상은 신비한 미소와 함께 조각솜씨가 뛰어나 국보급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세계문화유산 등재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동산이 6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룸비니동산은 석가모니부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인도 카필라성의 동쪽에 있던 꽃동산이다. 보드가야(성도지), 녹야원(초전법륜지), 쿠시나가라(열반지)와 더불어 불교의 4대성지이며, 1956년부터 성역화작업이 추진돼 오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아쇼카왕석주를 비롯 마야부인당이 남아있어 부처님의 실재를 증명하고 있다.

공원입장료 부가세 재경원 내년 시행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IMF 양해각서 체결이후 재정수입 확대 방안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국립공원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계종 목포에 불교교양대 건립

내년 3월 인천에 종단직영 포교당도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원주)가 목포와 인천을 전법거점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남 목포에 내년 3월 이 지역 최초로 불교교양대학이 건립된다.

관할교구인 대둔사주지 천운스님을 비롯 목포지역 조계종 사찰인 정혜원 반야사 약사사 달성사 주지스님들과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5일 정혜원에서 거점지역 교양대학 개설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교양대학을 개강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장은 천운스님이, 학장은 준비위원장인 지승스님(정혜원 주지), 운영은 목포지역 조계종스님들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교양대학 개설에 따른 1억여원의 재원은 전법의해 조직위가 6천만원, 나머지는 대둔사에서 부담키로 했다.

인천의 경우, 목포와 달리 운영주체가 없어 종단직영 포교당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따라 지난 4월 월주스님이 지원키로 한 인천불교회관 건립비 1억원과 전법조직위 지원금 3천만원 등 모두 1억6천만원의 재원으로 내년 3월 신도교육 위주의 포교당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해인사 대장경판 임시보관소 짓는다

해인사와 문화재 관리국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관전중 동사간고의 무리한 겨울 보수공사가 물의를 빚자(본지 154호 1면 참조) 5일 장경각 안팎에 25평 내외의 가건물을 지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임시보관소가될 이 가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관전 보수기간동안 경판이 옮겨져 보관된다.

남일스님(해인사 관전 보수부장)은 "예산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경판등을 손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계승탈' 불교모독 2면
직장법회도 IMF 몸살 23면
법당장엄 현대화 '붐' 7면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균열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살펴서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폐계(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예술가, 애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배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폭)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 · 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론의 세포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 · 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남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 · 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

사 설

한 표가 미래 결정

18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나 유권자나 모두들 마음이 바쁘다. 지금의 사회적인 형편도 도산하는 기업이 많고 또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막대하게 빌려와야 할 처지에 직면하고 있으니 겨울날씨 만큼이나 스산하다. 자연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정치 경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주범과 공범이 누구인가를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내가 이런 경제를 망친 사람이라고 자성하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다.

심지어 유권자들 가운데는 자포자기적인 자기비하의 한탄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번 선거에서 표를 모아준 개혁의 이미지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데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이 미숙했다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성도 섞여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기준의 강화는 결집되면 시민정신으로 응축될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도 있으며 선택한 후보자가 국정을 약속대로 잘해 나가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감시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지닌다는 인식을 깊이있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선택한 사람에게 되돌려진다는 자업자득의 인과법칙 속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전인격적인 면을 갖추고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미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 출마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골라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외국처럼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려 그 정당이 꾸준히 지향하고 있는 통치이념과 철학 그리고 추진력을 참고삼으면 뫼겠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당이란 것이 오합지졸로 아직은 그런 선진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 그런 정당을 보고 이상적인 정당이 있다면 찍을텐데… 하고 염원을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형편이 우리 수준이란 것을 직면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보다 전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살펴보자는 뜻이다.

첫째,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해 보자. 현실을 직시하여 가깝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이성적으로 살피고 판단해 보자.

둘째, 지엽적인 문제보다 전체적인 흐름, 특히 세계속에서의 한국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찾아보자.

셋째,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을 중세식 이상모델을 찾기 보단 지금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자.

넷째, 자신이나 자기 주변의 여러 조건들을 앞세운 이기적인 것보다는 보다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택해 보자.

다섯째, 투표에 꼭 참여하자. 투표를 하나마나한데 해서 무엇하나 하는 패배적인 생각을 접고 투표권을 가진 누구도 참여하여 한표를 행사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30%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진정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하여 표만 된다면 무슨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무섭게 알도록 만들자면 유권자의 잣대가 뚜렷하고 확고해야 한다. 잣대가 뚜렷하고 확고하다면 미래의 시민의식이 건강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파계승 탈 파문 사과 이회창후보는 8일 부산 코모도호텔로 월주스님을 찾아가 '파계승 탈'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불교모독 규탄법회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비상대책위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규탄법회를 갖고 이후보의 대선 법정홍보물을 소각했다.

"'파계승 탈'은 불교모독"

승·재가단체 이회창후보 공개사과 요구
한나라당, 사과광고 등 불심달래기 부심

한나라당이 이회창후보의 대선 법정홍보물에 거짓말과 속임수의 상징으로 '파계승 탈' 사진과 문구를 사용하면서 일기시작한 파문이 11일 한나라당의 한국일보 사과광고 게재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계 20여 단체로 구성된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보의 직접 사과 및 전체 일간지·방송·불교계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13,14일 예정된 이후보 규탄법회를 조계사에서 열기로 했다. 〈11일 현재〉

○… '파계승 탈' 파문은 12월초, 부재자 투표를 하게된 전국의 선방스님들이 먼저 법정홍보물을 받아보면서 촉발. 승가단체와 청년회를 중심으로한 교계 13개 단체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조계사에서 시위하고 '파계승 탈' 홍보물을 소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태호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전달하고, 이어 조순총재가 김총장을 대동하고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월주스님에게 사과하는등 파문의 조기진화에 적극나섰다. 부산 유세중이던 이회창후보는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법회중인 월주스님을 예방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홍보물 제작대행사의 대표가 불교계 각 언론사를 방문하고 사과해명에 나섰다.

○… 불교비상대책위는 이후보의 언론을 통한 직접 공개사과 외에는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천명. 이에 10일 조계종지도자대회와 11일 조계종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교구본사주지 모임서도 같은 입장을 촉구 결의했다. 그러나 월주스님은 조계종지도자대회에서 "14일 대통령후보TV토론회에서 이후보가 공개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후보의 공식사과를 인정했다.

○… 이회창후보는 '파계승탈' 파문의 공개사과 장소로 해인사를 선택. 10일 해인사를 방문해 대웅전에서 사과 예불을 하고 주지스님 예방과 기자회견도 계획한 것.

그러나 불교비상대책위는 공개사과 후 사찰참배를 내세우며 '방문사절'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보의 해인사 방문 당일 강원 학인들이 일주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했다. 해인사방문이 무산된 이후보는 산내 길상암을 참배 주지 명진스님에게 사과했다. 이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종교는 달라도 합장하고 예불 및 탑돌이를 하는 등 불심달래기에 부심했다.

한나라당은 11일 한국일보에 사과문을 내고 "본의아닌 실수로 물의를 일으켜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종교의 존엄성을 지키고 불교를 비롯 종교계의 발전을 위해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계승탈' 파문은 한나라당이 밝힌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 해도 '승보(僧寶) 모독'이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급속히 교계로 확산됐다.

김정은 기자

거짓말, 속임수, 경선 불복… 믿지못할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



◇물의를 일으킨 이회창후보의 대선 법정 홍보물.

'파계승 탈' 파문일지

▲12월 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교계단체 긴급대책회의, 성명서 발표

▲12월 6일 △교계 13개단체 공동기자회견(조계사 불교회관 1층) △한나라당 김태호 사무총장 사과문 발표 △효림스님, 조계사 청년회원 등 1백여명 한나라당 당사 항의방문

▲12월 7일 △한나라당 조순 총재·김태호 사무총장등 조계사 방문,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사과.

▲12월 8일 △교계 단체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원회(준)' 회의. 9일 낮12시까지 이후보의 공개사과 및 사과광고 게재요구 △이회창 후보 부산 코모도호텔로 월주스님 방문, 사과 △조순 총재 부산법회에 참석, 사과 △대불청·태고종 전국신도회·한국불교청년회·조계종 인천사암련 성명서 발표

▲12월 9일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이회창 후보의 방송과 언론통한 직접 공개사과 재촉구 △조순 총재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방문, 사과 △조계사 법당 '이회창 불교모독 규탄 대법회' △대웅전 앞 이회창 후보의 법정홍보물 소각식 △'이회창 허수아비 화형식' 갖고 밤 10시경 해산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성명서 발표

▲12월 10일 △이후보 해인사 방문. 강원스님들의 저지로 무산 △이후보 길상암 방문, 명진스님에 사과

▲12월 11일 △한나라당 사과광고 일간지에 게재 △비상대책위, 사과 미흡하다며 지속적인 규탄운동 전개계획 발표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시정촉구 결의.



◇6일 교계 20여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후보의 방송, 중앙일간지 및 교계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직장법회도 IMF 한파

사과의 말씀

저희 한컴은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만든 광고 대행사입니다.
우선 저희가 만든 홍보물로 인해 저희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결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나라를 어려움 속에 빠뜨린 일부 구정치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가면이 갖는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을 뿐 결코 불교계를
비하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뜻은 홍보물의 앞뒤쪽을
연계하여 살펴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본의와는 달리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드리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1997.12.
한 컴

문화운동 국민동참 '긍정 평가'

'97 문화유산의 해 '폐막'

테마여행등 '알기 찾기 가꾸기' 활기
문화재보호법 개정등 제도 정비 미약

97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이 8일 오후2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 조촐하게 거행됐다.

지난 1월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를 주제표어로 내걸고 출범한 조직위가 그동안 벌여온 사업은 모두 84건. 경제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 사업들이 문예진흥기금 10억원을 들여 마무리됐다.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정신을 길러주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마련한 알기 찾기 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알기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재전문가와 함께 하는 답사 △주제별 문화유산 답사안내 책자 및 △문화유적지도 발간보급 등과 '찾기사업'으로 시행한 △전통문화재현행사 △문화유산 소재 디자인 전람회 등은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직위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도 1천여건이 넘는 자체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조직위의 후원을 받아 본사가 매달 실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총 1천5백여명이 참가, '우리문화유산 알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문화재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출범당시 조직위는 일과성 행사보다는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대마련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문화재보호법 개정, 고도보존법 제정, 문화재관리국 '청' 승격 및 문화재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대선정국에 밀려 파행운행된 정기국회에서 내년으로 넘어갔고, 고도보존법 제정도 경주시와의 의견조율이 안돼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재관리국의 '청' 승격과 동반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전문제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으며 매장문화재 발굴전담기관의 육성방안도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문화재관리국과 조직위가 한국고고학회에 의뢰한 '매장문화재발굴 용역 대가의 기준'이 시안이나마 마련된 것이 다행이다.



◇조직위는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돼 가고 있는 경주 등 고도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노력 등 문화재 보존관리 토대 마련에 주력했으나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11월 고도보존법(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 모습.

한병삼 집행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감축대상에 오르는 것이 문화분야"라며 "내년으로 미뤄진 법과 제도 정비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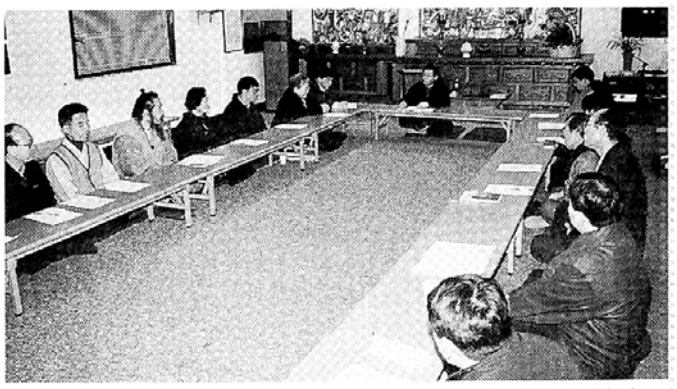
문화유산의 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성보도난사건이 많았던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경주 기림사의 노사나불 복장유물을 포함, 모두 10건에 15점으로 95년의 3건, 96년의 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단 1건뿐이다.

사찰방화도 올해만 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쟁도 모두 49건으로 이중 해결기미가 보이는 것은 4건이 고작이다. 더구나 사찰스님들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며 주변 계곡 임야를 밀어내 산림청에 고발조치 당하는 등 사찰문화재 및 환경훼손이 심한 한해였다.

조직위는 ▲문화재명예관리인 전국대회 ▲문화재범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전국 중요문화재 소방훈련 ▲국가지정문화재 총점검 실시 등을 통해 대책마련에 고심했지만 아직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폐막식에서 선포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헌장'은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와 함께 대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기석 기자



◇5일 열린 청소년 분야 포교사 간담회. 포교사들은 종단의 종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포교사 전문화" 의견 일치

조계종포교원 포교사 간담회 '성과'

포교원이 5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활동분야별 포교사 간담회는 이후 포교사 전문화와 유명무실한 포교사단의 재정비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포교대상자의 언어와 몸짓의 이해없이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교사 전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교사단 임동현 사무국장은 "포교사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포교의지 또한 매우 높았다"며 "몇가지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가시적인 포교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포교사들은 몇몇 개인의 원력에 의한 포교활동에 그칠 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포교원은 물론 포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계종단이 배출한 우수한 포교인력임에도 활용면에서는 개인적인 원력과 활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을 뿐 방치상태나 다름없었다.

종단배출 포교인력 조직적 역할 미흡

9일 열렸던 군·교도소 등 특수분야 활동 포교사들도 '1사찰 1군(교도소)법당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포교사회를 만들자'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포교원은 이와 관련, 포교사단내에 포교분야별 분과위 구성 또는 지역별 분야별 분과위를 구성해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구성에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은 하되 운영은 자율과 포교원의 통제력을 조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포교사들의 종단불신도 여전했다. '1사찰 1군법당 지원제도'의 경우 20여년전부터 제기됐지만 종단이 시행치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섯 차례의 간담회 참석인원이 평균 20~30명에 머문 것도 종단불신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다. 포교원이 종책을 정했으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포교원에서 포교사단 사무국장을 임명하여 포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포교원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배출만했지 포교활동에 지원은 없었다는 항의였다. 포교당을 운영하는 포교사들은 포교사가 포교당을 운영하는 것을 불허한 종법을 비현실적이라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포교원 담당자는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포교당 개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스님들과 재가자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승가의 반응을 알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이후 포교사 전문화 및 포교사단 정비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포교사 자격증을 만능으로 여겨 종단의 체계를 흔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분야별 분과위 자율운영 모색

포교원은 분야별 간담회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소식지를 발간, 종책을 적극 홍보하고 포교활동 성과와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2월경 세미나를 열어 포교사의 지위를 비롯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제도 보완의 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포교사교육의 분야별 개최, 포교사증 갱신 및 신규발행시 전문분야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문화한 포교사의 활동사례 발굴도 주요한 관심사다.

또 본말사 포교규정을 제정, 종법에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사문화된 포교사 의무임용 규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지인사시 포교성과를 반드시 평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예비승 호칭 '사미(니)' 확정

법복 동정·소매끝에 밤색
"위계질서·관리체계 확립"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예비승들은 내년 3월부터 '○○사미' '○○사미니'로 불리게 된다. 또 이들 예비승들에게는 승려증대신 사미(니)증이 발급되며, 법복 동정과 소매끝에 가사색(밤색)을 부착해야 한다.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무관)는 5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당초 고려됐던 '수자'나 '선재' 대신 '사미(니)'로 호칭을 확정했다. 계단위원회에서 율장에도 없는 호칭을 쓸 수 없다는 주장과 사미(니)쪽을 선호하는 스님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사미(니)의 현황과 이동질서를 파악하는데도 용이해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확립에도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초교육기관 상급반 학인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고, 또 호칭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강원 및 사찰들과 협조해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미(니)증은 2차 회의에서 결정됐던 수학증이 대외적 공신력과 전체 사미(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회의에서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교육의무의 강제성과 관리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다.

추진위는 사미(니)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마다 갱신토록 했으며, 2년이내에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예비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사미(니)계를 수지한 이후 2년 이내에 종단 기초교육기관에 입교해야 하며, 4년간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종단이 인정하는 사미(니)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사미(니)들이 소지하고 있는 승려증은 내년 초 일제히 사미(니)증으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모든 사미(니)는 동정과 소매끝에 가사색을 두른 법복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장삼은 동정에만 가사색을 두르도록 했다. 그러나 의제는 시행령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홍보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사찰에 배포한 후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교육원장 암도스님은 이와 관련 내년 1월 초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행의지를 천명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목어 '탈'

한나라당 선거홍보물의 '탈'이 탈을 불렀다. "거짓말, 속임수, 경선불복… 믿지못할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이 말의 상징으로 내세운 '파계승 탈'이 불교계를 자극했다. 왜, 하필이면 '파계승 탈'을 등장시켰을까.

한나라당과 제작진의 사과·해명대로 고의는 아니었으리라. 한표가 새로울 이 마당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만든 홍보물을 통해 불교계를 모독할 리 없다고 본다. 불교계가 '파계승 탈'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계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거짓, 속임수의 상징으로 '파계승의 탈'을 떠올린 그 실수가 문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탈춤에는 으레 파계승 풍자마당이 펼쳐진다. 한나라당이 거짓의 상징물로 삼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파계승은 부네(기녀혹은 소실)를 옆구리에 차고 도망간다. 봉산탈춤에서는 생불로 칭송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탈춤의 5과장 사자춤에서도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위협한다. 이처럼 파계승 풍자를 통해 승려를 비하하고 있는 전통탈춤의 배경에는 조선조의 억불 500년이라는 역사의 수난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아픔이다.

억불과 배불이 만든 불교비하의 문화가 그대로 흘러내려 거짓의 상징으로 '파계승 탈'을 떠올릴 정도라면 '탈'사건은 전통문화 차원에서 이해될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역사와 문화를 바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이해해야만 불교계의 분노를 수긍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나라당의 사과는 바른 역사 문화 종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교계도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대사에서 불거진 '파계승 탈' 사건을 밖으로만 탓할 일이 아니다. 500년된 상처 치유의 계기로 삼을 때 '분노'는 제값을 지닐 수 있다. 고려시대 하회의 승려탈은 색상이 밝고 호방하게 웃는 상이며 조선조 탈은 어둡고 찌든 울상이다. 오늘의 승려상을 '탈'로 묘사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불교계는 자화상을 그려봄직 하다.

승보(僧寶)의 존엄성과 불교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불교를 폄하, 비방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천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2천만 불자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부처님 전에 진정으로 참회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1994년 3·29, 4·10법난, 청와대 예배 사건, 검정고시 평일실시, 17사단 훼불사건, 신학대학원 설립,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등 우리는 특정종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종교사회로서의 기본적 헌법질서조차도 망각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불교모독 법정홍보물은 승보의 존엄과 2천만 불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또 하나의 법난입니다.

그 숱한 종교편향정책과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급기야 이번에는 수천만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우송되는 선거 법정 홍보물을 통해 승보의 권위를 유린하고 1600년 역사의 한국불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불교를 온갖 불신의 상징으로, 또 특정종교를 마치 희망의 화신으로 상징한 이번 한나라당 법정홍보물 사건은 또 하나의 법난에 다름 아닙니다.

한나라당에게 다시금 촉구합니다.

● 불교를 원색적으로 폄하, 비방한 법정홍보물 사건에 대해서 전체 중앙일간지와 방송, 불교계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 조순 총재의 조계사 방문, 한국일보 사과문 등 금번 사태해결을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미온적인 해결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2천만 불자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회창 후보가 종교적 편견보다는 종교간의 화합과 공존번영을 위하는 후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러기 위해서 이 후보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94년 3.29, 4.10법난 당시 국무총리직에 있었던 것과,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를 주장했던 것 등에 관해서도 전 불자들에게 진정한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불교의 자존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 이제 더 이상 요구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승보의 권위와 불교의 자존은 우리 스스로 적극 나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 다시는 이러한 치욕의 법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 엄중 항의 하도록 합시다.

(항의전화 : 02-720-2000)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불교모독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태고종 보현도량, 조국통일불교인협회, 전국전통강원연합(통도사 승가대학 / 해인사 승가대학 / 송광사 승가대학 / 수덕사 승가대학 / 백양사 승가대학 / 범어사 승가대학 / 봉국사 승가대학 / 직지사 승가대학), 동국대 석림회,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 화엄학림, 전국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사 청년회, 보원회, 청년여래회, 대각사 천지팔양신주경회, 대한밀교청년회, 제주정토청년회, 진주불교청년단체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통신대학, 한국대학생불교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법전스님


◇보성스님


◇녹원스님


◇도원스님


◇정천스님


◇종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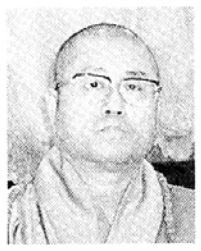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6명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11일 회의를 갖고 법전(해인사방장) 보성(송광사방장) 도원(동국학원이사) 녹원(동국학원이사장) 정천(문수암조실) 종산(보살사조실)등 6명의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또 원로회의는 고송스님(파계사조실)의 사표를 수리 했다. 이로써 조계종 원로의원은 총 22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 혜암스님과 부의장 벽암스님 석주·숭산·정영·탄성·도견·청하·성수스님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127회 중앙종회가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에서 정무스님(영월암조실)은 법랍이 규정(45년)에 모자라 반려됐다고 밝혔다.

"신도조직 구성 발로뛰며 전법"

부평불교연합회 초대회장 홍제스님



"이제는 앉아서 신도들이 오기를 바라기 보다는 찾아다니며 포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8일 부평 웨딩프라자에서 인천 부평불교연합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홍제스님(관음정사 주지)은 부평불교활성화를 위해 포교 최일선에서 발로 뛰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는 포교방법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먼저 각 사찰마다 어린이·학생회·청년회법회 등을 활성화 미래 불교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것. 또 부평구 연합차원의 신도회나 거사림회, 부평불교연합회는 조직구성이 일단락되면 수행자들의 포교도량이며 구민과 불자들의 신행·문화 공간인 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구상중이다.

홍제스님은 "각종 문화·포교활동 등을 통해 부평불교가 인천불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중근 기자

"호국불심 위상 세워야지요"

예비역 공군법사회 초대회장 성진스님



"현역시절 공군불교 발전에 노력했던 신심들을 한데 모아 보람도있는 신행활동을 펼치는 데 힘쓰겠습니다."

15일 공군 예비역 장·사병들을 초청해 모임을 가진 예비역 공군법사회 초대회장 성진스님(진주 총국사주지)은 공군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40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예비역 공군법사회는 지난 9월 허성구법사(대원불교대학 학장)의 주도로 결성이 추진돼 상도동 보라매법당(주지법사 김효준)에서 10월10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공군법사 제3기로 임관해 80년대 중반 한동안 방치됐던 보라매법당 되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성진스님은 "공군불자의 위상 확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새해 설계를 말했다.

김주일 기자

"해방·분단의 애환 법고로 표현"

연극 '단장의 미아리고개' 출연 능화스님



"천지만물이 녹아있는 불교와 북소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족서사 창작음악극 '단장의 미아리고개(조일도 작, 박칠흥 연출)'에 출연하는 능화스님(인천 구양사주지)은 해방이후 역사에서 우리민족이 겪은 해방의 환희, 만해스님의 독립정신을 법고와 북소리로 표현해낸다.

스님은 법고를 치면서 한용운스님이 독립선언문 낭독 당시 공약3장을 발표했던 결연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능화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로 범음대 교수이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해방과 분단 6·25를 겪으면서 생존해야 했던 한 인간의 삶의 비극을 형상화한 음악극이다. 공연은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다. (032) 815-9922

김원우 기자

교차로

치매노인 위로잔치 열어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스님은 17일 단체내 자원봉사모임인 보현행원회 회원 20여명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방문하여 치매노인 위로잔치를 갖는다.

공선위 '대선이야기'서 강연



지선 백양사 주지는 5일 공정선거 민주개혁 충북위원회가 주관하는 '명사와 함께 나누는 '97 대선이야기'에 참석, 강연했다.

대만 불교TV 개국식 참석



성우 파계사 주지는 14일 열린 대만 불교TV 개국식에 참석하고 17일 귀국.

나눔의집에 성금·의류

자용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사회복지회장 스님은 8일 정신대할머니 보금자리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금일봉과 겨울옷 30벌을 전달했다.

'민주정치…' 인천공동 본부장



종호 인천능인사 주지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출범한 '민주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인천시민 선언운동본부 공동본부장에 선임됐다.

국민연금어린이집 원장

오정 동화사 재무국장 스님은 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소재 국민연금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다.

중앙승가대 제2회 동창회

혜인 중앙승가대학교 동창회장 스님은 10일 불교문학포교원에서 제2회 동창회를 가졌다.

제26회 동국인의 밤 행사



황명수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16일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6회 동국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시집 '문화재…' 출판회

박희진 시인은 6일 관훈동 새종교연구원 사무실에서 자작시집 〈문화재, 아아 우리 문화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한나라 불교대책 부위장



여익구 前 민불련 의장은 1일 한나라당 불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97 춤비평가상 받아



김화숙 원광대 교수(무용가)는 한국무용 비평가회로부터 '97 춤비평가 상을 받았다. 김교수는 또 월간 〈객석〉으로부터 '올해의 무용가'로 선정됐다.

불교대구방송국장 취임

이성순 문화인력개발 대표이사는 9일 불교대부방송 방송국장으로 취임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삼부토건 300,000원 △풍기초등학교 6학년 일동 135,000원 △하나 스트릉 109,658원 △고승범 100,000원 △유성현 100,000원 △장재순 100,000원 △한용찬 80,000원 △장세은 60,000원 △조미옥 60,000원 △염준석 56,500원 △김난옥 50,000원 △임병하 50,000원 △김진숙 50,000원 △노옥자 50,000원 △김혜경 50,000원 △김길자 50,000원 △김한숙 50,000원 △김용주 40,000원 △노영숙 35,000원 △박양미 31,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049,700원 〈10일 현재 총 880,848,476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법안정사 주지 대운스님 추대



목동 법안정사 새주지에 대운스님(前 봉은사 주지)이 추대됐다. 취임식은 23일 10시 대웅전에서 갖는다.

대운스님은 "무엇보다 중단중인 모든 법회를 다시 열어 대중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개안수술비 3백만원 전달

김애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보유자는 개인발표회 수익금 3백여만원을 1일 새생명광명회 봉사단(대표 김기원)에 개안수술돕기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 성금으로 조현철군(통영상고 2년)등 2명이 개안수술 혜택을 받게된다.

'문화유산…' 공로 총리 표창



김창균 문화재 전문위원은 8일 창덕궁에서 열린 '97 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문화유산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대중 후보 월주스님 방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와 정부의 문화예산 5년내 2% 상향조정, 팔만대장경 전산화 지원 등 현안문제를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난국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 정신이 귀감이 되고있다"며 국가차원의 문화재 보존정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본사 김광삼 사장 '문화유산의 해' 감사패

불교 테마여행 공로…이경숙부장 문체장관상

김광삼 본사 사장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본사가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의 후원으로 매월 실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성과를 인정받아 23일 한국의 집에서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이와 관련 테마여행 실무를 담당해온 이경숙 취재2부장도 8일 '97 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문화체육부장관 공로상을 받았다.


◇김광삼 사장


◇이경숙 부장



선방스님도 대선 부재자 투표

Focus

제15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동안거 중인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 중앙선원 9명의 수좌들은 11일 화성군 제2지구 봉담출장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했다. 이날 선방에서 수행하듯 시종 묵언으로 부재자투표를 마친 수좌들은 "그동안 선방수좌들은 투표에 소극적인 것이 관례였으나, 위낙 경제가 어려운 시국이라 참여했다"며 "차기대통령은 경제난을 조속히 극복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은 선방수좌, 강원 학인스님들이 부재자투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화성=고영배 기자〉

中央僧伽大學校 '98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이래 7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 학교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 받았고, '96년 12월 안암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서, '97년 11월 2개학과 증설인가, 군법사 선발대학 인가 등 제반구비 및 학풍이 정착되어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나"군〉 신입학 시험

모집학과 및 정원

※ 정원외 모집은 입학정원의 2% 학과정원의 10% 이내에 시행함

계열구분	학 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정원내(대교과출신)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등)	비 고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주간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4개학과	72명	48명(40%)	2명	총계122명

※ 특차모집 합격자및 정시모집 타대학 동일학군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2지망을 할 수 있으며, 출신고교와 본교 지원학과 간의 동일계(비동일계)에 대한 가(감)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 경 학 과〉 역경학과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한문 등 불교경전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역경사로서의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학과로 신설.

〈포교사회학과〉 포교사회학과는 종단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및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학과로 신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만으로 우선 선발함.
  ※ 「수능시험」준비를 하며 「경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승가교육 바탕위에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
  ※ 재외국민, 외국인 승려 특별전형은 별도요강에 의해 시행 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 타종단 승려도 추천으로 응시, 총정원의 5% 내외로 입학 할 수 있음.
- 전형방법 : 하기 전형방법으로 입학정원 60% 범위 내외 선발 함.

고교내신성적	교리 및 상식고사	면접고사	합 계
40%	40%	20%	100%
400점	400점	200점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7. 12. 8(월)~98. 1. 6.(금) 17:00 (단, 토요일은 제외)
- 접수기간 : 97.12.29(월)~97.12.31.(수) 14:00/98. 1. 5.(월)~1. 6.(화) 17:00 (교육부 지정기간) ※ 전화로 우편교부 신청하거나 접수기간내 우송접수 가능함.
- 제출서류 : 우송·교부 입시요강 참조
- 예비소집·교리고사·면접: 정시모집 "나"군 '98.1.16(금) 09:00~17:00(음 12월 18일)

2·3학년 편입생 모집

1) 모집내용 : 제2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OO명
제3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O명
2) 전형방법과 일정은 신입학 요강과 유사함. (접수기간 : '98. 1. 5.(월)~1. 9.(금) 17:00)
※ 지원 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 바람.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02)925-5507~9(내 202~205) FAX : (02)928-4302

교수초빙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불교중흥과 도제양성을 위해 신·행을 겸한 유능한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학 과	모집 전공분야	비 고
역경학과	중국불교 및 범어전공 (역경학개론, 불전전역사)	'98년 신설학과
포교사회학과	포교상담 및 교육심리 포교방법론 및 커뮤니케이션	'98년 신설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론, 사회사업방법론	

2 지원자격

1. 박사학위 취득자('98. 2. 28 취득 예정자 포함)
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3년이상 강의 또는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3. 불교관련 미개척 분야에서 10년이상 연구하여 국내·외 불교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
4.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제출서류

① 국문 이력서(빈명함판 및 연락처 기재) 2부
② 학력(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원 신고접수증 〈등록증명서〉 제출)
③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1부
④ 연구(저서)실적 목록(발표자, 발표내용, 발표기관, 발표연도순으로 기재) 1부
⑤ 학위 논문 및 최근 4년이내 연구 실적물('94. 3. 1일 이후 발표된)실적물 1부
⑥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부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1997. 12. 30일 마감(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5 기 타

1. 신규 교원으로 임용시 2년 계약제로 하며 2년 경과후 재심사하여 임용함
2. 심사 결과는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함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외국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국문으로 번역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926-4377(교환 301~303)으로 문의 바람

탐방 産銀 불교회



◇한국산업은행불교회는 6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돌 법회를 갖고 '경제살리기'를 발원했다.

'동체대비로 경제살리기' 발원

"우리 불교는 국난에 처할 때마다 민족의 고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혜광명으로 오늘의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6일 한국산업은행 본관 32층 강당. 한국산업은행불교회 이형관 회장(기술개발지원팀 부부장)은 창립 9주년 기념법회에서 삼

10년전 창립…금융한파로 활동침체

회보 재발행등 법회 활성화 노력

귀의례와 헌화에 이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금융빅뱅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융인 불자들이 보살심을 발휘해 국난을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도 법문을 통해 "무소유 정신과 어려운 때일 수록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는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발휘해 집에 묻어 둔 달러와 금붙이를 유통시키자"면서 "불자들이 밝은 지혜로 근검절약과 청정한 생활을 솔선수범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1987년 12월 3일 봉은사에서 정우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초대회장 김중석·자카르타사무소장)한 한국산업은행불교회는 올해 들어 다른 은행·직장법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침체기를 맞았다. 회보 〈이 뭣고〉 발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매달 둘째 토요일 정기법회와 분기별 사찰순례 법회 등에 참석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매년 연말마다 실시해 온 불우이웃 돕기도 챙길 여유가 없는 실정. 하지만 회원들은 '살아 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탓인지 어느 때보다 차분한 신행을 다지는 것도 사실. 뜻하지 않은 감원 등에 대비 평정심(平定心)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관(觀)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재무간사인 이현자씨(외환영업실 대리)는 "생활속의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회보를 다시 복간하는등 법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일하는 삶 속에서 늘 푸른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따뜻한 대화로 외로움 녹여요"

제주 붓다클럽 58명 소년가장·독거노인과 결연

연말이면 더 외로운 소년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들. 이들에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자매결연을 통해 외로움과 삶의 고달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어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최대의 신행단체인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은 6일 오후 제주칼호텔 연회장에서 송년법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 58명(전체회원 5백여명)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회봉사에 공이 큰 희원과 가족에게 '붓다맨상'(김승훈 이재형)과 '유공부녀회원상'(강순덕 김명자)을 시상, 보살행을 적극 권할 것을 발원했다.

앞으로 회원들은 수시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의 가택을 방문해 따뜻한 대화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하게 된다.

한편 붓다클럽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제7대회장에 홍재만씨를 선출하고 4개 지회인 백록회 회장에 이길형, 영주회 회장에 고광석, 한라회 회장에 양경석, 천지회 회장에 김만국씨를 각각 선임했다.

■인터뷰 홍재만 신임회장

"내년부터 전국조직 도약"



"4개 자모임 5백여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제주지역 최대의 불교단체답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돌보는 단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송년법회에서 제주붓다중앙클럽 제7대 회장에 취임한 홍재만씨(48·고관사 신도·은마교통 대표이사·사진)는 "6년간의 조직기반을 토대로 내년에는 부산지회를 창립하는등 전국 조직으로 붓다클럽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

"번뇌 버리고 부처 됩시다"

청정회 부산서 창립3돌 법회

서울대학교 출신 9명의 잇따른 출가를 도출해 낸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의 구도모임 청정회(회장 강희병)가 창립3주년을 맞아 6일 부산 청정선원(원장 휴담)에서 강정진법사 초청 기념법회를 열었다.

94년 결성이후 구도회를 이끌어 온 스승 강정진거사는 "무기와 번뇌의 존재인 중생이 그 속성을 바꾸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관법, 염법, 외심법의 올바른 수행과 정진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 지회를 두고 수행하고 있으며 강정진거사는 매월 각 지방을 돌며 회원들의 수행을 점검 지도하고 있다.

MBC 불교硏 이웃돕기

회원 100명 기념법회도

문화방송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5일 창립이후 1년 6개월만에 회원 100명을 돌파,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문화방송에서 벌이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MBC불교연구회는 이와 함께 23일 홍우빌딩 10층 여의도포교당에서 회원 100명 돌파 기념법회 및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同회는 내년 1월 중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부산, 대구MBC불교연구회와 3사 합동으로 신년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97 '불교언론인의 밤'

제1회 기자상 시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8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97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1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제1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 이만섭기자(법보신문) 취재보도부문 윤기석기자(현대불교신문) 기획보도부문 이성수기자(주간불교신문)가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태응(불교TV 사장) 원혜(조계종 포교부장) 백운(태고종 사회부장) 설산(한국불교사회봉사회장)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송금엽 월간불교 주간, 박경훈 법보신문 주필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은평사원련 외제품 안사기운동

서울 은평구사원연합회(회장 성운스님)은 5일 수국사에서 12월 정기법회를 열고 회원 사찰별로 법회를 통해 신도들에게 경제난을 알리고 외환통장 개설과 외제품 안사기 캠페인을 각 사찰별로 실천키로 했다.

이날 법회는 최근 IMF 차관도입과 관련,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회'로 봉행했으며, 진관사 은평포교원 등 20여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부평불교연합회 창립법회

부평불교연합회(회장 홍제·관음정사 주지)는 8일 백운웨딩프라자 8층 사파이어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무찰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륜 인천불교연합회 명예회장, 도허 인천불교연합회장, 홍제 부평불교연합회장을 비롯, 최용규 부평구청장, 황충식 부평구의회의장, 조진형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동방불교대 '동방인의 밤' 행사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의 정규대학 설립을 기원하는 '제1회 동방인의 밤' 행사가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 주최로 6일 타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총무부장 지성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스님과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 왕선스님(마이산 탑사주지)등 동문회 임원 및 김철회 태고종 전국신도회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대전 불교자원봉사단 발대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9일 대전 서구보인복지회관(관장 도영스님)에서 일화스님(조계종 총무원장사회국장)을 비롯 자원봉사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불교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 모임에선

불일교사법우회 수련회

불일교사법우회(회장 김성태·인제대경제학과 교수)는 25~27일 2박3일간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25일 오후 4시 입제식을 시작으로 △좌선 △〈금강경〉〈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강의(이창주 전북대강사) △보조사상연구회 월례발표회(27일 오후 2시30분) 참석 등으로 진행된다. (02)733-5335

부산구도회 '유마경' 강의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는 25일 오후 7시 구도회관에서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동국대 부총장)을 초청, 송년법회를 겸한 〈유마경〉 강의 법회를 개최. (051)462-5062

영등포교도소 찬불가 경연

영등포교도소불심회(회장 문기두)는 17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가수 송춘희법사(백련장학회장)를 초청, 재소자 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619-2781

결손가정 아동 도와

상주시법우회(회장 박용식)는 20일 오후 7시 상주농협예식장에서 '상주불교인 송년법회'를 연다. 同회는 또 20일을 전후해 상주시 이안면에 소재한 호암사를 방문해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는 결손가정 아동 10여명에게 쌀과 기름, 교육비 등을 전달할 계획. (0582)535-2176



부산불교교육대 송년법회

부산불교교육대학 3기 포교사회(회장 오일수)는 10일 부산 보훈병원 대강당에서 환자들과 포교사들이 한데 어울리는 송년법회(사진)를 마련했다.

3기 포교사회는 매월 두 차례씩 보훈병원을 방문, 정기법회를 열어 오랜 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고 있다.

대구산악회 위문품 전달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26일 오후 7시30분 서대구 황금의나라 회관에서 송년법회 및 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스님)와의 친교의 밤 행사를 갖는다.

이날 동화사 부설 불교사회복지회에 위문품 및 성금을 전달할 예정. (053)556-3553

부산거사림 통광스님 초청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엄영근)는 30일 오후 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지리산 칠불사 주지 통광스님을 법주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51)805-1280

구룡사 청년회장 김영은씨

서울 구룡사청년회(회장 이경옥)는 14일 오후 1시 구룡사 문화회관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차기회장에 김영은씨(가죽공예 장인)를 선출했다. 이날 법회는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의 법문과 전통무용, 판소리 강습 등으로 진행. (02)575-7766



경기보다 한단계 더 높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장으로
「참사람 열린교육」을 실현합니다

서울까지 올라오지 마십시오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승차권이 필요없는 입시"

동국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98학년도 대학 입시를 전국 9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998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 모집 (특차, 정시)

1. 서울캠퍼스 모집인원(전형군 "나"군)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시	계
불교	인문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10	42	52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선학전공 승려		17	17
문과	인문	인문학부	사학전공	18	72	90
			철학전공			
			국민윤리학전공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	20	40
			문예창작전공			
		영어영문학부		25	25	50
		독어독문학과			30	30
		일어일문학과			30	30
이과	자연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131	131
			화학전공			
			통계학전공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50	50
법과	인문	법학과		40	40	80
사회과학	인문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60	60	120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찰행정학과		20	20	40
경상	인문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52	53	105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60	60	120
			정보관리학전공			
		회계학부	회계학전공	30	30	60
			세무회계학전공			
생명자원과학	자연	생명자원과학부	식물자원학전공		90	90
			산림자원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인문	생명자원경제학과			30	30
공과	자연	전자 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05	105	210
			전기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60	60	120
			건축공학전공			
		공학계열	화학공학과		191	191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보산업	자연	정보·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70	70	140
			정보통신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부	산업공학전공	45	45	90
			정보시스템전공			
사범	인문	국어교육과			39	39
		역사교육과			40	40
		교육학과			30	30
		지리교육과			40	40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시	계
A·B	자연	수학교육과			30	30
		가정교육과			30	30
	아체능	체육교육과			40	40
예술	아체능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12	12
			한국화전공		13	13
			서양화전공		12	12
			조소전공		13	13
		연극·영상학부	연극영화 이론·연출	10	10	20
			연기·기술	10	10	20
문과	인문	영어영문학과(야)		(35)	15	50
		중어중문학과(야)		(35)	15	50
이과	자연	물리반도체학부(야)	반도체전공	(28)	12	40
		북한학과(야)		(20)	20	40
사회과학	인문	신문방송학과(야)		(25)	25	50
		아시아지역학부(야)	아시아지역학전공	(30)	30	60
경상	인문	경제·통상학부(야)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73)	32	105
		경영학부(야)	경영학전공 정보관리학전공 광고학전공	(112)	48	160
		회계학부(야)	회계학전공 세무회계학전공	(42)	18	60
정보산업	자연	정보·전자·통신공학부(야)	정보통신공학전공	(70)	30	100
서울캠퍼스 합계				635 (470)	1,835	2540

※( )안은 취업자 모집인원으로 특차에서 모집함.

2. 경주캠퍼스 모집인원(전형군 "라"군)

대학	계열	학부/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시	계
불교문화	인문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일반		40	40
			선학전공 승려		20	20
		불교아동학과			50	50
	아체능	국어국문학과	가야전공		25	25
			신라전공		5	5
			전통무용전공		5	5
			불교음악전공		5	5
			불교음악(이론·불교음악작곡)전공		6	6
			불교무용전공		5	5
인문과학	인문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		100	100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162	162

대학	계열	학부/학과·전공		모집인원 특차	정시	계
인문과학	인문	역사철학부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철학전공		131	131
		사회복지학과			51	51
	예·체능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12	12
			한국화전공		13	13
			서양화전공		12	12
			조소전공		13	13
		사회체육학과			50	50
자연과학	자연	자연과학부	생명학전공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135	135
		전산정보학부	통계정보학전공 전자계산학전공		90	90
		조경학과			50	50
		안전공학과			71	71
		정보통신공학부			80	80
		수학교육과			40	40
		가정교육과			41	41
법정	인문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101	101
		법학과			70	70
상경	인문	경상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산업학전공		365	365
		관광경영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50	71
한의과	자연	한의예과		19	45	64
의과	자연	의예과		15	35	50
		간호학과			50	50
자연과학	자연	전산정보학부(야)	전자계산학전공	(8)	32	40
법정	인문	법학과(야)		(8)	32	40
상경	인문	관광경영학부(야)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10)	41	51
		경상학부(야)	경영학전공 정보산업학전공	(22)	90	112
경주캠퍼스 합계				55 (48)	2,123	2,226
총 계				690 (518)	3,958	5,166

※( )안은 취업자 모집인원으로 특차에서 모집함.

3. 전형구분
가. 특차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취업자,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나. 정시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특기자, 소년소녀가장)

4. 특차일반전형 지원자격

캠퍼스	모집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서울	인문계열		동일계열 전국상위 7%이내
	경찰행정학과		동일계열 전국상위 4%이내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		동일계열 전국상위 10%이내
	건축·토목공학부		동일계열 전국상위 9%이내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	계열구분 없이 전국상위 4%이내
		연기·기술	계열구분 및 신장제한 없음
경주	한의예과		동일계열 전국상위 2%이내
	의예과		동일계열 전국상위 4%이내
	관광경영학부		동일계열 전국상위 20%이내

5.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특차모집

구분		반영비율 내신	수능	실기	합계
일반전형	일반계열 및 연극영상학부(이론·연출)	40%	60%		100%
	연극영상학부(연기·기술)	40%	20%	40%	100%
특별전형	취업재직자 특수교육대상		100%		100%

나. 정시모집
■서울 캠퍼스

구분		반영비율 내신	수능	논술	면접	실기	합계
주간 일반계열(인문계, 자연계)		40%	55%	3%	2%		100%
야간 일반계열(인문계, 자연계)		40%	60%				100%
사범대학	인문·자연계과	40%	55%	3%	2%		100%
	체육교육과	40%	28%		2%	30%	100%
	미술학부	40%	30%			30%	100%
예능계열	연극·영상학부 이론·연출	40%	55%	3%	2%		100%
	연기·기술	40%	20%			40%	100%

■경주 캠퍼스

구분		반영비율 내신	수능	면접	실기	합계
주·야간 일반계열(인문계, 자연계)		40%	60%			100%
사범계열(수학교육, 가정교육과)		40%	58%	2%		100%
예·체능계열	미술학부, 사회체육학과	40%	20%		40%	100%
	국악과	40%	10%		50%	100%

6. 내신성적 반영비법
1학년은 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며, 2·3학년은 계열에 따라 4개 지정영역에서 학년별로 성취도가 가장 높은 4과목을 임의 선택하여 성취도 평가(가중치 없음)

7. 전형일정

구분	원서교부	원 서 접 수	전 형 일 제
특차	'97.12.10(수) ~12.22 (월)	'97.12.20(토)~12.22(월) 지참금수'97.12.20(토)~12.21(일)	적격생체학적인터뷰 실기고사 '97.12.23(화)~12.26(금)
정시	'97.12.10(수) ~12.31 (수)	'97.12.29(월)~12.31(수) 지참금수'97.12.29(월)~12.30(화)	서울 : '98.1.15(목)~1.16(금) • 지역별 고사 1.13~14 경주 '98.1.23(목)~1.24(토)

8. 지역별 원서접수처 및 서울캠퍼스 정시모집 지역별 고사장

지역	입학원서 접수처(특차·정시)	논술·면접고사장
부산	사직체육관	경남상업고등학교
대구	시민운동장 체육관	대구여자고등학교
광주	구동체육관	광덕고등학교
전주	진주체육관	전주농림고등학교
대전	충무체육관	보문고등학교
춘주	한일초등학교 강당	춘주상업고등학교
강릉	문성고등학교 강당	강릉상업고등학교
제주	학생문화관	오현고등학교

9. 입학원서 판매처(서점)
서울·경주캠퍼스, 서울 (고봉, 종로, 영풍, 영등포, 동화, 세종, 한기획, 문지, 서울, 고인, 신촌, 대진, 서원, 뉴코아, 두레, 노원, 서적백화점, 시티, 국민, 진솔, 푸른), 인천(강인, 대한, 계산, 한기획, 부평), 대구(종로, 학우), 부산(동보, 동아, 창솔), 광주(충장, 삼복, 일신, 양림), 대전 (문경, 동국, 대흥, 계룡), 전주 (인쇄, 홍지), 수원 (경기, 대성), 안양 (안양, 대동), 안산 (대동), 고양 (한양), 경주 (대원), 울산 (동학), 포항 (학원사), 김천 (충무당), 마산 (고시, 대신), 천안 (문화, 한림, 국민), 안동 (종로), 충성 (중앙), 청주 (순천, 청풍, 국민), 충주 (책이있는곳터), 제천 (경복), 목포 (한대), 순천 (중앙), 여수 (한대), 강릉 (강릉, 맘교터), 원주 (동아), 속초 (문우당), 제주 (금정), 온행 (국민, 조흥, 한일, 제일)의 주요 시·도지점

10. 입학정보 안내
가. 서울캠퍼스 고무처 입학과 (02)260-3031~4, FAX(02)260-3696
나. 경주캠퍼스 고무처 입학과 (0561)770-2031~4, FAX(0561)770-2006
다. 인터넷 http://dguc.dongguk.ac.kr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인격과 인류사회 및 자신이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중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법회안내

강화 적석사 (032)932-4319
신중기도 및 산신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칠성기도 매월7일(음) 오전11시
지장기도 및 영가천도재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음기도 및 인등축원기도 매월24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주지 선암스님

손모음선원 (02)3437-6958
신중기도 매일 오전7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혜천스님

사천왕사 (02)939-3900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3시

삼척 삼장사 (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8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교교리공부 '첫 걸음'

조계사(주지 현근)는 98년 1월10일부터 '불교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사진은 성욱스님(조계사 교육국장)이 지난 8월 수강생들과 여주 신륵사를 방문해 수련법회를 하고 있는 모습.

신행수첩

깨달음으로 가는 길
금선사 철야용맹정진

서울 구기동 금선사(주지 법안)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철야 용맹정진'을 20일 밤 10시 대웅전에서 갖는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아집(我執)과 편견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번뇌로, 불교의 가르침은 번뇌를 다스리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승불교에서는 번뇌를 깨달음의 씨앗으로 보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한다.

회향은 21일 새벽 5시, 동참금은 없다. (02)395-9911

茶禪一味 느껴보자
금강교육원 참선다도교실

차 한잔과 함께 하는 겨울나기. 짙은 향 우러나는 한잔의 차를 앞에 두고 다도의 깊은 뜻을 배워보면 어떨까.

금강문화교육원(원장 벽암스님)은 새해 1월부터 벽암스님이 지도하는 '참선반'과 동일스님이 강의하는 '다도반'을 개설한다. 매주 1회 실시될 이번 강좌는 불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자세를 심어주기 위한 것. 또한 금강문화교육원은 12월부터 △〈밀린다 왕문경〉(벽암스님) △〈천수경〉(원돈스님) △'한글사경'(원명행) △'불교꽃꽂이'(홍현숙)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 (02)893-2700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자양복지관 바자회등 행사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22일 '노인무료급식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들에게 동지팥죽도 제공될 이날 행사에는 전통한복, 재생비누, 겨울쉐터, 우리향 등을 판매하는 '자비의 바자회'와 '흘러간 영화상영' '춤추는 엿장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02)458-1664

겨울캠프서 자아실현
불교복지회 낙동강 탐사

또래집단과의 건전한 어울림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겨울캠프가 열린다.

대구 동화사 부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스님)는 20일부터 24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낙동강변 석정사 일원에서 불꽃캠프를 개최한다.

'마음의 불꽃 생명의 불꽃'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낙동강 수질탐사 △심리상담 △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 △컵등 들고 탑돌이 △사찰예절 익히기 △캠프파이어 등이 실시될 예정. 대상은 중·고등학생 80명이며 참가비는 3만원. (053)427-1907

불교의 흐름을 한눈에
조계사 기초교리강좌

새해를 맞이해 첫 출발하는 마음으로 불교교리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자.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98년 1월10일부터 조계사 제1강의실에서 '제20기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의 정의 △불자예절과 신행방법 △불교의식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선(禪)의 정의 △수련법회 △찬불가 등이다. (02)720-6742

통일·경제회복 이루자
동산불교대 만일염불세미나

신라시대 삼국통일을 발원하며 아미타불을 염불했던 그 마음으로 남북통일과 경제회복을 위해 불심으로 국민적 힘을 모아보자.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31일~98년 1월2일까지 2박3일동안 고성 건봉사(주지 해장)에서 '만일염불 발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2-1206

옛글서 배우는 지혜
봉화수련원 한문서당

경남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은 26일 한문서당을 개원하고, 초등학교 4학년~대학생(일반도 가능)을 대상으로 98년 1월 18일까지 한문교육을 실시한다.

한문서당에서는 신천자문(新千字文) 사자소학(四字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을 교육하며, 학동들은 23일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꼼꼼히 짜여진 일과표에 의해 합숙, 수학하게 된다. 이밖에도 한문서당 일과중 토요일, 일요일에는 극기훈련, 담력훈련, 좌선 및 교양강좌, 학교과제 공부 등을 통해 패기와 창의력을 기르게 된다. 60명 선착순 모집. (0525)42-2991

나의 수행일기


권 이 담

〈목포시장·보현정사 총신도회장〉

참회로 얻은 '安心立命'

조석 참선…육바라밀 실천하려 노력

우리는 삶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며 산다. 인생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어찌보면 인생은 괴로움의 반복인 것 같다.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잊기위해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니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즐거움보다 괴로움으로 얼룩진 나날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이 길을 왜 가야만 하고 또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방황하게 된다.

나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러한 정신적 갈등을 알았고 이를 해소하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불교를 만났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 그 자체에 있다는 생각과 수행(修行)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삶을 정화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누구나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 있었겠지만 마음 먹은 일을 기어이 성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로서는 젊은 시절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전혀 딴판으로 한의학에 무한한 관심이 생겼다. 아마도 불교를 믿음으로써 불서를 접하고 인접 학문 관련 책들을 섭렵하면서 생긴 학구열이리라. 나는 불혹의 나이에 한의과대학에 진학했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마쳐 한의사로서 의술을 정성껏 펼쳐 보일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방송사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자극하게 된다.

지역사회를 위해 절실한 일이었다. 정말 모든 정열을 다 바쳐 방송사를 키우기 위해 매달린 결과 라디오 방송에서 TV방송으로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이뤄진 내 꿈은 5공 정권에 의해 언론 통폐합이라는 미명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다. 그때 생긴 심적 고통과 좌절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불심이 솟다가도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때 불보살님의 가피력에 온몸으로 의지하게 됐다. 우선 나의 일욕심으로 인한 내 삼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깊은 참회를 통해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껏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무시당하고 아파한 사람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가운데 안심입명의 고귀한 뜻을 가슴에 새기게 된 것이다. 나는 불교의 수행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스님들도 막 출가해 하심부터 배운다고 들었다. 나의 수행은 하심 그 자체였다.

자기를 최고라고 우쭐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뿐아니라 점점 부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참으로 필요한 실천윤리가 되었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하였다.

요즈음은 세속 일정에 빠져 법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이 현실은 집에서 새벽과 저녁시간에 하는 참선으로 위안을 삼는다. 또 육바라밀행을 실천하도록 순간순간 가다듬고 있으나 한없는 부족함을 느낀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정신, 이기심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행'을 가르치셨다. 이 불교정신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사람이 소아병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가 자비심을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나부터 하심 또 하심할 것을 다짐한다.

게 시 판

♣ 행사

△이웃돕기 가두모금=부산 법연사(주지 조연)는 20일 태화쇼핑앞에서 불우이웃돕기 가두모금을 펼친다. 이날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북한동포돕기불교운동본부에 전액 보내진다. (051)517-2080

△청소년 어울마당=월곡청소년센터(관장 최일산)는 겨울방학을 맞아 24일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제기차기'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2)918-3543

△유자차 판매=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법당 및 유치원 신축기금 마련 유자차 판매 행사를 갖는다. (02)932-2333

△서울불청 송년회=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회장 김인택)은 26일 오후7시30분 만해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 알림

△불교 신춘문예=불교신문(사장 정휴스님)은 20일까지 '98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작'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시, 시조, 단편소설, 동화 등 4개부문에서 실시된다. (02)733-1604

△조계사학생회 송년예술제=조계사 중·고등학생회(회장 송창연·숭문고2)는 2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송년예술제를 개최한다.

△건강상담=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21일 오후2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원봉사자는 인제약국 박문수약사. (0551)31-8017

△전통메주 판매=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0년 노하우로 만든 '금강경 클래식 메주'를 시판하고 있다. 가격은 한말에 4만5천원. (02)742-0172

♣ 모집

△대구불교대 신입생=대구불교대학(학장 선봉스님)은 17일부터 98년 2월28일까지 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주간반과 야간반이며 편입도 가능하다. 단 편입생은 수료증 지참. (053)256-3725

△자원봉사원=연꽃마을(이사장 각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전 및 봉사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들에겐 소정의 교통비와 식대가 지급된다. (02)365-3677

△미술·학습교실 강사=부산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연스님)은 유치·초등부를 지도할 미술강사와 초·중등부 전과목을 가르칠 학습교실 강사를 모집한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051)264-9033

♣ 법회

△법류스님 초청=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2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법류스님(조계종 포교사) 초청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08

△시현스님 추모=前 보리수마을 원장 시현스님 1주기 추모법회가 24일 오전11시 서울 세곡동 법수선원에서 열린다. (02)445-1368

△경제위기 극복=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총재 윤호석)는 17일 오전10시 금강원법당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법회'를 연다. (02)395-2571

♣ 화촉

△김태형 법보신문기자는 27일 오후3시 동국대 동국문화관 그릴에서 신부 이지희양과 화촉을 밝힌다.

고침 154호 6면 신행수첩에 게재됐던 '삼일선원 대중법회' 기사에서 행사날짜 11일을 14일로, 삼광스님을 원광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 모시는 말씀 ●

守國寺 黃金寶殿
藥師如來 부처님 點眼 法要式

歸依 三寶하옵고

守國寺 黃金寶殿에 모시는 藥師如來 부처님 點眼式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四部大衆 여러분께서는 두루 枉臨하시어 무량의 因緣功德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坐高 10자, 금동, 5여래불을 奉安하였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1997년 12월 19일(음 11월 20일)오전 10시
● 장 소 : **수국사 황금보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14
● 연락처 : ☎ (02)356-2001, 2002

불기 2541년 12월 일

大韓佛敎 曹溪宗 守國寺
住持 **韓 貞 基(慈容)** 合掌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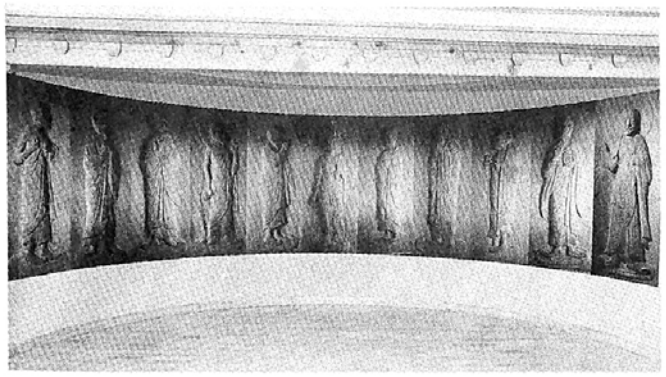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제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14일 개원한 길상사는 설법전을 후불탱화대신 석굴암사진판넬로 장엄했다.



▶선덕사 후불탱화에는 우리나라 역대 14명의 고승과 밭을 갈고 트랙터를 모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법당 장엄도 현대화 '붐'

길상사 **사진판넬 병풍처럼**

선덕사 **백두산천지 배경 탱화**

불광사 **금강경 경구동판 벽장엄**

한마음선원 **천만부처님 먹그림**

14일 개원한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는 설법전을 후불탱화 대신 대형 사진 판넬로 장엄했다. 석굴암 10대제자와 관세음보살상을 찍은 사진을 가로 62㎝ 세로 150㎝로 확대해 병풍처럼 붙인 것이다.

또 지난 10월 8일 점안식을 가진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의 극락보전 후불탱화는 기존의 소재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삼존불을 중앙에 놓고 우리 겨레의 위대한 선지식들인 원효 의상 자장스님에서 만해스님까지 14명의 고승들을, 아랫부분에는 밭을 갈고 트랙터를 모는 농부들을 그렸다.

사찰의 법당은 거의가 중앙에 불보살을 모시고 후불탱화를 봉안하며 탱화는 전통적으로 종이나 비단에 부처님과 각 보살, 아라한, 금강역사 사천왕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채색한 영산회상도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같이 법당을 장식하는 탱화가 과감히 생략되거나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고, 탱화를 봉안하더라도 내용에 현대적 의미를 가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특히 도심사찰에서 이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길상사 선덕사 외에 석촌동 불광사(주지 운암), 역삼동 강남포교원(원장 성열), 동선동 삼선포교원(원장 지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각 지원, 양평 법화사(주지 현관), 진해 성주사(주지 지상), 충주 군법당 황룡사,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 등이다.

불광사는 대웅전의 벽을 금강경의 경구를 동판에 새겨 장엄했다. 강남포교원은 지하 법당의 본존불 뒤를 비천상과 이차돈 순교상을 조각해 장엄했으며 세 벽면은 반야심경 등 여러 경전에서 뽑은 글귀를 동판에 새겨 붙여놓았다. 삼선포교원의 법당 천수관음보살의 뒤 전체 벽면은 갈색의 FRP로 만든 테라코타 관음상 천개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음선원은 부산등 전국 14개 지원과 미국등 8곳 해외지원의 법당을 먹으로 그린 천만부처님 화엄법계도(허허당스님作)로 장엄하고 있다.

통나무법당으로 유명한 법화사는 역시 천수관음 뒤 벽면 전체에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보여주는 체색 부조를 봉안해 놓았다. 성주사는 한지를 이용해 흙을 섞은 분채로 채색한 지불(紙佛) 부조 탱화를, 황룡사는 검은 비단에 보살상과 주악을 연주하는 천녀, 그리고 날아가는 여러대의 비행기 모습을 그린 후불탱화로 공군법당임을 알려주고 있다. 보광사는 관음전 외벽 중앙에 관세음보살과 양옆으로 농민 학생 노동자 전경 등이 어깨동무를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민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같은 후불탱화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사찰이 도시에 위치함에 따라 법당의 구조자체가 전통사찰과 같은 장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과 스님들과 신도들의 변화된 취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불상 불화는 그 시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방편으로 종교적 이념이 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의해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11〉

만물이란 원래 헛그림자

萬物由來只一幻 (만물유래지일환) 만물이란 원래 하나의 헛그림자
靜觀無物不歸空 (정관무물불귀공) 고요히 살피면 빈 것으로 가지 않음 없다
雖默失脚蹉毫末 (수묵실각차호말) 비록 잠잠히 헛디뎌도 터럭 끝의 차이인데
異見紛紜各不同 (이견분운각부동) 다른 견해로 어지러이 같지 않다 떠드네.

위 시도 묵암대사의 시로 '사물을 살핀다(觀物)'라 제한 시이다. 사람의 삶이란 싫든 좋든 대상의 경계와 직면하여 살게 되어 있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첫 단계야말로 우리가 대상의 사물을 관찰하는 행위이고 이것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을 우리는 만물이라 한다. 만물은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고서 이름지어진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첫 구절부터 이 만물을 허깨비에 불과한 그림자라고 했다. 이 말은 다음에 오는 차별이 없다는 말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범상인이 사물을 볼때 차별이라는 구분이 있음으로 해서 살피려 하고 그 차별에 의해서 존재를 인지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오해를 치유하는 방편을 제시한 셈이다.

송나라 때 유학자의 시구에 '만물을 조용히 살피면 모두가 스스로 터득된다(萬物靜觀皆自得)'함이 있다. 위 시는 이 시구와는 아주 대조적인 듯하다. 얻었다(得)와 비어있다(空)는 서로 상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비어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을 사심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시구에서 각기 '고요히 살핀다(靜觀)'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정관이라는 조용한 살핌의 선행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유학자의 시에서는 터득되었다는 결과를 말하였지만 그 터득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의 시에서는 '비어있다(空)'는 실체를 알았다. 있음의 존재를 깨닫고 나면 결국은 그 있음의 존재에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니 그것이 바로 비어있음의 공이 아니겠는가.

유가에서도 공부의 과정에 사물의 살핌이라 할 수 있는 격물(格物)을 중시한다. 배움에서 축적되는 지식은 따지고 보면 이 사물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가의 배움에서도 격물 다음에는 앎을 이루는 치지(致知)를 순서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시에 있어서는 앎의 극치의 결과는 차별의 인식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비어있음이 만물의 실체임을 알라는 것이다. 차별이 없음이 바로 대동(大同)이니, 우주란 이 대동의 한 묶음임을 인식하는 것이 모두 불성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성보전시관 제기능 살리려면 관리·연구인력 양성 급선무"

조계종 성보위 '문화재특별법' 등 의견일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는 5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성보전시관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물보존처리시설 확충, 전시환경 개선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남철교수(고려대)는 "성보전시관의 박물관 등록여부는 성보문화재를 관리 연구 보존할 전문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동국대에 성보문화재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종단차원에서 전문인력 배출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보보존위원 대부분은 사찰에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식은 전무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종단의 연수교육에 성보문화재관련 프로그램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비지정 성보문화재에 대한 종단지정 등 대처방안도 논의됐다. 올해만도 10건의 성보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보도난과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각 사찰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종단차원에서 성보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임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원학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관람료의 3~5%를 불교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 성보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논의에 대해서는 성보보존위원들은 "여론에 편승해 근시안적인 복원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고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統和 28년' 명문 뚜렷 '국보급'

군산 성흥사 발견 '청동보살상'의 가치

66㎝ 크기 · 솜씨 정교

군산 성흥사에서 발견된 청동관음보살입상 2구 중 눈에 띄는 것은 대좌를 포함 전체높이 66㎝, 불상높이 52㎝의 청동관음보살상. 고려불상으로는 드물게 팔각의 이중기단 뒷편에 '성거산천성사통화이십팔년(聖居山天聖寺統和二十八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중요하다. 통화28년은 중국 요(遼)나라의 연호로, 고려 현종1년 곧 1010년에 해당한다. 16엽의 길쭉한 연꽃대좌 위에 놓여있는 보살상은 오른손에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에는 불상을 새기고 있어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도톰한 볼과 날씬한 콧날, 가늘게 뜬 눈 등은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고려시대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다른 보살상역시 뒷면에 두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관음보살상이다. 크기는 전체높이 37㎝, 불상높이 31.5㎝, 지름 10.2㎝.

1994년 무너진 대웅전 대신 새로 원통전(관음보살상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던 중 발견됐다. 현지를 답사한 사찰문화연구원은 "고려보살상 가운데 조성연대와 조성사찰을 확인시켜주는 명문이 있는 예는 흔치 않다"며 "2자나 되는 규모나 단아한 양식으로 보아 국보급 유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성흥사 주지 송월스님은 "보존가치가 있는 성보라면 국가지정 절차를 밟아 보존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문화소식

불교미술대전 일정 확정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내년 10월14일~27일 공평아트센터로 확정됨에 따라 작품 접수가 9월 14일부터 19일로 결정됐다. 회화 조각 탱화 서예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불미전의 응모원서교부는 9월7~16일. 입상작 발표는 내년 9월 24일이다. 문의 (02)739-1830

23일까지 통일서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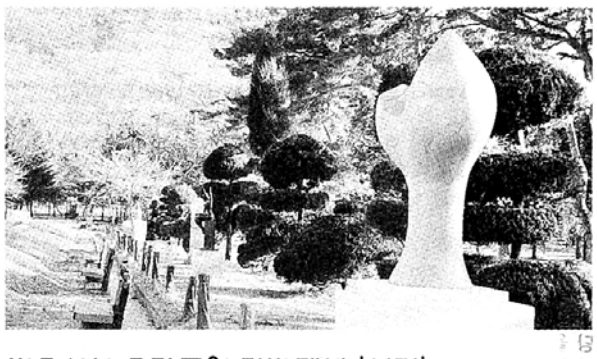
제1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이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서예대전에는 대상을 받은 백종춘씨의 예서 대련작품을 비롯 입상작 340여점이 전시된다. (02)730-4846

찬불동요 창작곡 5집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찬불가 테이프를 주로 제작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5집을 냈다. 이번 5집에는 '즐거운 우리절' '108염주' '그대로 좋아요' '향내음' '보리숲의 관음새' 등 어린이들의 해맑은 불심을 표현한 동요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5집은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대한불교어린이연합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등의 연수회 교재로 사용된다. (02)730-7525

선시화집 '세월을…'

대원 문재현법사(광주 삼원선원 대표)가 현정거사와 함께 선시화집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바로보인 刊)를 펴 냈다. '선심' '열도' '염화미소' 등 짤막하면서도 심오한 뜻을 담은 선시 80수의 시가 현정거사의 선화와 함께 실려있다.



법주사앞 조각공원 탐방객에 '인기'

충북 보은군 법주사앞에 자연녹지를 이용한 대규모 조각공원이 들어서 법주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일 출품작가와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및 표지석 제막식을 가진 조각공원은 3천여평의 잔디밭에 '과거 현재 미래(청주교대 김지택 교수 작)' 등 대학교수와 조각가 등의 청동 및 화강석 조각작품 28점이 전시되어 있다.

공 고

지금까지 **삼론종 종단분규**를 지켜보신 **대덕스님!** 그리고 본 **종단스님**과 **사부대중**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억척과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고 같은 연유를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증명('97.10.28)을 보낸지 40여일이 지나도록 회답은 커녕 전화도 한통화없어 내용증명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공고하오니 읽어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판 결 문 ▣

서 울 고 등 법 원 (1995. 5. 2 판결선고 / 1995. 5. 2 원본영수)

제 11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94나21032 직무집행방해배제등
◆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삼론종(大韓佛敎三論宗)
●주지 ● 현 2동 5●9의 2● 우 ● 정 사
대표자 총무원장 이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태 ●
◆ 피고, 항소인 손 성 수 (孫 性 洙)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의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용
◆ 최 종 종 결 1995. 3. 28.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6. 2. 선고, 93가합18745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발송한 3회 내용증명중(내용상 9月 24日字만 공고합니다)

歸依 三寶하옵고
其間 法體大安하시며 境內두루 平安하신지요?
●地 貧道도 無故하니 是伏幸입니다.
然而那 스님이 貧道한테 加한 受侮를 貧道 는 前生의 業으로 生●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님!
過去야 如何間 이제부터는 스님이나 貧道나 徐徐이 人生終末을 告할때가 되었으니 小僧과의 묵은 앙금을 씻을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스님! 小僧은 스님을 尊敬하는 뜻으로 進言드리오니 過히 언짢게 生● 마시고 서울高法94나第21032號를 다시 읽어보시고 宗●協議會 會長職을 그만두시고 草野에 묻혀 때묻지 않은 스님들께 讓步하시고 더 以上 宗● 스님들을 우롱하지 않는것이 스님을 爲한 妙策인가 싶으니 宗徒나 一般信徒에게는 方便上 거짓말을 하더라도 天●宗이나 三論宗 또는 小僧과 스님의 上佐에게 取한 잔뇌를 부리지 마시고 더 以上 덕높으신 宗● 스님들에게까지 愚弄한다는 것은 僧團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健康에 留意하시고 侍奉에 邁進하시기를 祈願드리며 悤悤 亂筆을 줄입니다.

西記 1997년 9 월 24 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원포리 80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임오사 주지 홍 제 (혜암) 합장

충청북도 주시 현 2 동 5 9-2、
우 사
주지 이 봉 스님 귀하

본 우편물은 서기 1997년 9 월 24일 제 호 등기 내용 그대로 추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율면우체국장 (97. 9. 24)

이것은 거짓말이나 부인도 못할 것이니 다음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一. 고법 판결문과 같이 1심 2심 소송비용을 방위동측 변호사님께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二. 충주측에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등록된 사암현판을 내리기 바랍니다.

三. 종단협의회는 귀하측에서 등록하였으니 그 명위를 혜암재규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四.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받았으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하니 금년(1997년)내로 이행하고 지상에 사과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행치 않을시는 몇가지든지 걸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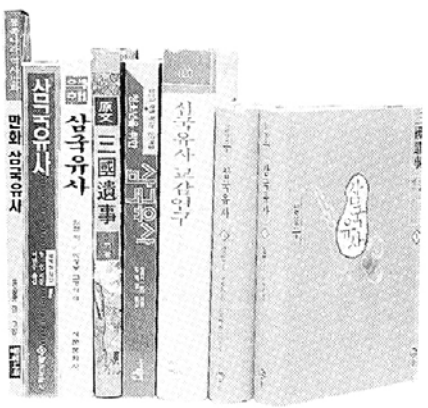
1997년 12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암(학암) 재규 합장

한국의 대표적 古典은? 삼국유사

'…교감연구' '일연' 등 신간 4종
청소년·성인등 독자층 다양
영역판 '삼국유사' 내년 출간



역사교양물의 대중적 인기와 고전 읽기 붐에 힘입어 영원한 민족의 고전 〈삼국유사〉 및 관련서가 크게 관심을 끌며 발간붐이 일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역사와 문화를 바로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이 책들은 기존의 딱딱한 학술, 역사서와 달리 쉬운 한글번역과 세련된 편집으로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솔출판사의 나랏말씀 시리즈 〈삼국유사1.2〉, 일연학연구소의 〈삼국유사 교감연구〉, 한길사의 위대한 한국인 인물평전 시리즈 〈일연〉, 서해문집의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등이 올해 발간된 책들. 이밖에도 〈역해 삼국유사〉〈만화 삼국유사〉〈원문 삼국유사〉〈삼국유사〉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솔출판사는 나랏말씀 한국학 총서 기획시리즈의 첫 번째로 올 3월 〈삼국유사1.2〉를 펴냈다. 고전번역의 권위자인 부산대 이재호명예교수가 30년간의 각고 끝에 펴낸 이 책은 그동안 오역, 졸속 편집, 베끼기 등으로 완전한 정본이 없었던 〈삼국유사〉를 완벽하게 번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고전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한글세대에 맞게 옛말투는 피하면서도 원전의 뜻과 중요대목을 살려 번역했고, 모양또한 3백쪽 안팎의 아담한 문고본형식을 취해 새로운 〈삼국유사〉 읽기에 시동을 걸었다.

은해사 일연학연구원(원장 법타스님)이 학술총서 제1권으로 발간한 〈삼국유사 교감연구〉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하정룡씨와 일연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인 이근직씨가 현존하는 여러 관본들을 소개하고 이 관본들의 문제점과 그 이전에 있었던 대교의 문제점들을 비교연구 18개월에 걸쳐 정리한 것이다. 일연학연구원은 지난해 음력 7월8일 일연스님의 다례제를 계기로 설립돼 일연성사에 관한 현창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및 다례제 자료집인 〈보각국사 일연성사와 은해사〉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길사의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로 나온 〈일연〉은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고운기교수(명지대)가 경산 삼성산, 장흥 보림사, 양양 진전사지, 경남 남해, 군위 인각사, 강화도 등 일연스님이 거쳐간 모든 지역을 밟으며 기행문형식으로 그의 행적을 되살린 평전으로 보각국사 일연스님을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는 일연과 함께 떠난 삼국여행이라는 부제목에 어울리게 고조선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역사를 '나라를 세운 이야기' '임금들의 신기한 이야기' '불교이야기' '탑과 불상 이야기' '삼국시대의 효자들 이야기'등으로 나눠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읽듯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한편 98년부터 고려대와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삼국유사〉를 포함, 대표적인 한국고전 10권을 영어로 번역 출판할 계획이기도 하다.

정사인 〈삼국사기〉에 비해 우리조상들의 독특한 생활사와 불교사를 많이 담고 있는 최고의 역사서 〈삼국유사〉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고대 한국의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스테디셀러로써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대·소승 58 핵심경전 '한권에'

불교경전의 이해 대중-사상-역사성 기준 50여학자 집필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경전읽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팔만대장경이니 팔만사천법문이니 하는 방대한 경전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경전을 다 보아야만 불교를 알 수 있는 것인지 불자들은 아득하기만 하다. 〈불교경전의 이해〉(불교시대사 刊)는 그런 고민에 빠진 불자들에게 대소승 핵심경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숫타니파타, 법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부모은중경 등 58개 핵심경전을 성립시기와 형식, 내용에 따라 초기 경전·인연 설화·삼매 수행·반야·방등·법화 화엄·밀교·계율·신앙 찬탄·교계 경전 등 10가지로 나누어 새롭게 분류 해설한 것이다. 경전의 선정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사상적으로 중요한 것,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50여 불교석박사들이 집필했다. 특히 총론부분에서 '경전의 성립과 유통', '경전의 구성과 분류', '대장경의 종류' 등을 정리해 경전을 처음 접하는 불자들이 보다 폭넓게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불교신문사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연재해 온 경전탐구를 한권으로 묶은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경전을 읽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시대사 2만3천원〉



"내고장 문화유산 알고 지키자"

지역별 문화재 관련서 잇따라 출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올 한해 동안 지역문화원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재의 현황을 담은 문화재관련서들이 잇따라 발간됐다.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펴낸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은 선사시대 유물유적에서 부터 고분, 사적지, 건조물, 미술 공예 민속자료, 전적 서적 고문서, 기념물 등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경기도사연구총서 제2권인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은 경기도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민속 등 문화와 예술 전반 11개 분야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해 를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서울 풍납토성 실측조사연구〉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한강유역을 주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백제사 연구자료로 활용키 위해 풍납토성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다.

이들 지방문화재 관련서들은 내고장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먼저 아는데부터 새문화창달이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발간돼,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호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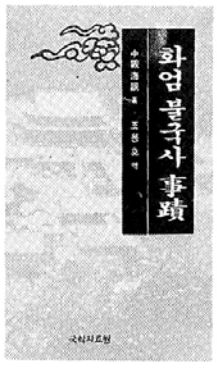
그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불교미술 편에서는 경기도의 불교미술 개황과 주요 불교미술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익산문화원에서 펴낸 〈고도 익산 순례〉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이르는 익산의 역사와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성환문화원이 발간한 〈천안의 사찰〉에는 천안의 불교전래에서부터 각 종단의 개관과 25개 사찰의 현황이 담겨있다.

이밖에 충주문화원의 〈충주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칼라사진과 함께 충주지방의 문화재

"화엄사의 과거 궁금하십니까"

조용호씨 '화엄 불국사 사적' 완역출간



지리산 화엄사의 원래 이름은 화엄 불국사(華嚴 佛國寺)이다. 큰 절이 여덟이고 81암자가 어우러져 있어 이를 통칭 화엄 불국사라 했다. 이 화엄사 사적의 진가를 보여주는 〈화엄 불국사 사적·華嚴 佛國寺 事蹟〉이 완역 출간됐다.

조선시대 숙종 23년(서기 1697)에 화엄사에서 판본으로 간행된 〈대화엄사사적·大華嚴寺事蹟〉을 조용호씨(불교연구가)가 완역한 것.

이 사적기에는 화엄사가 위치한 전남 구례군이 백제의 영토가 아니라 본래 신라의 영토였다고 단정 짓는다. 화엄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법흥왕 때에 절을 짓기 시작해 대를 넘겨 진흥왕 5년 서기 544년에 이르러 낙성된 흥륜사로 창건되었음을 밝히는 등 화엄사의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국학자료원 1만2천원〉

보르헤스전집 펴내

민음사, 소설집 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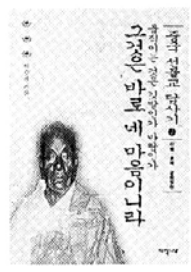
도서출판 민음사가 94년부터 발간해 온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소설집 5권을 완간했다.

〈불한당들의 세계사〉〈픽션들〉〈알렙〉〈칼잡이들의 이야기〉〈세익스피어의 기억〉등이 바로 그것. 이 전집은 단 한권의 장편소설도 쓰지 않은 보르헤스의 단편소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민음사는 앞으로 보르헤스가 남긴 시와 에세이, 보르헤스 평전을 후속발간할 계획이다.

그것은 바로… 이은윤 지음

中 선불교 행화도량 86곳 답사기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이니라〉는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이은윤씨가 중국 선사들의 행화도량 86곳을 답사하며 그들이 남긴 화두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풀어낸 것이다.

지난 7월 첫째권에 이어 두번째권으로 선보인 이 책은 중국 선불교의 돈오남종 선풍을 확립한 6조 혜능조사와 그가 주석했던 조계 남화선사를 비롯해 동산 5조사, 운문산 운문사 등 안휘 호북 광동성 내의 주요 선종사찰과 유적, 그와 관련된 선사들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6조 혜능조사 진신상, 신라승려이면서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은 김교각스님의 육신탑 등 최초로 공개되는 많은 사진자료들을 담고 있다. 〈자작나무 8천5백원〉

와제의 책

명상, 나를 찾아서 최예선 지음

삶속에서 깨달음의 등불 밝히기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향해, 세상과 더불어 세상속에서 조화로운 순간을 이룰때가 있다. 〈명상, 나를 찾아서〉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그런 마음의 상태이다.

저자인 최예선씨(번역가)는 수행자들, 명상가들, 성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도 다름아닌 마음의 조화로운 상태라고 설명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라고 이 책을 통해 최씨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클럽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2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3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6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7	내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이 기 영	한국불교연구원
8	수행으로 가는길	이 제 열	대원정사
9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10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불 지 사

구입문의:(02)737-0695

이·세·상·에·감·춰·진·진·정·한·우·리·의·행·복·찾·기

바우이야기

고통과 행복의 틈, 좌충우돌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하는 끊임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형태로 표현해낸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미네서

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음악으로 치자면 명상음악같은 음률을 지닌 멋과 맛이 있는 책이에요. 근래에 읽은 도서 중 가장 정성을 다하여 읽었습니다. -시인 김경수

'바우이야기'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시인 양정자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하세요"

지은이·적 경
정 가·7,500원

도서출판 한 길
전화 0346-574-5585 팩스 0346-574-0808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적시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신간!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시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 *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정보사회 인간성상실 · 공동체 와해 '불보듯'

종교교육강화 윤리관 정립하자"

12일 종교교육학회 학술회의서 제기

20세기 문명의 귀결점이자 21세기 인류의 터전이 될 정보사회를 맞이해 종교 교육이 충족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가.

지난 12일 '정보사회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열린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 주최 학술회의에서 발표자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보사회 메커니즘 이면에 인간성 상실, 공동체 와해, 인간 고 등의 역기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 인류에게 유기적 생명관과 균형있는 가치관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보사회지수(ISI) 세계 22위인 우리나라는 내년 10월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 등 정보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적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송병순교수(영남대 교육학과)는 '정보사회와 종교교육'에서 "정보사회는 정보이용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계층을 소외시키고 사생활 조차 침해할 수 있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컴퓨터의 사이버 공간에 빠져 정신이 황폐되는 병리현상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제일기획이 최근 서울 지역 25~35세 남녀 1백명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는 가장 큰 관심거리로 '자신'을 들었고 38%는 세상사 또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것. 또 사이버공간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미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딪치고 그 삶을 공유할 때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종교적 사랑은 정보사회의 불평등과 병리현상을 막을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도높은 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자연-사회-우주로 연결된 인간존재를 일깨워주고 정보사회의 양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내창교수(원광대 원불교학과)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종교의 역할'에서 "획일적인 정보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며 "종교계는 △종교의 세속화 경계 △적극적인 문화 창조 활동 △정보 윤리관 제시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해 인류에게 현대 문명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균형있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한교수(충북대 컴퓨터교육과)는 '정보화 사회의 종교적 고찰'에서 "컴퓨터 통신을 유영하는 정보는 인간의 생물학적 시청각 기능을 무한히 확대한 반면 인간의 의식을 획일화·규격화 시키고 인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정보 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자아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질·에너지·정보 등 문명의 3대 지주는 생명·에너지·정보로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교수는 "종교교육을 통해 인간이 유기적 생명관에 대한 거시적 통찰이 가능해질 때 현대 문명의 기본틀을 바꿀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사회와 문화'를 발표한 김원동교수(강원대 사회학과)도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문화제국주의 문화정체성 위기 등 문화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당성과 평등의 논리로 전자정보공간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 바람직한 정보문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송병순 교수


◇한내창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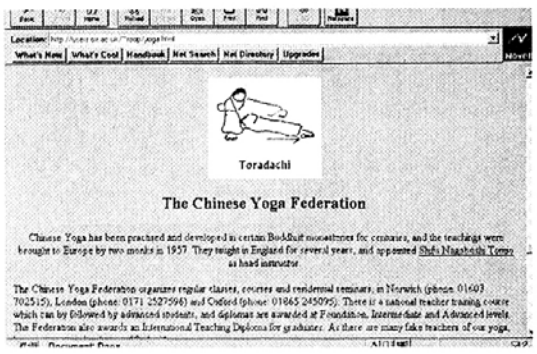

◇이동한 교수


◇김원동 교수

부다파이 사이버 기행

중국불교의 전통요가

요가동작 삽화 통해 자세하게



영국의 대표적인 요가단체인 중국요가연맹이 개설한 '중국불교 전통요가' 사이트는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국불교의 요가 동작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요가의 동작은 '몸통뒤집기' '한발들고 평행잡기' '물구나무서기' '허리돌리기' 등 총 18가지. 자세한 설명과 삽화가 있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 동작들을 자세히 보면 한국불교의 선체조와 비슷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추안-파(Chuan Fa)'라는 중국 특유의 요가수행법을 소개한 〈부처님의 전사들 · The Bodhisattva Warriors〉과 불교요가 수행자 첸스님이 쓴 〈불교도의 참선 · Buddhist Meditation〉도 소개된다. 또 영국의 윅스포드, 런던, 노위치 등지에서 중국불교전통 요가를 배울 수 있는 5곳과 각 센터의 프로그램과 요가수행자들의 정보도 영어와 중국어로 각기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인도의 '하타 요가(Hatha Yoga)'와 비교하는 것도 이 사이트의 재미.

http://users.ox.ac.uk/~roop/yoga.html

학술단신

보조사상硏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제12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종명박사(동국대 불교학)가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미친 초기 선종서의 사상적 영향-규봉종밀의 저술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창구박사(전북대 철학과) 등이 참여한다. 발표회는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27일 2시30분에 열린다. (02)733-5315

'백련불교논집' 7집 발간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백련불교논집〉 7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중국 초기 불경 자료에 나타난 백화문법 연구'(박건영) '백운선사의 선시 연구'(이종군)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정후수) '불교의 중국화'(신규탁) '깨달음의 현상적 이해'(종호스님) '깨달음의 근거와 실현의 원리'(묘주스님) 등 논문 8편이 수록됐다. (02)265-5215

'불교어문논집' 2호 나와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불교어문논집〉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논집은 '조선시대의 승장에 대하여'(김영태) 등 '승장(僧將)과 문학'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반야심경의 독송음 번화에 대한 음운론적 해제'(정우영), '〈법화경언해〉의 표기사적 고찰'(아달현) 등 논문 11편이 게재됐다. (02)260-3143

"신라僧 정치 · 사회 · 문화 주역"

김복순교수 '신라 불교계 인재양성…' 발표



"신라 중고기(500~654)의 불교계 인재 양성은 신라의 관직과 관부의 제도적 정착과 맥을 같이 했고, 신라의 유학승들은 선진문물 수용-전파의 주체였다"

김복순교수(동국대 국사학과)는 5일 열린 '신라의 인재양성과 선발' 주제 제19회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에서 '신라 불교계의 인재양성과 선발'을 발표하고 "신라는 정책적으로 유학승을 선발했고, 대부분의 유학승들은 사신과 함께 중국·인도로 떠났다"며 "이것은 신라가 스님을 통해 선진문화를 섭취하고 외교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선덕왕대 자장스님은 신라의 관원에게 중국복식을 착용하게 하고 신라의 연호도 당나라의 영휘(永徽)를 사용하도록 했고 진평왕대 원광스님은 수나라에 병사를 청하는 외교문서인 '걸사표(乞師表)'를 썼다는 것이다.

또 국정을 보좌하고 왕위계승에 표훈했던 신라의 대덕(大德) 스님들 중 〈삼국유사〉 〈속고승전〉에 기록된 인물만 4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신라 스님들의 역량이 정치·사회적으로 증대된 것은 불교계의 도제 양성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鈔〉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등의 사료에서 원광→자장→원효→의상에 이르러 제자에게 '법계도인'을 주는 등 전법의 방법이 뚜렷해지고, 이와함께 스님들의 사회·정치적 역량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교수는 승려의 사회·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법계가 제도적으로 공인된 데 대해 "불교계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는 반대급부적으로 불교의 세속화와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법계가 제도화된 것은 원효스님 등에 의해 집대성된 통불교가 종파적 성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수원기 비문 1920자 복원

향토사학자 홍성익씨

고려중기 불교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자현(1061~1125) 거사의 생애와 신품사현으로 일컬어지는 탄연스님(1070~1159)의 필체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文殊院記).

홍성익씨(춘천문화원 향토사학자)는 논문 '춘천 청평사 문수원기 복원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연구되지 못했던 문수원기의 비문 1,920자를 복원해 고려불교사 연구에 새지평을 열어 주목된다.

고려중기 불교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한 문수원기는 인종이 이자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130년 진락공(眞樂公)이란 시호를 내리고 청평사에 세운 것으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인 혜소(惠素)스님이 비문을 짓고 탄연스님이 써 가치를 더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복원하기 위해 〈조선금속총람〉을 저본으로 국립중앙박물관本 등 현전하는 10여종의 미완본 탁본과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비편 등을 수합해 비교-검토하면서 각 자료간의 자획, 자간, 행, 행간 등을 복원했다. 총 1,959자 글자가 새겨진 문수원기 비문중 홍씨가 복원한 글자는 비양(碑陽) 1,399자 비음(碑陰) 521자 등 총 1,920자.

이번 연구로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에서 사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성익씨는 "불교학계가 노력해 아직 복원하지 못한 39자를 밝혀 고려불교사연구에 한층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성군 청평사 소재 '문수원기'

국제소식

바미얀 대불 또 파괴위기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폭파 위기를 넘겨온 바미얀 대불이 또다시 파괴 위험에 처했다.

최근 유엔(UN)의 발표에 따르면 아프카니스탄군이 탈레반군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대불의 육계(정수리) 부분에 대공포 포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내전 난민들이 바미얀 계곡의 석굴을 피난처로 삼고 있어 난민들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대불 주위에 매설된 지뢰가 터져 바미얀 대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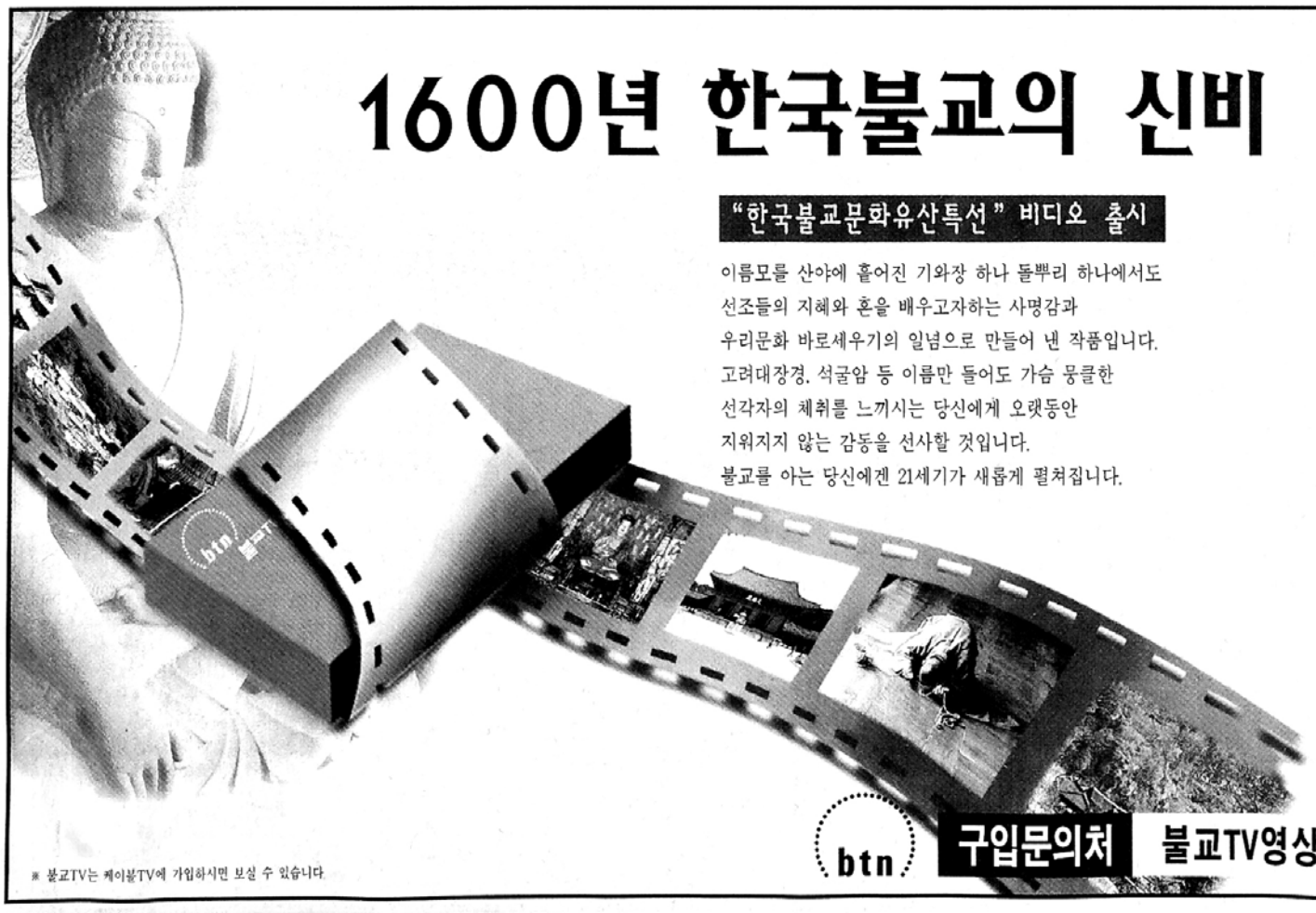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바미얀 계곡이 비무장지대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유엔과 국제협력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바미얀 대불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베' 하노이 불교유적지 복원

베트남 하노이시(市)의 불교유적지를 순례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하노이시가 최근 불교, 유교, 베트남 전통양식이 뚜렷한 건축물의 복원 작업을 서두르기 때문.

하노이시 관광행정국장 웬꽝란 박사(50)는 "사원, 탑, 문묘 등이 복원되면 최소 2백년전의 하노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진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하노이시는 복원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호텔쇼핑센터와 위락시설 등 40여종의 합작투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시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는 2000년대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3

육조의 의발 ②

언어와 문자는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일 뿐이다. 황벽(黃檗)은 팔만의 법문이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이라고 했다. 임제(臨濟)는 한술 더 떠 모든 언설이 "부정(不淨)을 불식(拂拭)하는", 즉 뒷간에서 똥을 닦는 휴지라고 질타했다. 선의 궁극은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지하는데 있다. 수레를 깎는 노인처럼 비결은 머리가 아닌 손의 감각에 있다. 격류를 타고 헤엄치는 어부처럼 구경(究境)은 몸의 전 기능을 통해 실재의 흐름에 참여하는데 있다. 선은 그 목표를 위해 언어를 과감히 버렸다(教外別傳, 不立文字).

그렇다고 선이 언어를 부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까뀌(손도끼)를 잡는 법이나, 헤엄치는 자세를 가르치고 익히는 데는 언어를 통한 설명이 얼마나 유용한가. 선은 언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다만 이용할 뿐이다. 선이 언어에 대한 부정에 기우는 듯이 보이는 것은 혜능기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탓이라고 생각한다. 선이라는 이름 자체도 대승의 훈고적 교학에 대한 적극적 대결의식을 함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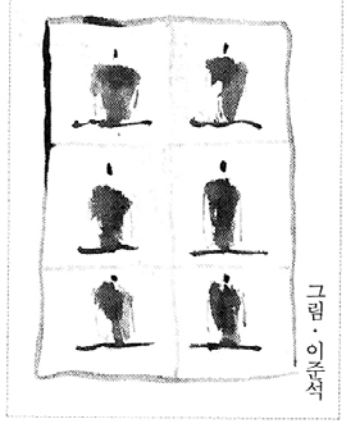


그림 · 이주석

선은 특정한 교학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전승되었다. 그 정당화를 위해 인도불교의 역사까지 새로었다.

그 이후 2조 혜가(惠可)에서 3조 승찬(僧璨), 그리고 4조 도신(道信)에 이르는 백여년간이 선의 준비기에 해당한다. 이때까지 선의 운동은 이단 혹은 기벽의 별종집단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7세기 후반에 편찬된 불교사인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조차 불후의 걸작 〈신심명 · 信心銘〉을 지은 3조 승찬의 전기가 실려 있지 않을 정도이다.

7세기 중엽 5조 홍인(弘忍)은 지금의 양자강 중류 이북, 호북성 동부의 기주(蘄州) 황매산(黃梅山)에서 자리를 잡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때는 태종의 후비에서 정권을 장악한 측천무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다. 신비주의에 경도한 무후의 파격적인 불교옹호와 함께 홍인의 제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함으로써 선은 사회적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법여(法如 638-689)가 낙양에 가까운 숭산 소림사 근처에서 독자적인 포교를 연 이후, 혜안(惠安)과 신수가 장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모두 홍인의 탁월한 제자들이다.

초기불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법보기 · 傳法寶記〉나 〈능가사자기 · 楞伽師資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신수는 거의 신비한 위광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신수를 혜능의 법력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의 수행자로 그리고 있는 〈육조단경 · 六祖壇經〉의 논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측천무후는 고령의 신수를 위해 특별히 종려나무로 만든 가마를 마련해 주고, 그 아래에서 공손히 동산(東山:홍인의 선풍)의 법문을 청강했다 한다. 이런 기록도 있다. 무후는 혜안과 신수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 수많은 미녀들로 하여금 시중들게 했다. 둘은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자세로 시중을 받았다. 무후는 그 태연자약함에 "물 속에 앉은 성인을 보는 구나" 하고 감탄했다 한다.

신수의 선은 무후의 후원에 힘입어 수도의 귀족들로부터도 지지와 귀의를 얻어 번성해 나갔다. 당대는 이들 신수의 계열을 홍인 동산의 정통 계승자로 인지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왕유나 두보같은 문인들도 법여를 6조로, 신수를 7조로 보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하고 있었다. 두보는 만년에 홍인이 법을 펴던 기주 근처에서 쓴 한 시에서 "나는 오로지 쌍봉사에 몸을 의탁하여, 7조 선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고 읊은 적이 있다. 이 7조는 신수를 가리킬 것이다. 북종의 득세는 화엄과 천태, 반야 등의 교학과 더불어 당당한 문호로서 자신을 정위시키려 했고, 이 노력이 다양한 초기 선종사서를 성립시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염화미소로 이어진 선의 등불

'不立文字' 라지만 선은 언어 · 문자를 이용

먼길을 여행하다보면 갖가지 풍경을 보게 되듯 수행이라는 명제를 두고 불교계에서 일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자기의 방법이 으뜸이고 정통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자칭 도인입네 깨달았네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단전호흡으로 도가 열려 신통을 구사한다는 사람도 있고 몸은 그대로 두고 혼이 빠져나가 우주를 다 본다는 사람도 있으며 예수, 공자, 석가와 대화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왕래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밖에도 전생을 본다는 사람, 귀신들과 통해서 친도를 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3〉



◇청원스님 作 '만다라'

십인(十忍) ㊦

보살이 통달한 10가지 수행체험

正道와 邪道 가르는 가늠자 역할

시킨다는 사람, 부처님의 기로써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사람 등 부처님 법속에서 저마다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올바른 교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삿되고 망녕된 것들이라 신기할 것이 없고 존중할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능엄경〉 말씀대로 전부가 무명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오온(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가지 요인 즉 색 · 수 · 상 · 행 · 식)의 또다른 짓거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신통이 되었건 산을 옮기고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능력이 되었건 법의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했으며 온통 도깨비, 외도, 마도의 경계지 부처님의 경계는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수행하는 보살은 어리석은 무명번뇌를 끊어 온갖 법의 본질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한 줄을 알아야 바른 경지라고 하였다. 그것은 열가지 안주심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데 이를 십인(十忍)이라고 한다.

보살로써 통달해야 될 이 열가지 수행체험은 정도와 사도의 기준을 가르는 매우 긴요한 가르침으로 주의해서 믿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열가지 인(忍) 할때의 인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수행의 단계나 지위를 가리킬때 쓰는 말이다. 보살이 수행을 바로 하여 마음이 열리면 첫째 음성인(音聲忍)이 성취된다. 음성인이라는 것은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한꺼번에 일시에 듣는 것인데 이는 부처님의 음성을 허공이나 밖에서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에서 소리도 아니고 말도 아닌 설법을 전체의 부처가 하나가 되어 해주는 것을 역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다. 이때의 내용도 무슨 부처가 제 마음속에 영적인 요소나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아닌 무상 · 무아 · 고 · 공 · 열반 · 윤회 · 업 · 연기 등과 같은 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순인(順忍)이다. 지혜의 안목으로 모든 법이 관찰되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하나된 상태를 경험하게되는 경지를 말한다.

업장과 죄장에 가리워진 중생의 마음은 인간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채 생존의 욕망에 따라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다. 보살은 이러한 왜곡되고 전도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보고 그에 따른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 세번째는 무생인(無生忍)이다. 일고 꺼지고 흐르는 생멸의 마음을 홀연히 벗어난 불생불멸의 마음을 증득한 경지이다. 법을 깨치지 못한 범부중생의 안목에서 보면 틀림없이 일체 생명과 현상계는 일고 꺼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중생 자신의 생멸하는 마음에서 보니까 그러할뿐 참된 불생불멸의 마음자리를 얻고보면 일체사 모든 것 역시 변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들뜸이 없다. 형상과 문자와 개념이 끊어진 마음을 보면 이러한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이다. 네번째는 여환인(如幻忍)이다. 여환인이란 눈에 보이는 일체의 현상계가 다 허깨비 같아서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지를 말한다. 어리석은 범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앞에 전개된 모든 것들이 실재한다는 고정된 가치관을 기지고 있다.

세상 어느 것도 수많은 인연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파생된 법은 그 자체가 이미 실답지 못하고 허망하다. 자기의 몸과 마음은 물론 남편 처자 권속도 법의 성품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인연성이므로 허깨비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을 모르는 범부가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에 집착하여 미혹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수행자는 일체가 환임을 알아 자유자재한 해탈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⑭①

불교와 수학

36

자유

김 용 운



그림 · 최주현

불성 · 수학의 본질은 '무한한 자유'

기존틀 버려야 새로운 세계 열려

칸토르는 1845년 덴마크의 부유한 유태계 상인의 아들로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후에 할레(Halle)대학 교수에 취임, 만년에는 그곳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무한(無限)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주위의 격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 … 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드디어 무한론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오랜 나의 연구생활에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온 전통적인 수학을 거부하는 일이었으나 그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흔히 '어느 철학자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풍조를 반영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고고함을 내세우는 철학도 결국은 절대의 진리일 수 없고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천재의 창조력은 단순히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상의 기반을 제시하고 세계는 이들 천재가 만든 틀 속에서 인류의 문화를 다듬는다.

1883년 칸토르는 무한을 주제로 한 〈집합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외쳤다. 칸토르 이전에는 신처럼 여겨지던 대사상가들도 있었다. 특히 칸트는 '수학적인 진리는 선험적이다'라고 주장했고 모든 수학자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또한 종래의 고정화된 수학관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라는 유클리트를 믿고 있었다. 칸토르는 고전적인 수학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곧 '수학의 본성은 자유'라는 외침이다.

칸토르가 발견한 것은 무한의 수학이다. 희랍 이래의 전통은 유한만을 다뤄왔고 무한을 다루는 일은 금기 사항이다. 아무리 선배, 스승의 업적이 위대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수학자는 그것에서 새로운 경지로 스스로 발전해 나아갈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수학계의 대가들은 일제히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특히 크리네거는 "신은 정수만을 만들었다. 그 이외의 수는 인간의 장난의 소산이다"라고 말하며 무한론은 한낱 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수는 유한 수학이기에 무한수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제록〉에는 임제와 좌주(座主)(교종계 사원의 주지) 간의 대화가 실려있다.

좌주=성각(聲覺 · 부처의 말씀으로 수행하는 것), 연각(緣覺 · 외부의 자극을 통해 대오를 얻는 것), 보살의 삼승(三乘)과 모든 경전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다.

임제=삼승이나 경전에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좌주=그렇다면 석가모니께서 사람을 속인 것인가?

임제는 이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는 어디에 계신가?"라고 되묻는다. 이때 좌주의 말문이 막힌다. 좌주의 입장은 경전이나 기존의 법에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입장이다.

임제는 기존의 틀은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석가모니가 금구직설(金口直說)한 것도 전부가 아님을 '불성의 대지는 콩이나 호미가 갈지 않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설명한다.

이 대화 내용은 칸토르가 말하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성에 있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부처의 말씀일지라도 저마다의 대오의 길을 스스로 열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곧 자유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성의 본질은 자유'라는 뜻이다. 칸토르와 임제는 인간의 가능성(불성)이 무한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칸토르는 당시의 수학 대가들의 공격에 시달려 정신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수학은 임제의 주장과도 같이 그 자유성을 존중함으로써 계속 발전해 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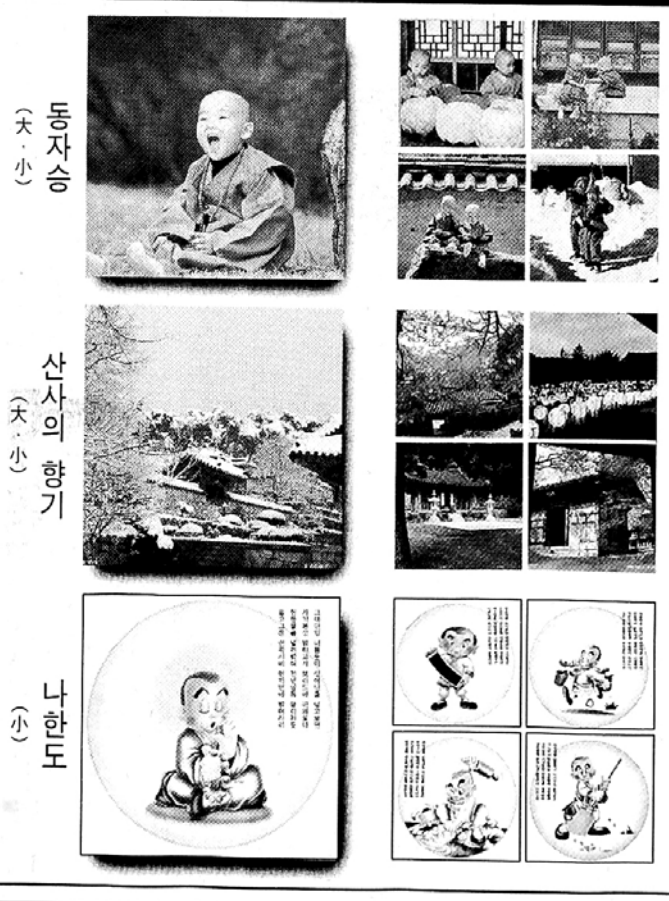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 · 경북 경계선)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불기 2542년 달력 5일이내 납품가능 합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 · 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 · 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 "부처님이 그러했듯 중생을 거두어 주이소." 일체 연락을 끊었던 성철스님이 출가후 처음 부인과 외딸을 만나는 장면. 스님을 바라보는 부인의 시선에서 간절한 염원이 배어난다. 부인과 딸도 나중에 출가해 비구니가 된다.



◇ "부처님께서는 너무 애쓰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12월6일 내소사 촬영에서 동자승의 대사 표정 시선까지 일일이 교정해 주는 박철수감독의 모습이 진지하다.

'산은 산 물은 물' 그 소식 아시나요

영화 '성철' 무엇을 담나

"김영감까지 머리깎고 중되면 우야꼬 걱정했데이."
"내사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 귀찮아서 몬합니더."
"그 말도 맞다."
"하기사 옛날 목수일하면서 경문도 외아 볼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담측에 머리가 돌인기라요."
"그라믄 아는 글이라곤 하나도 없단 말이나?"
"딱 한자밖에 모릅니다."
"그기 뭐꼬, 한번 씨 봐라."
김 노인이 나무 패다기 한 일(一)자를 찍 긋고 다시 나무를 패며 말한다.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겠거니 그냥 부처님한테 공생 품삯이나 받아가며 사는 재미도 있는 기라예.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는 이치 아입니꺼."
성철스님은 언뜻 부처님의 모습을 본 듯 합장한다.
〈영화 '성철'中 성철스님과 김노인의 대화 중에서〉

삶의 좌표를 잃어 버린 현대인들의 방황, 자아를 상실해 버린 현대인들의 고독, 그리고 경제난에 허덕이며 무기력증에 빠져든 현대인들의 비애. 이 심상치 않은 시대에 성철 스님이 은막을 통해 환생한다.

스님은 어떤 법어를 들려 주실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일까.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일까. 아니, 그런 한마디의 법어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철스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는 사실이 이미 중생계를 뒤흔드는 법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서는 '그 곳에 스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생들에게 힘이 되었고, 입적해서는 '입적 그 자체'만으로도 사바세계를 울리는 법문이었던 스님이었으므로.

12월5~6일 온양 민속마을과 부안 내소사에는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아우르며 청열로 겨울을 녹이는 영화 '성철' 촬영으로 20여명의 취재진과 30여명의 스탭진이 와글와글 모여 들었다. 박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성철' 촬영이 가속도가 붙어 추위도 아랑곳 없다. '스스로 수행자 입장이 되어 촬영에 임하자'는 각오로 스탭진들은 영화 촬영에 앞서 108배를 올렸다.

영화 '성철'은 종래의 불교영화에서 흔히(?) 보여졌던 고통스러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도피적 출가의 영상화를 거부한다. 그리 불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출가의 길을 택해 초인적 정진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성철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영상에 담아 전세계인들을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하리라는 제작진의 포부는 불교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었다.

성철스님 가신지 어느새 4년
영화판에 큰스님 나투셨다
같은 하늘아래 계신 것만으로도
중생들에게 큰 힘 되셨던 스님
그 깊고 넓은 수행과 사상
내년 초파일쯤 뵈올 수 있으리



◇성철스님 생전의 모습.

"숫! 스탠바이 카메라 큐 레디~고!"
"이씨 장손이 석씨가 된다카이 기가 막힐 노릇이제. 나무아미타불." 길가던 스님이 전해준 성철스님의 출가소식을 접한 아버지의 비통함이 사무친다. 박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개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시 레디 고! 이번엔 연기가 좀 어색하다. "아버지가 화가 나는 가운데도 순간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것은 스님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교에 동화되어 간다는 의미"라며 연기지도에 세심하게 지적을 한 박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졌지만 계속되는 NG. 박감독이 스탭 중 한 명을 지적하며 복창시킨다. "한국에선 필름이 생산되지 않는다." 촬영현장엔 긴장감이 돌고 재촬영. 이번엔 차소리 비행기 소리에 연거푸 망연자실. 결국 6~7번의 반복 끝에 OK.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살거라. 중생이 삼세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법인기라. 생명을 아끼고 뜻을 바로 세우거라." 성철스님은 출가 후 10여년만에 만난 딸 윤주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이 말은 이후 윤주의 출가동기가 된다.
다음날 아침부터 촬영장비를 이끌고 내소사로 달려 왔건만 비상이 걸렸다. 비 때문이다. 결국 오전엔 아무 촬영도 못하고 비내리는 하늘 구름 걷히기만 기다리던 박감독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오후2시. 성철스님에게 계를 받고, 이후 스님의 딸 윤주의 머리를 삭발해 주는 비구니 혜미스님의 출가전 고뇌를 담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노인의 무애자재한 모습 속에 공양주의 초췌한 모습이 겹쳐진다. "누구를 원망하고 서러워하며 신세한탄이나 하는 제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세수나 정성껏 시켜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철스님이 구도행각을 떠나는 장면도 내친김에 필름에 담았다. 비 내리는 일주문 밖 가시는 걸음 걸음 낙엽밟고 가시는 성철스님. "실로 자아만큼 나를 괴롭힌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다른 모든 것과 구분되고 떨어져 존재하는 이 수수께끼를 향해 나는 오늘 세상에 거듭 태어난 것이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 무렵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 '성철'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것은 영화가 아니라 성철스님이 아닐까.

글=김지연 사진=고영배 기자

박철수감독이 말하는 영화 「성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찾아주는 영화"

"'성철'은 단순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가 아닙니다. 한국불교계의 큰 스승인 성철스님의 구도행각과 독특한 구도세계를 빌어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찾아주는 영화로 만들겠습니다."
영화 '성철'의 감독 박철수(49)씨. '충무로의 늙은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에 걸맞는 추진력으로 '박철수식 영화만들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영화계에 자에산 영화의 돌풍을 일으켰던 그가 영화 '성철'로 또 한번의 변신을 시도한다. 그의 최근 영화 경향은 테크니컬한 '301·302', 시장판 굿판을 방불케하는 시끄러운 영화 '학생부군신위', 옛보기 방식인 '산부인과' 등으로 이어지며 감각적인 현대인의 욕망과 삶을 표현해 왔다. 이에 비해 불교영화 '성철'은 정적인 정신세계의 조화를 다뤄 세기말에서 세기초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영화이자 관객을 화면 속으로 몰입시키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박감독은 설명한다.
"세간에 나온 성철스님 관련 책은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감감했습니다. 과연 내가 성철스님의 깨달음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무념상태의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어요."



'성철'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나이벌로 배우를 바꾸지 않을 거라서 20대부터 70대까지 분장할 수 있는 배우들 찾았습니다. 부인 역을 맡은 김예령씨, 딸 역을 맡은 이혜은씨는 그런 얼굴을 가진 배우구요. 성철스님 역을 맡은 장석남씨는 시심(詩心)이 너무 맑아 만지면 내 손때가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다 시인의 세상을 보는 눈과 불교에 심취해 산사를 떠돌아 다닌 전력 등 이 구도자로서의 성철스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감히 캐스팅했습니다"고 소개했다. 종래의 고착화된 시각을 탈피한 신선한 캐스팅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우리 영화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은 바로 세계성 확보에 있다고 보는 박감독은 한국불교야말로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확보에 주춧돌 역할을 할 주제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 때문일까. 그의 포부는 엄청나다.
"서양사상이 퇴조하고 동양사상이 범세계적인 정신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즘 경향에 비추어 '성철'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적 오리엔탈리즘'을 담은 영화로 세계시장에 교두보적인 작품을 만드는게 남은 영화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면연기에 충실할터"



성철스님역 장석남

불교와 인연이 참 지중합니다. 성철스님 역을 맡은 것도 그렇구요. 성철스님에 관한 책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스님에 대해 많이는 모르지만 박감독과 의논을 하며 스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죠. 제가 쓰는 시가 지향하는 것이 삶의 비밀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불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입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구요. 만약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컸다면 벌써 출가했을지도 모르지요. 아직 인연이 안 닿아서인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성철스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스님의 현대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시에 전념해야죠.

"하고싶은 역 맡아 행복"



김노인역 전무송

'만다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4편의 불교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스님 역할이었습니다. 이미지가 고착될까봐 한동안은 불교영화 출연을 자제해 왔어요. '성철'에서 맡은 역은 절에서 허드렛일 하는 김노인 역입니다. 대본을 봤을 때 가장 하고 싶고 애착이 가는 역이었죠. 배우는 하고 싶은 역을 할 때 가장 행복한 법이죠. 김노인은 절집에 살면서 생활 자체에 욕심이 없고 스님 봉양하며 살지만 이미 생활 속에 불법 있는 것을 깨달은 인물입니다. 한산이나 습득처럼 말이죠. 김노인 역은 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같아요. 달관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삭발요구 흔쾌히 수락"



혜미스님역 김성미

공양주로 절에서 생활하다가 성철스님에게 유일하게 계를 받는 비구니 혜미스님 역을 맡았습니다. 혜미스님은 중학교까지 졸업했지만 속가와의 갈등 등 세파에 찌들려 절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성철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교화를 받아 결국 출가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서 108배를 하며 한국불교를 배우고 예법을 배웠습니다. 참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섭외가 왔을 때도 선뜻 수락했구요. 삭발을 전제로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린다는 거창한 포부도 좋았고 성철스님께 계받은 유일한 비구니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절집 예절 등 잘못없게"



불교자문 법전스님

성철스님의 출가 소식을 알려주는 스님 역할을 맡은 단역배우가 오지 않아 우연히 단역으로 출연케 됐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박감독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분장하고 촬영하게 됐죠. 사실 도깨비놀음 한바탕 한 느낌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스님이지만 평생할 이 공부가 하루 늦어지더라도 부처님 법을 전할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우리 불교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본래 저는 자문을 위해 이 영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탭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절집 예절 풍속 등을 교정해 주는 역할이지요.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안녕품(安寧品) ②

守正道快 수정도쾌
工說法快 공설법쾌
與世無諍 여세무쟁
戒具常快 계구상쾌

바른 도 지키는 것 유쾌하여라
잘 설법하는 것 또한 즐거워라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계율 갖추니 언제나 즐겁다

依賢居快 의현거쾌
如親親會 여친친회
近仁智者 근인지자
多聞高遠 다문고원

어진이 의지해 함께 살아 즐거운 것
피붙이 한데모여 사는 것 같다
어질고 지혜로운 이 가까이하면
많이 듣고 그 법 또한 고원하리라

壽命雖少 수명선소
而棄世多 이기세다
學當取要 학당취요
令至老安 영지노안

사람의 수명은 아주 적거니

이는 곧 애욕을 따르는 것이다.

不當趣所愛 부당취소애
亦莫有不愛 역막유불애
愛之不見憂 애지불견우
不愛見亦憂 불애견역우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것을
미움도 마음에 두지 말것을
사랑하는 것은 못보아 괴롭고
미워하는 것은 만나서 괴롭다

是以莫造愛 시이막조애
愛憎惡所由 애증악소유
已除縛結者 이제박결자
無愛無所憎 무애무소증

그러므로 사랑을 짓지말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생기나니
이미 사랑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愛喜生憂 애희생우
愛喜生畏 애희생외
無所愛喜 무소애희
何憂何畏 하우하외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생기고

"사랑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세상 많은 일 다 버리고
마땅히 요점 골라 배워서
늙었을때 이 몸 편안케하라

諸欲得甘露 제욕득감로
棄欲滅諦快 기욕멸체쾌
欲度生死苦 욕도생사고
當服甘露味 당복감로미

무릇 감로의 법 얻고자 하거든
욕심 버리는 멸도를 즐겨라
생사의 괴로움 건너고자 하거든
부디 감로 법으로 배를 채우라

호희품(好喜品) ①

遵道則自順 위도즉자순
順道則自違 순도즉자위
捨義取所好 사의취소호
是爲順愛欲 시위순애욕

도를 어김은 곧 자아를 따르는 것이요
도를 따름은 곧 자아를 어기는 것이다
바른 뜻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두려움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없으면
근심이 어디있고 두려움 어디 있으랴

好樂生憂 호락생우
好樂生畏 호락생외
無所好樂 무소호락
何憂何畏 하우하외

좋아하고 즐기는데서 근심생기고
좋아하고 즐기는데서 두려움 생긴다
좋아할 것도 즐길 것도 없다면
근심이 어디있고 두려움은 어디 있으랴

貪欲生憂 탐욕생우
貪欲生畏 탐욕생외
解無貪欲 해무탐욕
何憂何畏 하우하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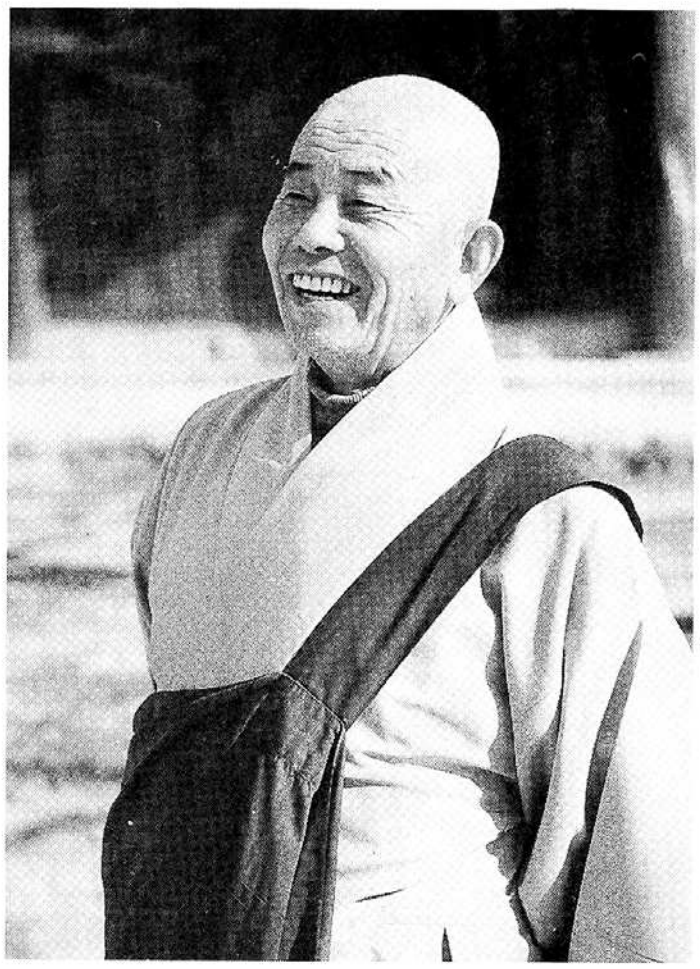
탐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탐욕에서 두려움 생긴다
탐욕에서 벗어나 그것없다면
근심은 어디있고 두려움 어디있으랴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도 흥청망청하면

벽봉스님 〈대구 송림사 조실〉



약력
- 23년 3월29일(음) 경북 성주생
- 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 39년 해인사에서 하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48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50년 해인강원 졸업
-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 70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82년 대구 보현사 주지
- 92~94년 대구 동화사 주지

"나라 경제 회생시키려면 근검절약 생활화 시급 경제흥망 국민 마음에서 비롯"

요즈음 IMF구제금융신청으로 국민전체가 매우 침통해있는 분위기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것도 알고보면 자기 본분사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넘보거나 남의 탓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소욕지족(小欲之足)하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몸에 배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생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많이 해서 힘들게 벌어봐야 또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지요. 소박하고 야무진 마음가짐과 생활패턴이 정착된 ㅇ후라야 벌면 버는만큼 축적이 되고 경제는 차츰 반석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돈을 버는게 우선이 아니라 마음자세·생활패턴이 먼저입니다. 선진국민일수록 씀씀이가 헤프지 아니하고 절도(節度)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대구 인근의 경산조폐창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새로 수입한 고가의 화폐제조 기계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 화폐발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됐고요. 우리나라 화폐정책에 대해 잘모르지만 나는 이 우연한 화재를 하나의 경책으로 받아 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돈을 적거 찍어서 부족합니까, 흥청망청 쓰다보니 부족한거지… 한나라의 경제흥망도 결국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직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합천군 가야산 바로 아래 백운동이 내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가야산이 마치 꿈에서나 봄직한 한폭의 진경산수화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지요. 그절경은 사시사철 어느때 보아도 매력적입니다. 요즈음 그 진경산수화에 골프장 그림을 그리려는 자들이 있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국립공원안에다 골프장을 건설하려고들 합니다. 산을 깎아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생살에 칼을 대는것과 같습니다. 문화파괴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상들이 예사로 통용되는 사회 의식을 하루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는 2남5녀 입니다. 바로 위 누님은 해인사로 출가를 했고 남동생은 6.25전쟁 와중에 죽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살림에 식구도 많아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시킨다고 13세 도던해에 나를 해인사에 맡겼습니다. 3년쯤 있다가 가업을 잇기위해 환속하여 중학교를 다녔으나 세간사가 덧없고 적성에 맞질 않아 졸업후 친구가 있던 경남 다솔사로 다시 입산을 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은사스님을 몇 년간 시봉했지요. 내 은사스님은 원효스님의 아들이자 이두문자를 만든 설총의 45세손으로 1955년 조계종 초대 종정직을 맡으셨던 설석우스님입니다. 또 경남대학의 전신인 해인대학 종교학과도 고학을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해인대학 3학년시절로 기억됩니다만 하동에 있는 국군지원소에 제2국민병으로 징집되어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이건 꼼짝없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하직하게 될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덧없는 세상이지만 도(道)도 한 번 제대로 닦아보지도 못한채 허무하게 죽을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살 궁리를 찾았습니다. "무사히 빠져 나가게 되면 절에가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징집을 주관하던 경찰서 병사주임을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고학생인데 졸업만 하면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며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다면 싸울의욕이 생기지 않으니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사람이 불교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서류를 이리저리 확인해보더니만 돈도 연고자도 없던 나를 어렵지 않게 풀어주었습니다. 하동읍내 모중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댁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절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게 순조로이 풀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스님은 종단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몸가짐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며 경학보다는 참선을 강조한 선승이셨습니다. 평소에 질문을 할라치면 "不識(불식)" 혹은 "귀신 방귀뀌는 소리"라는 대답을 하시곤 했지요. 불식 혹은 무(無)라는 선문답은 다른 큰스님들도 즐겨쓰시던 말입니다. 효봉스님은 어느해 여름 해제법문에서 "공문(空門)에 몸을 담은지 25년간 선도 교도 조사도 부처도 아는바 없으니(禪也不識 敎也不識 祖也不識 佛也不識) 불식두자(不識二字)로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했도다"라고 했습니다. 문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수행의 경지를 적절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도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고 했지요. 진정으로 진리에 접근한 자는 모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은 석우스님의 명성을 듣고 다솔사로 한 목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는 석우스님에게 "무릇 모든 종교는 하늘에 그 근본이 있는데 불교는 왜 하늘을 믿지 않습니까"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기독교는 信天之依天(신천지의천)이요 유교는 敬天之體天(경천지체천)이며 불교는 透天之用天(투천지용천)이다"고 응수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믿음으로써 하늘에 의지하고 유교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하늘을 체득하고 불교는 하늘을 통철함으로써 하늘을 활용한다는 뜻이지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늘과 나를 분리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하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룹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번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 (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푼(공복시 복용)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2개월분)

※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경제처럼 무너지기 십상”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늘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 되는 수행법입니다”



◇1970년 2월 계명대학 교육대학원 제1회 졸업사진. 맨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벽봉스님.

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수행법입니다. 그 목사는 스님의 법문에 크게 감동했을뿐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돌아갔습니다.

불교는 출세간 법으로 심행처멸(心行處滅)하고 언어도단(言語道斷)인 측면이 강히 서양철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득도이후 속성정각(得度以後 速成正覺)이라, 모든 장애를 여의면 정각이 멀지 않으니 수행자는 모름지기 큰 원을 세워 깨달음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막바지 장애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찰마다 분규나 소송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일복(福)인지 일화(禍)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솔사 총무로 있을때는 당시 주지가 최범술스님이었는데 부산의 모사찰과 소유권분쟁이 생겨 검찰에 소환을 당했는데 3번이나 불응하다보니 잡혀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조문을 잘모르는데다 순리대로 한다고 했는데 오해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거창 연수사로 피신을 갔는데 송월주 현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사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해인사로 가서 위촉장을 받아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수행자는 생업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탁발을 통해 목숨을 누지하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비구(Bhiksu)라는 말은 원래 걸사(乞士)라는 뜻입니다.

셋째 차제걸식(次第乞食)입니다. 걸식할때는 시주하는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말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해야합니다. 빈자일등의 고사에서 보듯 참된 시주의 요체는 정성스런 마음에 있는것이지 물질의 화려함에 있지 않으므로 차별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는 수일식법(受一食法)으로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하루에 한끼먹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생명유지와 전법포교에 꼭 필요한 에너지만 섭취함으로써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을수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자연히 배설이 잦아지고 잠이 많아져 잡념이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이완시켜 한곳으로 모을수 있다면 하루 한끼를 먹든 세끼를 먹든 상관이 없으나 어쨌든 일종식을 계속하면 의식이 맑아지고 심신의 안정이 이뤄져 웬만한 장애는 쉽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절식(節食)으로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만은 엄연히 살아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서로 헐뜯고 경쟁이 심한 까닭은 탐하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철학과 종교가 나오기도 하지만 범부들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납니다. 죽으면 어차피 한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알고 있으면서도 재물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어느 한곳에 집착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깨달은 자들은 흔히 지금 머무는 곳에서 옆방으로 옮겨 가는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암흑이요 저항할수 없는 공포로 여겨집니다. 공자님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면서 현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죽음을 삶의 또 다른 측면으로 보고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굉소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혹사시킨 사람들은 그에 대한 과보로 육체적인 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고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 하기 십상이지요.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은 중도(中道)의 삶, 순리대로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장자 역시 무위자연이 도(道)라고 했지요.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프면 밥먹고 잠오면 잠자는 그런 무위이지요.

탐진치가 있다면 바른 무위자연이 되지 않겠지요. 열린 귀와 눈으로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깨어있어야 무위자연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 바른 이념(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새김(正念) 바른 선정(正定)을 의미합니다.

실천적인 규범이랄수 있는 팔정도는 ‘고(苦)를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팔정도에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헛된 망상과 갈애를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팔정도따라 순리대로 살면 ‘苦’ 소멸 돼요”

두타정신 지녀야 집착·번뇌 여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인과인지 나는 일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쉬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요즈음도 매일 2시간 정도는 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수 손보는 일을 도맡아하는 편인데 동화사 즈음변에서 어긋나게 자라는 나무치고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나무는 없을 정도입니다.

상좌들이 힘든일은 그만하라고 해도 안돼요. 한번은 나무를 베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다솔사 총무부터 시작해서 거창 연수사 의성 고운사 대구 동화사 주지 등에 이르기까지 사찰의 소임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임을 맡는 후일 다솔사 건(件)은 무혐의로 무마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출가수행자에게 사판소임은 그리 바람직한 업(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경험해보는 것은 몰라도 오래 하다보면 종지 못한 습관에 젖어 들어 참된 수행으로 부터 점차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수행자들은 두타행(頭陀行)을 했습니다. 두타행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번뇌를 여읠수 있게해줍니다. 모두 12가지 행법으로 되어 있지요.

첫째 재아란야처(在阿蘭若處)입니다. 인가와 떨어진 숲속이나 황야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행걸식(常行乞食)입니다. 출가수행자는 생업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탁발을 통해 목숨을 누지하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비구(Bhiksu)라는 말은 원래 걸사(乞士)라는 뜻입니다.

셋째 차제걸식(次第乞食)입니다. 걸식할때는 시주하는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말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해야합니다. 빈자일등의 고사에서 보듯 참된 시주의 요체는 정성스런 마음에 있는것이지 물질의 화려함에 있지 않으므로 차별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는 수일식법(受一食法)으로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하루에 한끼먹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생명유지와 전법포교에 꼭 필요한 에너지만 섭취함으로써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을수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자연히 배설이 잦아지고 잠이 많아져 잡념이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이완시켜 한곳으로 모을수 있다면 하루 한끼를 먹든 세끼를 먹든 상관이 없으나 어쨌든 일종식을 계속하면 의식이 맑아지고 심신의 안정이 이뤄져 웬만한 장애는 쉽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절식(節食)으로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중후부득음장(中後不得飮漿)으로 중식이 지난 정오이후에는 일체의 음료수도 먹지 않는것입니다.

일곱째는 착폐납의(著弊衲衣)로 낡고 헤진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며 여덟째 단삼의(但三衣)는 세벌의 옷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총간주(塚間住)는 무덤곁에 자주 머물러 무상관(無常觀)을 닦는것이며 열번째는 수하지(樹下止)로 나무아래 머물러 기거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는 노지좌(露地坐)로 지붕없는 한데에서 선정을 닦는것이며 마지막은 단좌불와(但坐不臥)로 함부로 눕지말고 단정하게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타행은 이토록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경전 34

무량수경



윤 원 철
서울대교수·종교학

불교는 아는데 아미타불은 모르겠다고 하면 좀 이상한 일이다. 다른 종교의 신자라 해도, 이른바 대승불교 권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기본 상식으로 아미타불을 알고 있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西方淨土), 즉 저 서쪽 어딘가에 있다는 깨끗한 나라를 운영하는 부처님이다. 성심 성의로 부처님을 믿고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이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면, 몸소 찾아와 그 서방의 정토로 데리고 가서 끝없는 복락(福樂)을 누리게 해주는 부처님이라고 한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오랜 옛날부터 늘 중얼거리는 나무아미타불, 그 염불의 주인공이 바로 그 부처님이다.

할머니,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불교의식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누구나 헤아릴 수도 없을만큼 여러 번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 그런데, 그 명호(名號)와 역할, 또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느낌 이외에 좀더 자세히 아미타불의 이력을 아는 이는 아주 적은 것 같다. 나 또한 〈무량수경〉을 접하고 나서야 아미타 부처님의 이력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옛날 옛날에, 세자재왕(世自在王)으로 시작하는 긴 명호를 지닌 부처님이 계셨다. 헤아릴 수 없이 까마득한 과거에 활약한 술한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라니 아마 그래서 우리 귀에 익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그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느 임금님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그래 “내 이제 저 최고의 참된 도리를 찾겠다” 결심하고는 임금님 자리를 내놓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문(沙門)이 되었다. 법명을 법장(法藏)이라 했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여느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 사문 법장이 부처님께 찾아와 예를 올리고는 서원을 세우는데, 자그마치 마흔 여덟 가지였다.

요약하자면, 자기가 부처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땅의 중생이 다 성불해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잘 나거나 못 나거나 하는 차이 없이 평등하고, 모두 다 신통력을 갖추게 되고, 모든 이들이 완벽한 복락을 누리고, 한 군데도 어두운 곳이 없으며 한 군데도 멋지게 장엄하지 못한 곳이 없고, 나아가 시방(十方)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곳의 중생들이 자기의 이름만 들어도 다 제도(濟度)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정각(正覺)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용맹정진하여 마침내 서원을 이루고 성불하여 부처님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무릇 열 겁(劫) 전의 일이다.

그 부처님을 일컬어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하니, 말 그대로 수명이 한량없기 때문이다. 그 부처님 나라를 안락(安樂) 또는 극락(極樂)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편안함과 즐거움의 극치를 모두 다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무량수불이 바로 아미타불이며 무량수불의 나라 극락이 바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이다.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건설하게 된 이유와 아미타불 염불을 통한 극락왕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경은 〈대경〉 〈대무량수경〉 〈쌍권경〉이라고도 불린다. 현존하는 한역본으로는 지겸의 〈대아미타경〉(2권), 강승개의 〈무량수경〉(2권), 보리류지의 〈무량수여래회 제5〉(2권), 법현의 〈대승무량수장엄경〉(3권), 백연의 〈무량청정평등각경〉(4권)등 다섯가지가 있다.

〈무량수경〉은 그저 전심전력으로 정성껏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설한다. 그 전심전력이란 바로 보리심(菩提心), 즉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지극 정성으로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내어 부처님의 행동을 하라는 뜻이다.

법장비구는 마흔 여덟 가지 어마어마한 서원을 각고의 수행으로 이루어 내는데, 그까짓 열 번쯤이야. 쉽다!?! 그 귀한 공덕을 아낌없이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그이의 자비 덕분에.

법장비구 48원 이룬 아미타정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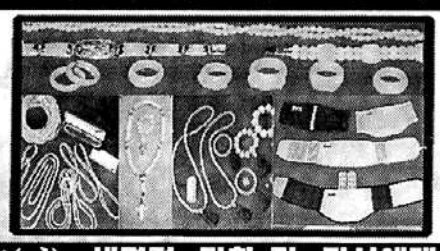
“부처님의 마음을 내고 실천하라”

고침 154호 13면 ‘나와 경전’ 필자 전재성씨의 직함 ‘팔리성전협회장’을 ‘한국빠알리어성전협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옥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여산지국	0458·33·5097
도함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암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클집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천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심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추 천 도 서

어린이불교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 정 스님 감수

- 어린이 법회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양장 · 369쪽 · 값 : 9,000원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법보시는 법련사(02 · 733 · 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출판 담이숲
Tel.267 · 8101 Fax.263 · 3002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스님 번역 ④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윤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윤회의 원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천상에서 지옥까지 윤회의 세계는 달궈진 쇠로 만든 6층집 같다.

육도윤회의 원인은 '번뇌'

모든 번뇌 '아상'에서… '무아의 지혜' 해독제
4성제·12인연 알아야 깨달음 얻을수 있어

윤회의 고통에 대한 명상

선업의 과보가 끝나면 다시 삼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윤회세계에서 해탈해야 한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붓사의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 방법은 4성제와 12연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과 같다. 동물들이 끈에 묶여 있다가 풀리면 자유로워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까르마와 미혹의 끈에 묶여있다가 풀리면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묶여 있냐 하면 인과와 번뇌의 끈에 의하여 4가지 단생(습생, 화생, 난생, 태생)으로 육도에 윤회한다. 이 묶임에서 풀려 윤회를 멈추면 바로 해탈인 것이다.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그 고통을 알고 명심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몸이 모태안에 처음 생길때 지옥의 끓는 쇠솥에 담겨지는 듯한 고통이 있다. 어둡고, 더럽고, 나쁜 냄새가 나는 곳에서 9개월 10일 정도 있으면 다섯가지 의식(안식, 이식, 설식, 신식, 바식)이 생기고 모태속이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 모태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때 소의 생가죽을 벗기는 고통과 고양이가 쥐구멍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는 고통을 지났기 때문에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고통들을 다시 받게 된다.

다음에 늙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육근이 다 시들고 앉고 일어서기도 힘들때 수행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늙음의 고통을 명상하자. 죽음의 고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고통들이 윤회의 세계에는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자세히 모르만, 고통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되어 윤회세계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통의 뿌리들을 윤회세계의 결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수라·천상의 고통: 아수라로 태어나도 고통밖에 없다. 천상에 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들은 죽기 일주일 전부터 매우 고통스럽다. 그 일주일은 인간의 시간으로 365년이나 된다.

신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만큼 공덕도 많이 사용한 것이 된다. 지금 우리는 복덕을 예금하는 시간이며 복덕의 열매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다. 신들은 거의 삼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신들은 죽을때 삼악도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러므로 잠시동안 신의 몸을 얻은 것은 지옥의 달궈진 쇠솥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천상에서 지옥까지 윤회세계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달구어진 쇠로 만든 6층집(육도윤회)에 사는 것 같이 고통 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 오래 걸어서 피곤할때 앉으면 걸을 때의 큰 고통은 멈추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앉는 그 순간부터 앉아있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그 고통을 알게 되는데 또 알게 되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또 일어나면 앉아있는 고통은 멈추지만 일어나있는 고통이 시작된다. 어디를 의지하더라도 고통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의 우리의 몸은 고통을 받는 자루이며, 다음 생의 고통의 씨앗이다.

윤회세계의 행복과 힘과 재산 등은 다 거짓일 뿐이며,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 고통뿐인 윤회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 원인을 없애야만 하며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보리심이 있어야 한다. 보리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동정심이 있어야 하며, 동정심이 생기려면 중생들을 자기 어머님같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차례로 있어야 한다.

윤회세계의 고통들을 명상하므로써 초발심이 생기고, 다른 이들 위해 명상하게 되면 동정심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생긴 후에 수행을 하면 다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 초발심, 보리심, 정견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명상이나 진언 등을 열심히 한다면 깨달음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번뇌, 어떻게 생기는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윤회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윤회의 흐름을 막기위해서는 집착을 없애야 하는데 그 집착에는 업의 집착과 번뇌의 집착이 있다. 우리의 몸은 업으로만 태어날 수 없다. 지나간 생에 지은 업과 번뇌로 인하여 생기게 되며, 또 번뇌에 끌리게 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물이 없는 씨처럼 업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 번뇌가 있으면 전에 지은 업이 없더라도 그 번뇌로 새로운 업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윤회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뿌리는 바로 번뇌다. 번뇌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원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6가지 근본 번뇌: 번뇌에는 근본번뇌 6가지(탐·진·만·치·의·악견)와 그 근본번뇌에 의한 20가지의 수번뇌가 있다.

탐 번뇌는 한 대상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탐의 마음으로 탐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헤어지기가 매우 힘들고 탐과 애의 욕가미에 의하여 윤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이다. 화가날 때는 불이 난 것처럼 공덕들은 다 타버린다. 화를 내는 것은 번뇌중에서 공덕들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며, 삼악도라는 벼랑에서 자기를 밀어버리는 가장 힘센 원수인 것이다. 화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인욕에 대하여 명상해야 한다.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다. 자만을 없애기 위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

치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성제와 인과, 삼보 등 그 자체를 모르고 어리석게 되는 것을 치라고 하며, 또 이 치라는 것은 모든 번뇌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

의는 사성제와 인과, 삼보 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삼보와 사성제를 의심하면 깨달음에 방해가 되고 인과를 의심하면 삼선취에 태어나기 힘들다.

악견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무상한 자신의 몸을 보고 '나' '나의'라고 생각하는 살가야견, '나'라는 것이 있다는 변집견, '나'라는 몸을 보고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견취견, 나쁜 금제(禁制)를 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계금취견, 사성제, 삼보, 인과 등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견 등이다.

번뇌가 무엇인지 알자: 모든 번뇌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살가야견에서 나온다. 고통, 업, 번뇌, 이 모두의 뿌리는 살가야견과 무지의 두가지다.

모든 번뇌의 뿌리와 같은 무지와 살가야견에 의하여 탐·진·의가 생기고 이것에 의지하여 업이 생기고 그 업에 의지하여 윤회하게 된다. 이렇게 윤회하는 것의 뿌리는 살가야견과 무지, 나라고 인식하는 것들이다. 또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나라고 인식하는 무지의 해독제가 되는 무아(無我)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백가지 결점을 없애는 좋은 악은 바로 무아의 지혜이다. 자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좋아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은 생기지 않는다.

번뇌의 씨가 잠재해 있으면 이것이 번뇌의 기초이다. 번뇌의 대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술, 놀음, 번뇌와 어울리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번뇌가 많이 생기고 나쁜 일만 하게 된다. 번뇌의 습관을 많이 만들어 마음이 산란하여지면 욕망, 진 등이 저절로 생긴다. 욕망의 대상, 진의 대상 등을 자주 생각하면 지혜를 다 없애게 된다. 번뇌는 자신을 파괴함과 동시에 남도 파괴하고 계율도 파괴하는 등 나쁜점이 많다. 자기한테 가장 무서운 원수라 하더라도 번뇌보다 무섭지는 않다.

윤회세계에서 벗어나는 길: "본래 마음이란 청정한 것이나 우리는 무지라는 먼지에 가려 자세히 볼 수가 없다. 그 청정한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12연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무명이라는 것의 본체는 독이 있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무명으로 시작하여 생기게 된 이 몸이 니르바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12연기에 대해 열심히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자세히 알게 된다면 또다시 윤회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윤회의 뿌리를 없애려면 무지로 인해 생긴 '나'라고 하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나'라는 자체가 있다는 인식의 뿌리를 영원히 없애려면 무아의 지혜가 필요하다. 무아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명상과 기도를 하여도 아상을 없애는데 도움이 안된다. 무아의 지혜를 얻으려면 선정을 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선정을 만들고 싶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율은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와 같으며, 지키게 되면 큰 이득이 있다.

계율을 지키는 비구, 비구니가 있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된다. 좋은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단청을 아름답게 하는 것 등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시킬 수 없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시킬 수 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인 것이다.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관 음 손 720-1147-8	진 영 사 734-3116	광 명 사 732-4792
삼 보 원 732-9904	성 불 사 735-3545	녹 야 원 739-0957
삼 복 사 733-0903-4	신앙불교사 735-6719	불교서적사 732-8086-7
견지불교사 739-3032	종합불교사 733-6655	이화불교사 720-1700
불 사 원 720-5678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천진무구성' 그대로 키우자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1〉

올바른 아동관 「불성설(佛性說)」

종래의 아동관에는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아동관인 불성설을 추가 하고자 한다. 불성설이야 말로 아동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고 확신한다. 불성설은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이론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아동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에 이네 가지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성선설(性善說)

성선설의 주장자는 맹자(孟子)이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사람이 문득 어린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나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붙든다. 이러한 것에 의하여 살펴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오, 불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라.

서양사람으로서는 루소(Rousseau)가 성선설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에밀(Emile)〉이라는 교육론 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만물 모두 선 하였으나 인간의 손에 들어오자 만물 모두 타락한다." 루소는 성인들이 선하게 태어난 아동을 타락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성선설에 따르는 교육의 방법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교육이다. 그래야만 그가 지니고 태어난 선한 마음이 무럭무럭 자란다. 일체의 억압, 금지, 통제가 없는 자유교육은 성선설에 입각한 교육이다.

성악설(性惡說)

성악설의 주장자는 순자(荀子)이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 착함은(후천적인 교정이라 할)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이제(생각컨데) 인간의 본성은 태어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함에 있어 그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남과 쟁탈을 하게 되고 사양함이 없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어 그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성실함과 신의가 없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미성(美聲)과 미색(美色)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그러한 본성에 따르는 까닭에 무절제함이 생기고 예의와 문리(文理)가 없어진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성악설에 입각하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편에 인간의 원죄설(原罪說)을 주장함으로써 성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죄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금단(禁斷)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한 인류 최초의 죄이며 사람은 모두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서 나면서부터 원죄(原罪)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설이다.

성악설에 따르는 교육은 아동을 있는 그대로 키우면 악이 싹트게 되므로 악의 씨앗을 일찍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 유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죄악시한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중심이 되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따라서 금욕, 순종, 엄격, 통제, 지시, 금지가 교육방법에 주류를 이루며 체벌도 유력한 교육방법의 하나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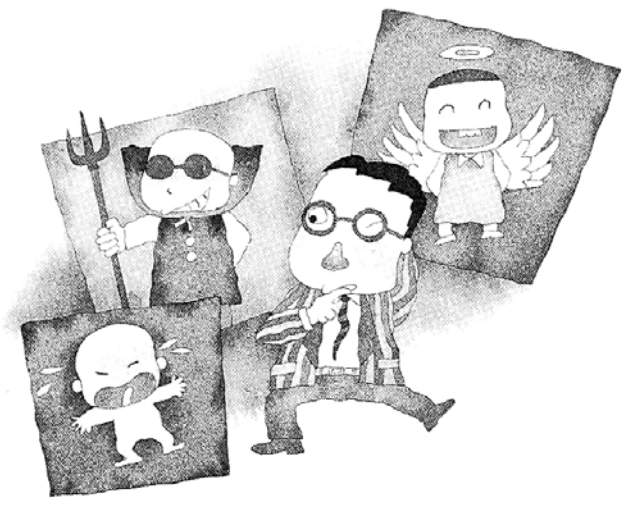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중성설(中性說)

중성설의 주장자는 고자(告子)이며 그는 성무선무불선론(性無善無不善論)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杞柳)와 같은 것이고 의(義)는 나무를 휘어 만든 그릇(器)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인의(仁義)를 만드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휘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서양사람으로서는 죤 로크(John Locke)가 중성설을 주장 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유관념(本有觀念)을 부정하고 후천적인 경험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흰 종이의 상태로(Tabula rasa) 태어나며 사람 됨됨은 이 종이 위에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암실에 놓여진 흰 종이이며 이 암실에 들어오는 빛이 감각을 통하는 외적경험과 반성을 통하는 내적경험이며 이 경험의 질이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든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중성설은 환경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하는 교육만능설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어린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키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행동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에 대한 강화(强化)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인간행동을 환경여하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히 교육만능설이라고 할 만하다.

불성설(佛性說)

나는 불교의 아동관을 불성설(佛性說)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 또는 백지(白紙)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백지를 함께 지닌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고 본다. 즉 인간 본연의 모습인 선, 악, 백지를 함께 지닌 '잠재하는 보편적 인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은 인간의 일면만을 본 것에 불과하며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성설(佛性說)은 성선설, 성악설, 중성설을 절대적 차원에서 통합한 아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또는 그 행동 결과가 선 또는 악의 경험으로 남는지를 개의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뿐이다. 주위의 비판이나 여건은 어린이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어린이의 행동을 우리는 천진무구(天眞無垢)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사량(思量) 분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참된 인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사(禪師)들의 행동이 어린이 같은 행동으로 보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어린이와 선사의 행동 차이는 어린이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하면 천진성을 잃으나 선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도 한결같이 천진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불성설에 의한 아동 지도는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지도함을 말한다. 성인의 입장에서 보아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도 어린이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그저 잠재하는 보편적 인간성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일 것이다.

성인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표준, 잘못된 견해에 따르는 아동 지도가 아니라 아동의 있는 모습인 천진무구성을 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불성설에 의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동의 올바른 지도는 성선, 성악, 중성의 선입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인 불성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동관의 새로운 제안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어른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표준 어린이 천진무구 해칠 수 있다

성선·성악·중성설 인간의 일면만 본것 사량분별 모르는 어린이 선사들과 비슷

생활불교용어



삼매(三昧)는 순수 불교용어로서 좋은 방향으로 생활화됐다.

"독서삼매에 들었다"든가 "삼매에 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은 무엇인가를 집중해 하다보면 잡념이 없어지고 그 일의 성취에 초인간적 효능을 본다는 뜻이다.

삼매의 어원은 삼마지(三摩地; samādhi)다. 삼마지란 마음을 한곳에 둔다,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해짐을 삼매라고 한다. 수행이 삼매의 단계에 이르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교는 삼매를 중시한다. 부처님은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의 설법은 삼매에 든 다음에

삼매(三昧)

마음 집중 흐트러짐 없는 경지 부처님 삼매 통해 깨달음 증득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삼매의 상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법화경〉은 부처님이 해인삼매(海印三昧) 속에서 설했다. 해인삼매를 그대로 해석하면 '바다도장'의 삼매다. 바다도장의 의미에 대해 어느 경전은 "큰 바닷물이 모든 것을 포섭하는 것 같아서 해인이라고 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경전은 "바다에는 모든 강물이 들어가 평등을 이룸으로 해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보살이 바다와 같이 많이 듣고 그를 토대로 지혜를 성취하고, 부지런히 법을 구해 나가면 마침내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를 해인삼매라고 한다"고 해석한 경전도 있다.

이런 경전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삼매는 어느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흐트러짐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삼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온갖 갈등을 융화시켜 언제나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큰 바다와 같은 것이다.

삼매에 든다는 말의 뜻이 세속에서 쉽게 오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님을 재인식하고 진정 새롭게 삼매에 들도록 늘 정진해야 한다.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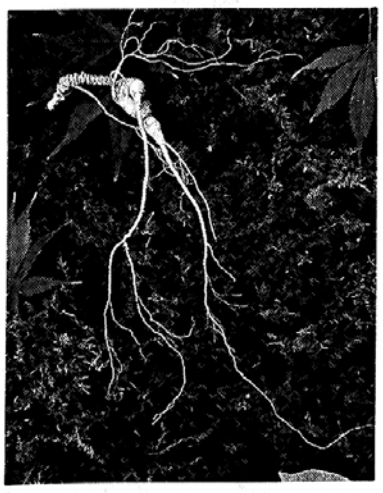
후원문의: ☎ (0591)747-010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옴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킨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옴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옴을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서업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깊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 화 (02) 732-1522(代)
FAX (02) 737-0697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새해를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달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와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시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침.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중풍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FAX로 집주소, 방향, 주소을 적어 보내시면 수맥 감정해 드립니다. (이동은 ₩20,000)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국민은행 011-21-0595-462 (이 준 수)
농 협 059-01-247105 (이 준 수)
※ 수맥연구원 안간힘 모집

강 좌 관

백련문 **풍류도**
풍류도란 호국무예의 원류로서 고조선시대 조의선사로부터 전래되어온 한국고유무술의 뿌리로서 인선, 기공, 검법, 봉술등의 전통무예로 내면의 세계를 밝히며, 내면의 세계란 자신의 몸을 알면 몸을 아름답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원 : 신라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풍류도를 두고 현묘지도라 할 정도로 극찬하였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점목대사, 역승대사등이 풍류도의 고수들이었다.
◆대도시의 공해 ·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로하신 분들께 알맞게 정통 풍류도 수련비법을 체계화하여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수련일시 : 오전9시~오후9시까지
(수련시간은 자유선택, 월~토)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402호(조계사 부근)
■ 문의처 : 723-4260~1
◆지장경 독송모임◆
대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 불 교 신 문 강 릉 지 사
0391)43-5599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맞문이 트입니다.

명상 개인지도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禪)**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氣明綾峅 地水火風
02)897-7731
016)340-4459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꽃꽂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 2년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

구인·구직 관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사업에 동참하실분
저는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여성입니다.
저를 도와 함께 운영을 해주실 불심 돈독한 여성분을 찾습니다.
※ 월 160 보장!!
부 산
호출 015)5944-3710

공양주 보살 구함
불심 돈독하고 신체 건강한 30대이후 보살님을 구합니다.
◆ 산사에서 공부하실 학생 또는 고시생 연락바랍니다.
0373)374-1765
(저녁 8시이후 전화요)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극락사 주지 합장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명 108작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 · 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敎社◆
불교 · 단청 · 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 · 제기 · 다기잔
· 소반 · 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팩스 및 전화주문 가능

불교 미술 관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시절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분 아니라 어려운 현장 직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전자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십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엄산법회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佛 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요불사업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사찰안내 관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안내(토굴)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고성산 밑
◇ 법당 1, 방 2, 거실 2,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 건물등기가 : 매가 2천 5백만원
◆ 분상 · 맹화 있음
0334)72-9505
0331)255-4315

전국 사찰부지 · 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86-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대 지 : 48평
- 임법당 18평, 방 2칸,
-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 가 격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2)937-3729
011)302-372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천호 2동 바이롯트 4거리
◇ 평 수 : 30평 (6층건물 2층)
◇ 가 격 : 6천만원 (보증금:시설비포함)
◆ 보신 후 절충가능
전 화 02)485-2952
휴대폰 011)335-295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 대 지 : 240평 ◇ 건 평 : 35평
◇ 구 조 : 황토 너와집
◇ 전 경 : 한가한 농촌 산밑,정남향,「벌장지」
◇ 가 격 : 건물 및 대지 2억 (건물만 1억 1천) ※가격절충가
0342)702-7793
0338)74-249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 평 수 : 1,200평
- 법당, 요사채
◇ 가 격 : 1억 8천 5백만원
직접 보신후 상담요망!
◆ 나병환자도 낳았다는 유명한 약수물 있음
0597)63-7175
0597)62-2029

사찰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전 - 112평
답 - 700평
◇ 건 물 : 대웅전 - 10평
산신각 - 3평
용왕각 - 3평
요사채(2동) - 40평
창 고(2동) -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해동불교백화점)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344)64-4827
017)263-690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초역 100미터, 법원 건너편 3층건물 지하 60평
◇ 현재 사찰 3년째 운영중
◇ 대법당(삼존불 및 지장불)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완비
◇ 시설 투자비 2,000만원 소요
◇ 건물 임대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
◇ 뜻있는 분에게 임대 보증금만 받고 무상 양도합니다.
◇ 시설 개조 및 변경도 가능
02)583-0014

사찰 및 포교원
◇ 건평(총평수)32평
◇ 법 당 : 1칸(최고급자재로 시설완비)
◇ 거실(방) 2칸, 주방(부엌) 1칸
◇ 화장실 및 사원장 1칸
◇ 현재 재적신도 : 약 300가구
◆ 양도금 총액 2,800만원중 건물보증금 1,000만원(월세 55만원 별도)
◆ 시설물인수금 : 1,000만원
서울 마포구 성산2동 200-57호
02)374-5295/011)742-2955

사찰양도안내
◆위 치 : 대구시 대명동 교통중심지
◆부 지 : 170평
◆법 당 : 40평 / 요 사 : 50평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
◆보증금 : 3천만원/4때명절 보시고 부500만원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 즉시법회 가능하고 이사비용만 받고 임대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시장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 수 : 5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12)242-6187

사찰부지 안내
◇ 사찰부지 : 900평
◇ 법 당 : 사찰부지 경지정리, 조경완료
◇ 산신각 : 15평(현재 법당으로 사용, 목조건물)
◇ 요 사 : 8평 (조립식 건물)
◇ 매 가 : 3억
◇ 위 치 : 철학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이 만나는 곳으로 진하 질경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맑은 계곡물이 경내를 휘어 감돌아 가는 곳. 기도도량으로는 최고의 사찰
(보시는 스님들은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TEL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주)천 운 한 상 철 합장

개 인 토 굴
◇위치 : 유명산 입구
0356)84-9597
015)205-1506

도심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 평 수 : 40평 (옥상사용가)
◇ 가 격 : 2,500만원(보증금포함)
◆ 사정상 급매합니다.
02)423-6446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여행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표 구 관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 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기 타 관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 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7차 충효사
겨울수련회 모집안내
불법의 진리를 깨닫고, 충효사상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나눔의 장은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드립니다.
1. 모집내용 : 1차~8차 (초심반) 20명
2. 회 비 : 18만원
3. 수련내용 : ①묵 언 ②영불진언 ③강 의 ④마음나누기
6. 연 락 처 : 042)841-4101
파 련 중 앙 수 련 원
파련중앙경제연구소
파 련 합장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신(神)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정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청 / 좌법, 호흡법, 영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도리엔 한치 에누리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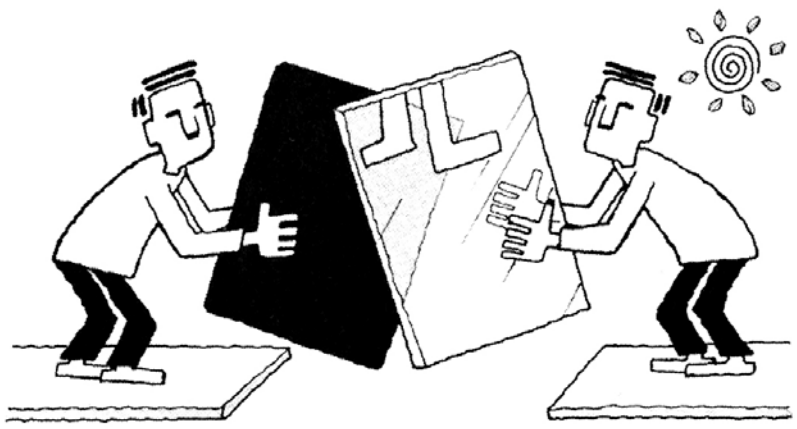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은 빛보다 빨라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온갖 번뇌 다 내탓…나온 자리에 되놓으세요"

21년된 소아마비가 나아

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제 체험담입니다. 이 공부가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생각에서 이름모를 여러 도반들에게 참고가 될듯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몸이 불편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 살이 되도록 혼자서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뇌성소아마비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지요. 그로부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일까, 나이 스물한살이 된 지금에 와서는 저 혼자 조금씩 걷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년한 딸자식의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남들처럼 좀 의젓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원이었지만 그 정도로 체념할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이웃 분의 권고로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 앞에서 제 딸 자식의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음 좀 내주십사 청을 드렸었지요. 스님께서는 그때 저희보고 주인공 법문을 해주시며 관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저희는 천도재를 지내고 저희 부부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관하는 법을 일러주고 다 같이 스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습니다.

'주인공, 남들처럼 의젓하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여느 처녀답게 걷게 할 수 있지 않겠니' 하고 말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딸 자식도 그렇고 진심으로 믿고 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잠이 들었는데 한시경쯤 지났을까, 딸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서 저를 좀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던가요. 발꿈치가 땅 바닥에 닿게 걷지를 못하던 아이가 또박또박 뒷굽을 붙이면서 걷게 아닙니까.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우리 식구는 서로 부등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방 "스님 감사합니다"하면서요.

다른 분들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습은 제 각각이지만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이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서로 통신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통신이 되면 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모두들 믿지를 못해요. 주인공 공부도 평상시엔 제법 주인공! 주인공! 하다가도 급한 지경이 되면 그냥 헛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태양 볕을 쬐려면 문을 열어 놓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야지 문을 가려놓고 어떻게 쬘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쐬라, 쐬지 말라 하는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빛은 못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굽은 구멍속이라도 관계없고 바다 밑이라도 들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믿고 좀 지혜를 발휘하라 이거죠.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하면 누구나 생활속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하라' 무슨 뜻인지요

문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많습니다. 외가쪽 할머니께서 스님이셨고 집안 분위기 따라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를 믿는 일이 그냥 그런 것인줄 알다가 스님의 법문테이프와 책을 보고부터는 '믿고 관하라'는 말씀을 따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관하라는 말씀을 제 자신이 아직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중소기업을 하신다니 안팎으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믿고 관해야 할 것인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것을 다, 제 몸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하는 것 까지도 말입니다.

이 '나'라는 것은 심부름꾼입니다. 자생중생들의 심부름꾼, 이 중생들은 또 부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란 말입니다.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묘법이라는게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거기다 맡겨 놓으면 통신이 되어요. 통신이 되어서 응신으로 화해 나투어 줍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던 약사가 되어 나투어 주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신을 내보내고…, 그렇게 나투어 줍니다. 이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이 같이 돌아가니까 아주 손쉽게 빨리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든지 사량으로 끄달리지 말고 한 곳에서 들고 남을 굳은 마음으로 믿고 관하라 이것입니다.

인연을 좋게 맺고 싶은데…

문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다 인연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에 나로 인한 원망과 미움도 생긴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연따라 맺어지는 도리가 있기에 나와 인연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답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해야겠군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묘법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한마음으로써 네면으로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그대로를 받아 바로 빛보다 더 빠르게 응신으로써 나투어 줍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구라서 벌어 먹고 살 수가 없다든가, 누가 여럿에게 구타를 당한다든가…, 아무튼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 저건 너무 불쌍하지 않나!' 하고서는 주인공에 놓고 말겠을 때는 그냥 한 가족 한 친척으로써 건져 집니다.

언젠가는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만 몸을 부들부들 떨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왠걸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그러느냐' 하고는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통신이 되면 군인들이 무전연락을 받고 제꺽 돌진하듯이 참나에 작용을 합니다. 그건 제꺽입니다. 빛보다 더 빠릅니다. 순간에 미국도 가고 순간에 지구도 벗어납니다.

한번은 미국 지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스님, 각혈을 하고 영 낫지를 않는데 관을 해도 안됩니다'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그랬지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가령 죄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못합니다. 죄업이든 뭐든 다 둘로 보지 않는 것, 바로 나로 보는 것, 그렇게 된다면 제꺽입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더하고 덜함이 없으니 아프다는 전화나 낫다는 전화나 그게 그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체험을 안해보면 전연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진 보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보배로 쓰지 않고 독사처럼, 강도처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마음들을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 천상 다음 생에는 그 모습으로, 독사 모습 강도모습으로 나와야 하지요.

이건 조금도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나는 안됩니까 이러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마음을 빼뚤어지게 써서 자꾸 한데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아나는데로 내버려 둡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면 그때야 다시 돌아 서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민족이 통일되려면…

문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 한때는 만주지방을 다스리던 용맹하고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또 기후와 자연환경도 사람살기에 마침 좋습니다. 이 배달민족이 어떻게 해야 통일된 민족으로서 세계에 당당한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겠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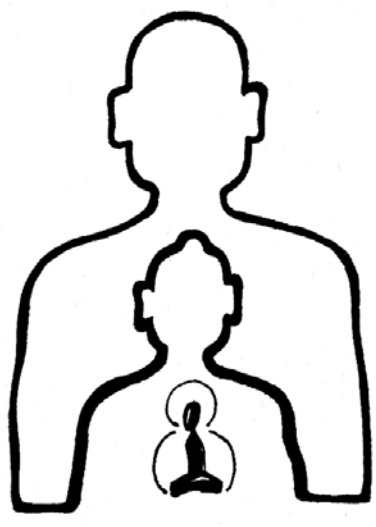
답 모든 마음들이 서로 통신이 되는 것을 안다면, 둘이 아닌 도리로서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0

돌에서 피가 배어나올 만큼의 믿음이라면….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원사가 꽃나무를 가꾸듯이 불성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성을 잊고 있다. 우리는 여러해살이 꽃나무가 계절따라 피었다 져도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울 힘을 그 나무 안에 지니고 있는 줄 알지만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은 잊고 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일단 몸을 바꾸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까마득히 잊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겁생을 거쳐 지금 진화의 위대한 순간에 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면 꽃나무에 꽃 피우는 힘이 있음을 믿듯이 우리 속에 부처 될 힘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원동력, 그 불성을 믿어야 한다."

일체 중생에게 빠짐 없이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저 '그렇다더라'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밖에서 경배의 대상을 찾고 그로부터 복과 가피를 바라는 것은 바로 건성 믿음 때문이다.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로서 성불할 수 있다, 내게는 부처님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면 구태여 밖에서 찾고 밖에서 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만큼 나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엔 조건이 없다. 내게 불성이 있음을 믿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가령 누가 바깥 대상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볼 조건이 붙겠지만 자기가 제 뿌리를 믿는데야 조건이 붙을 까닭이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더구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미쳐 알지 못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일깨워 주시지 않았던가. 고로 자기가 제 뿌리인 제 불성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승인 부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고 진리를 의심하는 결과가 된다. 불자로서 어찌 부처님을 불신하겠는가. 어린 아이가 제 살림의 일체를 부모에게 맡기고 살듯이 그렇게 제 뿌리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한마디로 절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같은 그런 마음, 뼈에 사무치도록 애절한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듯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미쳤다.' 고 할만큼, 저 무심한 돌에서 피가 배어나리만큼 그렇게 사무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왠만큼 불심이 돈독하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백천간두에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뱃심, 죽든지 살든지 다 말기겠노라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믿음을 말하지 말라. 괜스레 건성 믿음만 드러내 보이는 꼴이 될 터이니까.

내게 불성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이지 수행이란 필요없다. 믿음 그것으로서 족하다. 수행이란 다름이 아닌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우쳐 가는 방편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고히 믿는 이에게는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

생활 속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니 따로이 수행이 필요없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잘 된다 못 된다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지든 일어서든 구애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원력 능력 지혜의 원천이다.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성부처가 드러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해결사인 제 뿌리 주인공을 만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뿌리를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대한다. 때로는 믿는데도 왜 안되느냐는 푸념을 한다. 건성으로 믿으면서 능력과 지혜를 원한다. 마치 부모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서 등 따습고 배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진정한 믿음만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죽든지 살든지 일체를 제 뿌리에 맡기겠노라는 그런 믿음, 거기에 길이 있다.

협찬 : 김 동 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밖으로 달리 무엇을 믿을게 있나

☞ 17면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배달민족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전체가 배달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같이 공용하고 공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무위세계 유위세계를 겸해서 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니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보이는 정신세계 궁금

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 주인으로 마음이 있다 하는데 그외에도 영혼이다, 혼백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답 예전분들은 혼백이란 말을 썼고 요즘 와서는 영혼이라 하지만 그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면 육신과 영혼, 그리고 생명의 불씨인 에너지를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음을 잘 쓰면 선한 영혼이요, 악하게 쓰면 악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이걸 분리해서 따로따로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갈라 놓고 보려고 하는데 본래는 둘이 아닙니다.

각기 역할이 뭐냐고 하는데 사람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영원하지만 과거에 어떤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 '영혼의 업식'이 제각기 현실로 나오는게 달리 보일뿐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고 업식만 남는다고 하지만 살아 있을 때 그걸 따로따로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영혼이다 혼백이다 업식이다 하는게 다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구분이 아니라 찰나찰나에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까지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은

문 불교서적을 읽다 보니까 번뇌에는 크게 세번뇌와 추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번뇌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답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입력이 되었다가 현실에서 솔솔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풀려 나오는 중에는 번뇌라고 이름 붙일 경우도 있겠고 선한 것 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경계도 있겠지요. 그게 다 내탓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나온 구멍없이 절로 나오는 것드 아니지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나온 구멍에다 되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 놓으면 지워지니까요. 저 녹음테이프를 지우듯이 말입니다.

세번뇌다 추번뇌다 하는 데 그건 이름이지요. 사람마다 경계마다 번뇌는 가지가지일 터인데 미세한 번뇌든 거친 번뇌든 다 놓고 가야 하는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번뇌가 번뇌인 줄 알아서 나온 자리에 되놓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번뇌라고 할 것도 없이 번뇌가 보리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거기에 얽매여서 울고 불고 떨쳐 버리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런다면 큰 것은 큰 것대로 놓고가고 거친 것은 거친 것 대로 놓고 가라, 그것만이 번뇌를 다스리고 녹이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번뇌가 번뇌인줄 알아야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놓아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탓으로 돌리고 나온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인데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 놓고, 나쁜 것, 안되는 것은 한생각 돌려서 놓아라 이겁니다.

몸 아플땐 잘 맡겨지지 않아

문 스님께서는 몸이 아픈 것도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아프다 싶으면 맡기는 일보다 먼저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그 말은 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형성시켜 놓고 지금 자동적으로 작용케 하는 묘법을 말입니다. 어쨌거나 나를 이렇게 움죽이게 하는 장본인은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속에 있다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눈 달리고 귀 달린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불씨를 지니고 태어나는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성은 마음따라 에너지 배출
선하게 쓰면 선한대로
악하게 쓰면 악한대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아무 이름이 없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참나라고 했고 때로는 진여다 뭐다 했지요.

나는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나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한 그 장본인이 있는데, 마치 저 나무의 뿌리같고 저 배의 선장 같은 그런 주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면 밖으로 달리 무엇을 믿을게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주인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끌고 다니니 제대로 작용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할 일 아니냐 이거죠. 가령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그걸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듯이 이 몸도 자기가 형성시켰으니 자기가 잘 알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맡기라 하는 것은 '주인공, 야! 이 몸이 이렇게 잘 안돌아가게 해 놓으면 어쩌냐?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너 밖에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래?' 하고 통신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통신이 되질 않으면 그냥 캄캄하니까 병원엘 가든 약국엘 가든 일단 밖으로 찾고 바깥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니 제가 가장 잘 알아서 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 해주시오'하고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냥이죠. 그냥, 통신이 되니 안되니 할 것 없이 즉발이니까 무슨 말긴다 안 말긴다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 이 도리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병원엘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그냥 밥먹는 일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먹는데 먹고 싶지 않다면 안 먹을 것이고 그런 것은 먹는다 해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달리 무슨 생각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 도리를 아는 사람에겐 밥 먹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죠.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서 주인공과 통신이 된다면 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따르질 않겠지요. 밥도 약이고 물도 약이고 약도 약이니 구분해서 약을 먹는다 안 먹는다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은 약이 아니고 약만이 약이다 이런다면, 금방 '아이구,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낫겠지' 이럴테고 '아이구 선생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게 됩니다.



그림 · 최주현

가르침대로 실천 잘안돼…

문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해서 설법을 듣곤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얼마간 지나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럴 때는 법회 때의 분위기나 느낌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찰이나 내 생활공간이나 다를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 비유로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흔히 쓰는 녹음기에도 약을 끼워서 쓰는 게 있고 전기코드를 꽂아서 쓰는 게 있지요?

약을 끼우는 것은 약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다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력이 들어 오게끔 되어서 끌어 오고 말고 할 게 없으니 절에 오든 안오든 일체처가 다 도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약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엘 다니면서 공부를 배울 때도 과정을 다 마치면 더 다니지 않듯이 말입니다. '불성과 영은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뜻을 여쭙니다.

답 예를 들어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이라 하면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방편상 불기둥이라고 합시다. 이 불기둥은 나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하늘과 땅, 지구와 별들까지 다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지만물이 다 이 불기둥을 끼고 수레 돌아가듯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생사윤회도, 일체가 그렇게 돌아가듯이 이 기둥을 끼고 돌아간다 이것이죠.

바퀴가 구르려면 축이 있어 힘을 받쳐 주어야 하듯이, 또 저 맷돌이 돌아가려면 한 가운데 심봉이 딱 맞춰져서 저는 돌지 않고 힘을 배출해 주듯이, 힘의 중심이 되듯이 그렇게 불성은 늘지도 줄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생명의 근본이 되고 에너지를 배출해 준다 이 말이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선하게 쓰면 선한 채로, 악하게 쓰면 악한 채로 돌아가지요, 불성은 선이니 악이니 그런데 간여하지 않습니다. 힘만 줄뿐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쓰는 것, 그 마음을 쓴대로 입력된 것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뭐 영혼이라 해도 좋고 혼백이라 해도 되지요.

아무튼 그 입력된 것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 돌고 도는데 가령 그것이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자기 그릇이 영혼인 것입니다. 업식의 덩어리다 해도 되지요.

그래서 불성,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씨를 말하고요, 이 마음낸 것, 영혼이든 업식이든 영이든 이걸 말하고 거기에 내 육신, 중생의 집합소를 다 통합해서 주인공!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느냐 하고 따지기 보다…, 그걸 따져서 뭘 어쩌겠느냐? 그러니 싸잡아서 주인공! 하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가라, 그래야 뭐가 뭔지 알게도 되고 맛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주인공! 하면 티끌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내 자생중생들을 몽땅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를 알아야 잎도 알고 가장귀도 알게 되고 한 찰나에 밝아지는 도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고 따져서 알아 먹으려 한다면 더디기도 하겠지만 반쪽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앞 뒤 가리지 말고 떡 목판에 엎어지듯이 그대로 콱! 엎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방편 삼은까닭

문 스님께서는 여러가지 법도와 방편 대신에 주인공 공부로 한가지 방편을 삼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도리를 깨우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애당초 마음 도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드리기 위해 주인공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당겨주려고 불상을 치워보기도 했고 부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절에 오느니 안오느니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명도 안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들 관습에 찌들어 있으니 그랬던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돈을 천원 시주하든지 만원을 시주하든지 그게 공덕이 되려면요, 그걸 내가 한다 하는게 아니라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주인공이 한 것이다 하면 공덕이 됩니다. 물론 받아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제사지내는 법이나 예법에 대해서도 일거일동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가령 마음의 법으로 하면 삼배니 구배니 삼천배니 하는게 따로 없다, 그러니 여유가 없을 때는 일배를 하면서도 삼천배를 한데 합쳐 일배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사는 시대라고 봅니다.

제사 지내는 법을 간편하게 한 것도 그렇고, 조상을 모실 때 저 영탑을 세워서 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손들이 일년에 한번이라도 조상의 묘를 찾아 볼까 말까할 겁니다. 게다가 이 땅 덩어리가 좁은데 산소를 썼다가도 파내야 할 일이 생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화장해 버리고 하는데 그런걸 돌아보면 탑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대를 이어 모시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탑을 절에다 해 놓으면 절에 가는 참에 찾아뵐 수도 있고 말입니다.

게다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제사 모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맏이라면 보통 일곱 여덟분을 모셔야 하는데 지금같이 뛰면서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사는 세상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공연히 제사를 지냈느니 안 지냈느니, 잘 차렸느니 못 차렸느니 하고 누가 모시느냐로 마음에 알력이 생기고 그런다면 조상에도 누가 되고 자신들은 불효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 세덩이라도 마음이 중요하다, 여자가 못하면 남자가 케익 하나라도 날짜 딱 맞춰서 사오면 된다고 했지요.

상 차려놓고 자식들끼리 아웅다웅한다면 아무리 잘 차렸다 해도 조상님들이 반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태어나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덜 떨어졌다'고 하지요? 옛날 어느 조사님이 제자를 보고 '이놈아, 네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이 육신이 깨닫는 게 아니라 덜 떨어졌으니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마음으로 탄생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내 나온 자리가 어딥니까? 자궁! 나의 궁이다 이거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한 것은 네 궁, 네 집, 이 육신도 내 집인데 네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 네 몸뚱이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고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놓는 것은 앞서의 입력을 폐지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공 공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볼 줄 모르고 그냥 밖으로 끄달려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매여 허덕이며 다니거든요 지금, 그러니 어느때 꼭지가 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뛰면서도 고개를 숙여 자기를 보라, 심안으로 자기를 보아라 한 겁니다. 주인공! 이지요.

옛날 중국에서 한 때 스님들까지도 육신무예를 익힌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지방마다 고을마다 왕이 있어서 수탈을 하고 절을 부수고 하니까 그런 수행도 안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세상엔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가령 축지법을 한들 몇 조금이나 하겠습니까? 잡깐 사이에 서울 부산을 오가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정신무예를 해야할 시대입니다. 또 정신이 없다면 이 몸뚱이를 움직거리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가깝게 두고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사방을 찾아 헤맨대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주장자를 끼고 다니면서 제 주장자를 못 본다면 얼마나 못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물어보면 마음대로 산다고 하겠지만 자유가 없어요. 마치 자석에 달라붙은 쇠붙이처럼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죽으나 사나 너 자신을 형성시키고 너를 끌고 다니는 네 주장자를 믿고 일체를 맡기고 가라고 거듭 거듭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도 되는건가?' 이러는데 설사 깨우치진 못한다 해도 반야줄을 꼭 잡고가야 지혜도 열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몸을 바꿀 때도 떳떳할 수 있지요.

또 당장은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조금씩 체험을 하다 보면 할 수 있게끔 되는 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 입사했는데 그냥 직원으로 들어 갔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실력도 생기고 배경도 생기듯이 반야줄을 잡고 가다 보면 맛도 보고 위로 조상대의 빽도 생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서 들이려면 들이고 거부하려면 거부하고 이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자기를 리드하고 거들고 보호하면서 지혜도 열리고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롭죠.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참으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입니다.

예전에 조사님들이 부처님을 때려 죽인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 집어 삼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든지 뭐든지, 부처님이 수만이나 된다 해도 한 참에 집어 삼키는 거, 그거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집어 삼키는 겁니다. 부처님이니까 높아서 집어 삼킬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인공! 하면 전체요, 전체가 궁그르고 전체로 통합니다. 그러니 이 방편, 저 방편에 끄달리고 의식찾고 법도 찾을 게 아니라 주인공 그 속에다 놓고 그 속에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정신세계·물질세계 본래 둘이 아닌 것"
"고장난 기계 잘 고치는 사람은 설계자"

마음의 발전소 돌리는 법

문 저는 발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스님께서 마음의 발전소를 돌리라는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크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발전소가 계속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답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발전소는 힘의 한계가 없는 발전소입니다. 물질세계야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내가 항상 말하듯이 마음의 발전소는 보이지는 않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엔 멀다 가깝다도 없고 크다 작다도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 불이 들어오는 데는 빛보다 더 빠릅니다.

바로 누구나 갖고 있는 여러분의 발전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랄뿐입니다.

불성과 영, 어떻게 다른지

문 한마음선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

협찬 주인공

단 신

충남 청소년봉사센터 개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지회(지회장 성공스님 · 석림사 주지)는 6일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위치한 충남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불광사 '바라밀한마당' 개최

잠실 불광사(주지 광덕)는 28일 오후2시 경내 보광당에서 제18회 불광 바라밀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효(孝)'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6백여명의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 문화공연, 다과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유아교육전' 열려

선진유아교육 제품 및 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해 불교 유아교육의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아교육원(대표이사 류지영)이 18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KOEX) 본관 3층에서 여는 '제4회 서울 국제유아교육전'이 바로 그것. 세계 11개국 1백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교육전에는 유아교육 관련 신제품이 총망라됐다.

새싹불자 겨울불교학교 '활짝'

"호연지기·신심 기르는 기회"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게 할까하는 고민으로 '자녀와의 전쟁'을 예감해야 하는 날일지도 모른다.

관음사 **야간산행 · 눈썰매 교실등 마련**

정토사 **참선 · 심성놀이 · 사찰순례 눈길**

선덕사 **공작활동 등 감성체험에 비중**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청소년들이 겨울불교학교를 통해 불심과 호연지기를 다지고 있다. 사진은 우리는선우가 지난 1월 개최한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분임토의하는 장면.

그렇다면 아이들의 들뜬 기분을 존중해 주면서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계에서 실시하는 겨울불교학교와 캠프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찰과 교계 청소년단체 및 신행단체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겸비토록 하기 위한 겨울불교학교 및 캠프를 연다.

캠프는 눈썰매 · 스키강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반면 올해의 겨울불교학교는 캠프 운영프로그램을 가미한 수련회라는데 그 특징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초교리, 108배 정진, 발우공양 등 불교정서 함양에 치중했던 예년과는 달리 수련회 일정 중 하루를 눈썰매나 스키캠프 프로그램을 도입,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이같은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겨울불교학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경제한파로 몸과 마음이 움츠려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퀴즈와 레크리에이션에 비중을 둬 행사진행 기간 내내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할 계획이다. 또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눈썰매장으로 모두 출동, 눈과 하나가 되어 신나는 시간을 함께 한다. 야간산행에서도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독경, 참선, 발우공양, 심성놀이, 경주 기림사 감은사지 참배, 눈썰매타기 등을 통해 불심과 호연지기를 도모하고, 동해안 일출을 감상하며 한해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선덕사(주지 행법)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마음여는 장, 마음 나눔의 장, 마을 여미는 장 등 3단계 수련법을 도입한 불교학교를 연다. 언어 및 동작활동, 명상수련 및 공작활동, 묵언정진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참된 마음과 감성을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필선 기자

◇겨울불교학교 및 캠프

사찰 및 단체	기 간	전 화	사찰 및 단체	기 간	전 화
청교련 청소년스키캠프	12.22~24	02)735-8165	화계사	12.25~12.28	02)902-2663
재연구모임 전래놀이캠프	98.1.17~19	02)433-1507	봉선사	12.24~12.25	0346)68-1958
성재이벤트 스노우페스티벌	12.22~26	02)720-1506	석왕사	12.23~12.25	032)663-7776
불교레크리에이션 신나는 눈썰매캠프	12.9~31	02)738-7360	정토사	12.23~12.25	0522)74-3800
우리는선우 생명사랑나눔캠프	98.1.3~5	02)278-8672	극락선원	12.27~12.28	051)628-7200
청곡청소년센터 신나는 눈썰매캠프	98.1.14	02)918-3543	삼광사	12.24~26(초등)	051)808-7115
사천왕사	12.27~12.28	02)939-3900	삼광사	12.27~29(중 · 고등)	
금강정사	12.25~12.28	02)893-2700	부산포교원	12.27~28	051)816-2241
구룡사	12.25~12.28	02)575-7766	신흥사	12.23~25(초등)	0339)57-2695
조계사	12.21~12.23	02)736-9043	신흥사	12.27~30(중 · 고등)	
능인선원	12.26~12.28	02)577-5800	청주관음사	12.27~29	0341)56-6254
금강정사	12.25~12.28(초등)	02)893-2700	충북청소년불자연합회	12.31~98.1.2	0341)56-6254
삼보사	12.24~12.25	02)352-6406	광주관음사	12.24~26(예정)	062)223-7666
불광사	12.24~12.27(초등)	02)413-6060	덕명사	12.25~26	062)365-0367
불광사	98.1.9~11(중 · 고등)		선덕사	98.1.2~1.4	062)263-4660

건강 365일 〈8〉 감자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잉카인이 '신성한 생명'이라고 불렀던 감자는 16세기 초 스페인 수도승에 의해 유럽에 상륙해 사료로 쓰이다가 18세기부터 식용으로 일반화됐다.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지방에서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주성분인 녹말의 담백한 맛에 철분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 C까지 듬뿍 들어 있어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약성가에 따르면 감자는 위장의 열독을 풀어주고 소변을 통리시키며 주(酒)독을 풀어준다고 한다. 이뇨작용을 돕기도 해 밥 대신 감자로 밥 열량을 즐이기만 한다면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철분 칼륨 비타민 듬뿍 '완전식품'
스트레스 위장 · 당뇨병 치료 효과

위에 열이 많으면 위염, 위산과다, 위궤양이 생긴다. 감자에는 판토텐산이 있어 부신피질호르몬의 생산을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약하여 위염, 위산과다 십이지장 등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기 쉽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는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생즙으로 먹으면 효과적이다. 위나 십이지장의 염증은 무릎관절염과 류마치스 관절염을 부른다.

무릎 관절염일 때는 감자생즙에다 식초를 조금 섞어 밀가루 떡을 만들어 잠자기 전에 부치고 자면 좋다.

십이지장이나 위에 생긴 염증을 오래두면 취장이 영향을 받아 인슐린이 생산 안되는 당뇨병이 유발된다. 이런 경우에 당뇨병을 취장병으로 보지 않고 위나 십이지장의 원인으로 본다. 십이지장의 원인을 해결해 주면 취장병인 당뇨가 호전된다는 것이 한방이론의 독특한 병리관이다. 따라서 밥을 절제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감자로 대신하기도 한다.

요즘은 바쁜 생활환경 탓으로 아침을 거르거나 밀가루빵으로 대신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는 곧 위산과다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 감자와 우유식으로 한다면 위장병을 예방할 것이다.

감자는 소음인 체질에 특히 좋은 식품이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 대신 보내 드립니다.
(97. 12. 1~98. 1. 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일러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광화문 운주사 종로구청 조계사 한의원 안국동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사은 판매 도서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용/ 〃 / 12,000 → 6,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휴/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 / 2,500 → 1,500원
유마경 〃 /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 / 2,500 → 1,5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김영사/ 5,000 → 4,000원
배꼽 밑의 주인공을 찾아라 박희선/ 심령과학출판사/ 7,000 → 4,000원

선물용 도서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12,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 · 하 일지/ 대원정사/ 각 8,000원
기도 일타/ 효림/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효림/ 3,5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7,000원
금강경 대강좌 이계열/ 여시아문/ 8,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여시아문/ 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7,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8,5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솔/ 각 8,500원
법구경 김달진/ 현암사/ 8,0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6,0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담마간다/ 6,000원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산하/ 5,000원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슐리에/ 시공사/ 6,000원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웅/ 국민서관/ 5,000원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사/ 5,000원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율곡 이이 편, 안장환 엮음/ 큰산/ 5,5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청년사/ 6,500원
돌부처 이근후/ 여시아문/ 6,5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범우사/ 6,000원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포피노 · 크리스 포피노 지음/ 정신세계사/ 6,000원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시공사/ 7,000원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불광/ 3,500원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명상 노트: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날마다 크는 그리움 5,0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 · 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1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IMF시대 기업 "군살빼야 산다"

기업마다 감원·감봉등 '고육책'
중소기업 잇단 한시적 휴업 '한파 실감'

IMF(국제통화기금)는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IMF 요구사항의 골자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이다. 경쟁력 없는 경제주체는 도태된다는 법칙을 관철시키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종 제도로 보장되던 국내 기업의 보호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된다.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도 예전같지 않게 되었다.

IMF의 요구를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력하고 개방적인 선진경제로 다시 태어나느냐는 선택이므로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에 겪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한 그룹총수의 진단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고강도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쌍용은 임원 30% 감원, 임원급여 30% 삭감을 결정했다. 직원급여도 15%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과 임원의 승진을 전면동결키로 했다. 한화 LG 동아 삼성 대우 현대 코오롱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살아남기 위해 몸집줄이기에 돌어갔다.

부동산 처분, 한계사업 정리에도 나섰다. 쌍용은 용평리조트와 서울 삼각동 부지사옥, 은화삼골프장 등의 부동산을 처분키로 했다. 한화는 한화바스프우레탄을 합작사인 독일의 다국적기업에 9일 매각했다. 대기업간의 자발적인 M&A(인수-합병)도 나타나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대우그룹이 사들였다. 두 그룹과 금융권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공멸'을 탈출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예 한시적 휴업으로 IMF한파를 견뎌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5천만원 어치의 부도어음을 안고 있는 한 섬유회사는 내년 3월께까지 10명 남짓한 종업원에게 월급은 지급하면서 회사를 유지해 3월 이후에나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대선일정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칫 자금회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도를 맞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선택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IMF에서 돈을 꾸어온 데는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 은행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행에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영을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기업의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다. 그동안의 관행이 기업과 정치권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다. 그렇다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먼저, 정부가 먼저 라는 식으로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자기를 낮춰 이겨내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경영의 지침들이 들어 있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바로 저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하게 함이며, 방해하는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겠는가?"〈보왕삼매론〉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이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잡보장경〉



공명선거 비행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바른 선택 밝은 내일'이라는 공명선거 표어를 적은 비행선을 띄웠다. 비행선은 선거 당일까지 한강을 따라 잠실에서 여의도 사이를 왕복한다.

이렇게 들었다

우리 경제가 겨울 추위 만큼이나 혹독한 시련기에 들어섰다. 날마다 신기록을 기록하는 원화환율과 증권시장의 혼란 등 금융시장의 공황조짐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을 부도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IMF 구제금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와 경쟁력 확보로 다시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자는 것. 이를 위해 초발심(初發心)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초발심으로 노력하면 과녁 맞출 수 있다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보살들은 발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기에 빨리 열반을 얻는다. 〈기신론〉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홤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홤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파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운 것이 넷이 있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뒤에는 즐겁고, 쓴 약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우며, 가업을 잇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역시 즐거운 일이오." 〈증일이함경〉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됩니다. 〈화엄경〉

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서 제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됐다. 10일 폐막된 교토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선진국과 같은 구속력있는 의무는 지우지 않기로 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8개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를 줄이되 국가별로 감축률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또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회의 기간중 수소불화탄소 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종전대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가지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확대는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4차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결정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자회담 '無성과'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9~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남긴 채 끝났다는 평가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이번 본회담의 최대쟁점이었던 분과위 구성문제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한미 양국과 북한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 2개 분과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주한미군철수 및 북-미평화협정체결 문제 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분과위 구성을 제안했다. 다음 본회담은 내년 3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기초과학 연구비 2억 전달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나라가 산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노신영)은 8일 서울대 신동우교수(수학) 등 과학자 7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1회 롯데 퀠로우십 행사를 가졌다. 재단은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2년간 4억원의 연구비를 조건없이 지원키로 하고 이날 2억원을 전달했다.

7년째 교통정리 할아버지

경기시흥시 은행동에 사는 박홍석(86)씨를 주변사람들은 '교통정리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91년부터 지금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은행동 네거리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급하게 한다"며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재산 대학에 기증 잇따라

70대 노부부가 평생 모은 1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충북대에 기증했다. 괴산에 사는 최공섭(76) 전정숙(72)씨 노부부는 9일 충북대 이낭호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백여평의 토지와 2층 건물을 기탁했다. 또 8일에는 윤혜성씨(65)가 모교인 평택대에 50억원상당의 임야를 기증, 후학들의 향학열을 북돋아 훈훈한 화제.

증권가 '부도설' 유언비어

PC통신 게시판에 모대기업의 부도설을 게재한 대학원생 하모씨가 서울지검에 8일 신용훼손혐의로 구속됐다. 10일에도 금융사 과장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언비어가 우리 경제의 해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종합병원 158억 특진사기

서울시내 13개 종합병원들이 진료비 2중징수, 특진비 허위징수, 보험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1년간 6억1천만원~24억2천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징수, 158억원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검사가 거액 포커도박

현직검사가 2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도박을 벌이다 7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법무부 송무과 이종대 검사는 제주도 휴가 여행 중 친하게 지내던 한의사 사업가 등과 포커도박을 벌였다. 이검사는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생활정보

아기용품 빌려줘요

아기침대를 전문적으로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 베이비랜드(02-469-4372~3)는 1년 보증금 5만원, 임대료 8만원에 아기침대를 빌려준다. 장난감마을(02-421-8415)은 미끄럼틀 자동차 자전거 농구대 등 고가장난감을 빌려준다. 입회비 1만5천원, 월회비 2만원. 배달도 해준다.

수입옷 우리옷과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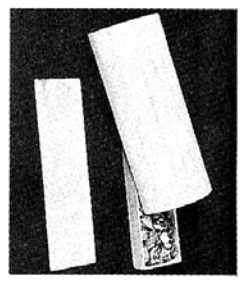
'질경이 우리옷'은 31일까지 '로열티 무는 수입옷 우리옷으로 바꿔주기 행사'를 한다. 모여진 수입옷은 북한 옷 보내기 운동에 쓰여진다. (02)741-5606.

새상품

잣나무 베개 신침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코골이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잣나무베개 신침'이 선보였다. 이 제품은 베개 안에 32가지 한약재를 넣고 작은 구멍을 뚫어놓아 잠든 동안 독특한 향이 배어 나온다.

연세대 재활병원장 전세일교수는 "이 제품은 목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베개높이 6~8㎝ 조건을 만족시켰다"며 "경건완증후군(목, 어깨, 팔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육산기업. 가격은 30만원. (02)277-8727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시 론

마음자리 바로잡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파트가 붕괴되듯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제왕이나 되는듯 거드름 빼던 재벌기업들마저 금이 간 빌딩처럼 뒤뚱대고 있다. 더구나 종금사 중에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은행들까지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하랴.

국민 생존권 위기상황

위기에 몰린 것은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1만달러로 몇년만 있으면 선진국 대열에 낀다는 말에 솔깃해 있던 서민들은, 환율 급등으로 하루아침에 5000달러 소득의 국민으로 내려앉은 자기위상을 인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소속돼 있는 기업에 감원 선풍이나 불지 않을까. 업체가 도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살자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통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



이 원 섭 〈시인〉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보와 기아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탓하는 말도 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지나친 임금상승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 과소비, 특히 부유층의 낭비를 꼬집는 말도 있다. 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들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에 의해 갖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워낙 현실에서 먼 나같은 늙은이에게는 모두가 그럴싸하게 들릴 뿐이다. IMF와 협상해 불리한 조항은 다 뜯어고치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1년반 안에 IMF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임기 중에 경제를 세계 5위에 올려놓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미심쩍은 생각이 남아, 전적으로 그들에게 동조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의 어리석음 탓인지는 몰라도 그들 모두가 겉만을 보고 지엽적인 것에 매여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듯 여겨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경제 위기를 경제의 범주에서만 다루고, 설사 시야를 넓힌대도 정치·사회나 기술 같은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는데 그침이 그것이다.

경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잘 살기 위해 부를 획득하려는 행위다. 그러므로 경제의 밑바닥에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깔려 있다. 이 욕망이 경제를 성립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자본이니 자원이니 하는 것마저도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의 탱크'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도덕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그때에는 탱크와 탱크가 정면으로 충돌해 서로 나둥그라지는 것은 고사하고 법의 전당과 도덕의 성화대마저 깔아뭉개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상상의 차원을 넘어 오늘의 현실 바로 그것이라면 이를 도외시한 어떤 극복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욕망이란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에 인도의 어느 임금과 거지의 이야기가 있다.

한 거지가 왕궁에 나타나 임금에게 보시해 줄 것을 청하고 자기의 바리때를 꽉 채워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그만 바리때를 채울 것이 내게 없을 것 같으냐."

임금은 비웃고 신하에게 바리때에 찰만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무엇이건 바리때에 닿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결국 임금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고 말았다. 무슨 바리때가 이러냐고 묻자, 거지가 대답했다.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이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바리때입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욕망의 정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화·세계화라는 이름 밑에 욕망을 100% 풀어 주었다. 절제하지 않은 욕망이 오늘의 총체적 파국을 가져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망의 억제와 조절이다. 이런 노력없이 '잘살아 보세'하며 뛰어서 2만불·3만불의 경제를 이룩해낸다 해도 부유한 '짐승들의 공화국'밖에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리 바로잡기'에 불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조계종지도자회의 '민족문화수호와 전법'

조계종이 9일과 10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지도자회의'는 3백여 중진스님들이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이라는 주제를 두고 처음으로 벌인 토론의 장이었다. 참가한 스님들이 '전법도생과 불교중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해 15개조로 나눠 벌인 분임토론의 총괄내용과 6명의 스님이 발표한 대표토론의 요지 그리고 '문명사적 전환기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 요지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선-교 조화 교리체계화

호진〈동국대 교수〉



조계종은 선과 교를 아우르는 통불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조계종이란 종파의 이름은 선불교의 색채가 강하지만 실제 종지는 그렇지 않다.

1941년에 한암스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종단이 탄생된 것일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교리상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 미래의 불교를 바르게 세워가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싶다.

승풍진작 승단의 생명

도법〈선우도량 상임대표〉



수행과 승풍의 문제는 승단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이다.

무엇보다 현재 승가는 수행과 승풍 진작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곤하다. 우리 종단은 이 문제를 얼마나 종책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불교사상에 입각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확립해야 하고 청빈한 생활이 수행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은 정치와 행정을 통해 수행과 승풍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수행-전법 둘아닌 하나

현각〈명륜복지관 관장〉

종단이 전법을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데서 전법은 시작되어야 한다. 승가는 개인 수행의 완성과 전법도생이라는 두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두길이 아니라 한길이다.



전법의 대상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다. 우리 승가는 분업화되고 기능화된 사회를 향해 전법의 길을 어떻게 닦아갈 것인지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

불교문화 지역별 특화

법등〈중앙종회 부의장〉



신앙적 의미와 성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설명으로 일관된 안내판이 전법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찰 안내 팜플렛을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이 관광객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불교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며 불교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보박물관 기능 확대

범하〈통도사 박물관장〉

성보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사찰의 불교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박물관을 법당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불교적인 기능을 갖추는데는 관심이 적은게 현실이다. 박물관이 자연스런 포교의 현장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입장에서 건립해야 할 것이다. 사찰 박물관은 볼 거리를 제공하면서 불교문화와 신앙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가치 홍보

현고〈송광사 주지〉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서구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의 발달이 물질문명의 발달에서 기인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인간 의지의 확산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는데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의 민족문화 정책은 바로 내면적인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계종지도자회의 주제별 분임토의 장면.

분임토의 내용

'승가의 위의확립과 승풍진작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에서 스님들은 교육원의 교육체계에 계율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종단협의회를 통해 타종단 스님들의 위의 확립문제에도 공통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언론에 의한 승가 위의 훼손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 문제의 지적도 있었으며 사미 사미니의 의제와 신분상의 차이를 두고 호칭은 스님이 아닌 사미 사미니로 해야 한다 등 승가 현실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기도 했다.

'전법도생과 불교중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통한 포교역량을 극대화 하고 신도교육을 위한 통일된 교재발간과 신도 기본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도시 농촌 등 특성에 맞는 포교활동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며 사회복지등 특수포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종단의 사회지도력 제고방안'과 관련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사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칠석, 백중, 동지등 불교속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를 활용해 지역포교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승·재가 교육강화…불자상 정립
성보보존 국가법령 제개정 절실

'민족문화 수호와 창달을 위한 조계종의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불교의식의 종단적 통일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스님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성보의 훼손및 도난을 막기위해 국가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강화, 성보도난 대책반의 구성, 본사단위의 성보박물관 건립, 불교관련 유무형 문화재에 관한 발굴 조사 방안등을 총무원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각지역 승가대에 문화재관리학과 신설등을 통해 성보에 대한 관리와 인식을 고양시키자는 의견도 관심을 끌었다.

'정부 민족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화부문 예산을 2%이상 책정해야 하고 현 문체부를 순수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해 문화부로 독립 개편해야 하며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법령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황룡사 미륵사 청주 흥복사등 사지 복원은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추진해야 한다. △폐사지 복원및 보호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사이버 공간에도 절 지읍시다"

이어령교수 강연 요지



다가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말하는 것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문화적 동질성 속에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통신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이미 국가간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국경없는 통신의 시대에 불교는 통신의 순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여 거룩한 불교정신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스님들께 사이버 공간에 절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사이버 공간에 경전도 올리고 불교 예술과 사상도 올려야 합니다. 세계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로벌 포교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세계를 향한 포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의 원융회통 정신은 그대로가 글로벌한 불교사상 아닙니까. 불교의 세계관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무애자재한 정신인데 그런 정신적 토대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을 불교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경이 허물어 진 것은 환경과 통신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인권도 모두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과거 국경이 있는 세계의 풍속에 의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불교야말로 그 독특한 순환의 원리(윤회)로 세계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열쇠를 불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사회의 향도자도서 혹은 구원자로서의 불교적 역할이 가늠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W 300,000~~ ⇒ W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신도회 현안논의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23일 운하당 서 교구신도회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회칙수정안 의결을 비롯 각종 신도회 현안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범어사 금정불교대 졸업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20일 오후 2시 보제루에서 금정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한다. 이에앞서 금정불교대학은 13일부터 14일까지 철야정진및 수계식을 가졌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상량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는 5일 대웅전에서 '진부유치원·불이문·성보박물관 보장각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현해 월정사 주지, 원행 삼화사 주지를 비롯 김용욱 평창군수, 이강진 평창교육청 교육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대전교구 전통의식 강좌

대전교구종무원(종무원장 월해)은 10일 4개월 과정의 불교 전통의식 강좌를 개강했다. 강좌는 도량석, 상단예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등의 초급반과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등의 중급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성주암 신도합창단 발표

과천 성주암(주지 종연)은 10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2기 신도합창단발표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인곡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신도합창단의 찬불가 발표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과회에서는 지난 7월 화재로 전소된 대웅전 건립을 위한 모금도 이어졌다.

동방불교대 신행실수

동방불교대(학장 정태혁)는 1일부터 2일까지 성북동 태고사에서 관리자과정 신행실수를 실시했다. 이번 신행실수는 발우공양, 좌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평소 배웠던 교과과정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천태종

총무원 군·경에 위문품

총무원(원장 운덕)은 15, 16일 이틀간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15명이 공군사관학교 등 15개 군부대와 도경찰청, 청운공사 등 도내 군부대 및 경찰서, 각급 단체를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삼광사 어린이불교학교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지관전에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모두 7백여명의 어린이불자가 참여하게 될 불교학교는 장기자랑, 연하장 만들기, 교리공부, 제기차기 등의 전통민속놀이, 인형극 발표회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통리원 신행단체 간담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22, 23일 이틀간 대구 진각회관에서 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송년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각 단체의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며, 총금강회 중앙청년회, 진각문학회, 회당학회, 종립학교 등의 관계자가 참가한다.

일붕선교종

총무원 법계 고시 실시



총무원(원장 무찰)은 10, 11일 이틀간 일붕선원에서 종단스님 및 전법사, 교임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모두 1백2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교육은 대승불교사상, 종무행정론 등에 대한 강연과 종단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둘째날 오후에는 스님 및 전법사·교임을 대상으로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연꽃마을 광명선원 불국토

복지 종사자 연수 활발

자질 함양·화합 등 성과 기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이들 연수회의 내용은 교계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물론 업무실수와 직원간 단합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13일 군포 매화복지관에서 산하 14개 시설 직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복지시설의 종교적 자세, 효도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관리, 청소년복지 대책, 노인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활동 등의 강의와 함께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울서초구 광명선원도 6~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직원연수를 실시했다. 광명선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사당어린이집과 전농공부방의 보모 사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백팔배와 참선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금사회복지관과 공창사회복지관 공창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아우르고 있는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정관스님)는 지난 10월 내원정사에서 직원연수를 실시했다.



직지사 '나라경제살리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로서는 처음으로 직지사가 발벗고 나섰다. 직지사 본말사와 교구신도회는 5일 설법전에서 '나라경제살리기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해외성지순례 및 해외여행 금지 △수입재물의 물전공양 금물 △분수에 맞는 생활 △국산품애용 △일회성 화혼보내기 자제 △저축의 생활화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 용화불교 창종 초대교령 범열스님

충북 청주소재 용호사를 총본산으로 하는 용화불교가 10일 종단창단 및 김범열 초대교령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대한불교증단연합회에 가입한 용화불교는 경전간행사업과 함께 승려양성을 위한 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무정사 대웅전 낙성

육군 제9군단 충무정사(주지법사 이동배)는 12일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7개월만에 완공된 충무정사 법당은 50평규모로 2백여명을 동시에 수용, 법회를 봉행할 수 있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대둔사 주지 천운스님,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절약 생활화·외제 추방 결의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1돌 기념법회

상주 냉림사회복지관(관장 성웅)은 4일 오후2시 상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관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직지사 부주지 법등스님, 김근수 상주시장을 비롯 관내 사암주지스님과 신도 8백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근검절약의 생활화, 외국 농산물 배격등의 실천지침을 결의하기도 했다.

월주스님 화갑논문 부산서도 출판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화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법회가 8일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봉행됐다.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논문집 출판으로 미력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펴는데 보탬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문정수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케이블TV 수신료 '마찰'

시청률등 배분방법 이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1월10일부터 15일까지 케이블TV 시청가구 1만4천1백여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서, 수신료 배분을 둘러싼 케이블TV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케이블TV 사장단 회의는 수신료 배분방법을 시청률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나눠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반면 방송협회는 시청률을 반영해 수신료를 분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불교TV는 시청률 조사결과 29개 채널중 기독교·천주교방송보다는 상위로 점유율은 16위, 시청자 선호도는 13위로 나타났다.

김천 운불회 새해 1월 창립

회원 1백명…차량 염주달기·사찰홍보 추진

김천택시운전불자회(가칭)가 내년 1월 창립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신흥택시 김천택시 등 김천시의 4개 회사택시와 모범택시 및 개인택시 소속 불자들은 운전불자회를 발족키로 하고 회원모집에 들어갔다. 운불회는 회원 1백여명을 목표로 회칙제정과 임원선출을 연내에 끝내고 내년 1월15일경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천운불회 결성은 95년말 직지사가 지역포교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지고 있는 결실중의 하나다. 이후 직지사를 중심으로 구미교사불자회 직지사교사불자회 구미택시운불회가 차례로 결성됐으며, 올11월에는 김천소년원 불교교화위원회가 발족됐다.

창립추진은 염석훈씨를 비롯 양춘달 신흥택시노조위원장 서재필 경북개인택시김천지부장, 박송하 모범택시운전자회장 등 4인이 주역.

김천운불회는 앞으로 차량염주달기 및 불교방송 스티커부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찰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태고종 금담스님 입적



태고종 종회의장 금담스님이 9일 하오 8시 제주 보림사에서 열반했다. 세수 64세, 법랍 41세.

스님은 1957년 제주 관음사에서 성학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후 63년 동국대 불교학과와 해인사 대교과를 수료했다.

관음종 광진스님 입적

관음종 원로인 광진스님이 2일 충남 논산 봉황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9세, 법랍 70세.

스님은 1937년 용파스님을 은사로 성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47년 봉황사 주지를 시작으로 공주 마곡사, 연산 월은사, 대전 관음사 주지를 역임한 후 봉황사에서 주석했다. 영결식은 5일 봉황사에서 엄수됐다.

불교TV '석굴암' '출가' 등 4편

佛·대만 등에 수출

5개국에 6만불 계약

불교TV 영상물이 외국으로 보급된다. 불교TV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7 MIP-ASIA전에 참가해 총 6만달러(한화 1억원) 상당의 프로그램 수출계약을 맺었다.

불교TV와 수입계약을 맺은 방송사는 대만의 추치문화센터를 비롯 홍콩에 본부를 둔 EMPHASIS사, 프랑스의 M5, 인도네시아의 PT.Surya Citra TV, 싱가폴의 TV12 등 5개사다. 불교TV의 출품작은 '발우공양' '석굴암' '출가! 새로운 탄생' '예불' 등 4편. 이외에도 행사 기간동안 80여개가 넘는 방송사·바이어들이 프로그램 샘플을 요구하거나 리플릿을 통해 추후 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MAX미디어사는 선불교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을 제안하기도.

총 2백여개의 방송사들이 참가한 이번 MIP-ASIA전은 전년도와 달리 프로그램의 수출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이다.



◇스님들의 '발우공양' 모습.

강지연 기자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 유성모임(12월 11일) 결의사항

경제난국에 대한 본사주지 모임의 견해

1.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난국의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경제활동 동기부여 상실과 국민의 과소비에 기인한다고 보며, 대량실직에 의한 사회불안과 경제대국에 의한 경제 예속화를 우려한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교단실천운동>

경제난국 극복의 최선의 길은 승단생활정신인 무소유와 분소의 정신 실천에 있음을 다짐하며,

1. 종단과 교구본사는 최대한 재정긴축을 단행한다.
2. 불요불급한 불사를 자제한다.
3. 해외 성지순례를 자제한다.
4. 한 등 끄기와 실내온도 낮추기 운동을 전개한다.
5. 수입물품을 불전에 올리지 않는다.
6. 교단 종무원의 급료 10% 저축을 독려한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실천운동>

1. **'경제살리기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전 종도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캠페인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사찰과 거리마다 플래카드 게시, 사찰별 지역별 가두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단체와 연대해 캠페인 운동을 전개한다.

● 이회창 후보 법정홍보물 '파계승 탈' 게재에 대한 본사주지모임의 견해 ●

이회창 후보는 법정 홍보물에서 불교를 위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이에 우리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은 거짓말, 속임수, 경선불복의 파행적 인간의 상징이 승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승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왜곡변절시키는 분명하고 명확한 해종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종단과 종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라.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불기 2541년 12월 11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

15개 은행 신행회 공공기관 불자회 'IMF 동면'

정기법회 참여 저조…이웃돕기등 행사 취소

연초부터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온 직장법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으로 감원·감봉위기에 휩싸인 기업불교회는 물론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 산하 15개 은행불교회도 금융위기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 등 공공기관 불자회도 대선정국의 혼미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

제일·서울은행을 비롯 8개 금융권 불교회는 정기법회를 몇달째 중단하고 있으며, 한국·조흥·외환·한일·농협·금융결제원 등 정기법회를 지속하고 있는 은행불교회도 법회 참석인원이 예년의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난 6일 산업은행불교회(회장 이형관) 창립 9주년법회에서 주최측 참석자가 60명(전체참석인원은 3백명)에 불과했던 것도 당일 불거진 한라그룹 고려증권 등의 연쇄부도 때문이었다. 또 서울은행불교회(회장 이무재)가 13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치룬 것도 사내 분위기를 감안한 것.

하지만 은행불교회는 그나마 나은 편. 기아중공업법우회 삼미특수강직장법우회 쌍용그룹불교회 현대엔지니어링불교연구회 등 기업불자회는 이미 연초부터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지하철법우회 한국전력반야회 등 공기업 불자회도 크게 고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태현)의 경우, 11일 예정이던 창립6주년 기념법회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13일 청주 고산사 사찰순례로 전환할 정도.

한국전력반야회 이경호 사무국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분한 신행이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법회를 봉행한다는 원력만 있다면 오히려 신행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장기이식본부' 민간운영 마땅"

생명나눔회등 종교계 장기운동단체 주장

'장기이식관리본부'를 민간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장기이식을 총괄할 '장기이식본부'를 공공단체라는 이유로 적십자사에 운영을 맡기려는데 대해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박진탁목사)등의 종교계 장기기증단체가 반발하고 나선것.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실장은 "전문성과 헌신성이 결여된 공공단체보다는 약간의 시설과 인력보강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0일부터 장기이식관리본부의 민간단체운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군법당 감사제도 '논란'

조계종 포교원 차원 군승단 자체 추진

일선 군법당에 대한 감사기능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승단(단장 이희용) 자정 움직임과 관련해 불거진 이 문제는 11월 25일 열린 군승단 결산총회에서 소장법사들의 건의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와관련 포교원이 군법당 재정 감사제도와 상벌 규정을 내용으로한 군포교 시책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승단측과 합의해 올해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승단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규정상 외부에서 군법당을 감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제도를 보완한 자체 감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열린 군승단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인준을 거쳐 신임 운영위원들이 확정됐다.

운영위원은 △수석부단장 정선진(종합 행정학교) △해군부단장 정인호(해군교육사 흥국사) △공군부단장 김재철(공군본부 군종감실) 법사등이 각각 선임됐다.

동짓날 '한파 녹이는 팥죽'

석왕사등 불우이웃에 포덕…불자련 성금전달

"춥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세상이 모두 얼어붙었다. 그러나 불자들의 마음까지는 얼어붙지 않았다. 22일 민속명절 동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암을 비롯 신행단체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자비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제5회 작은설 동지문화제를 봉행한다. 22일 육화전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법회를 열고 22일에는 양로원 노인정 군부대 소년의 집등에 팥죽을 보시한다. 이어 부천 북부역과 송내역 광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펼친다. 특히 석왕사의 동지문화제는 팥죽보시행을 통해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난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20일 동지기도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동지포덕행사를 펼친다. 21일은 사천왕사와 방생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며 22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6일 강의실에서 제7회 동지포덕성금 전달식을 갖는다. 동지포덕성금 수혜자는 이정희(14세) 양을 비롯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8명이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21일 밤 11시30분부터 서울 혜화동 법당에서 동지맞이 나라안정을 기원하는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총재 월주)는 동짓날 전국 각 사찰에서 불우이웃과 북녘동포돕기위한 '노란 연등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능인정사(주지 법경)와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역 경로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펼친다. 특히 석왕사의 동지문화제는 팥죽보시행을 통해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난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20일 동지기도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동지포덕행사를 펼친다. 21일은 사천왕사와 방생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며 22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남북평화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6일 강의실에서 제7회 동지포덕성금 전달식을 갖는다. 동지포덕성금 수혜자는 이정희(14세) 양을 비롯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8명이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21일 밤 11시30분부터 서울 혜화동 법당에서 동지맞이 나라안정을 기원하는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총재 월주)는 동짓날 전국 각 사찰에서 불우이웃과 북녘동포돕기위한 '노란 연등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능인정사(주지 법경)와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역 경로

김중근 기자

뉴스 & 뉴스

경제난국 실천지침 마련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지침을 마련했다. 본사주지모임은 11일 유성에서 15명의 주지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종단과 교구본사의 재정긴축 △불사 자제 △해외 성지순례 자제 △수입품 불전 올리지 않기 △교단 종무원의 급료 10% 저축독려 등 실천운동과 '경제살리기 한 통장 갖기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또 본사 주지모임은 이회창후보는 '파계승탈' 홍보물과 관련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나라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각 사암 신도와 신행단체 등에서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산품 애용, 과소비추방, 해외여행자제 등을 결의하고 불우이웃돕기 외국돈 모금행사도 가졌다.

화지문화회관 봉사단 발족

조계종이 위탁 운영하는 화지문화회관(관장 신윤재)이 6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금정중학교와 해동중학교 불교반 학생 2백30여명이 주축이 돼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화지공원 일대를 청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조순총재 초청 조찬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오·범어사 주지)는 8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한나라당 조순총재를 초청, 조찬법회를 가졌다. 이영구 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조찬법회는 1시간30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성오스님을 비롯 同회 부회장 혜총스님(감로사 주지) 덕수(삼광사 주지) 홍교(前 범어사 주지)스님 등 1백여 스님과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권익현 정각동우회회장 명호근 대불이사장 허문도 前 통일원장관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인목욕차 운행"

연꽃마을 마포센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1월부터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동목욕서비스는 특수욕조설비를 갖춘 이동목욕차량을 이용, 마포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가정에 직접방문하여 목욕을 돕는다. (02)365-3677

한편 연꽃마을의 이동목욕차량은 10일 LG복지재단이 기증한 것이다.

공명선거 종교인선언 종교인협 송년모임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는 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송년대화모임을 갖고 '15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종교인선언'을 발표했다.

대화모임에 참석한 4대종교 성직자 30여명은 종교인선언문을 통해 "15대 대선을 앞두고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고 전제하며 "변화의 흐름속에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낙후된 정치권의 일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말했다.



◇제24차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6·7일 경주 조선호텔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열린교육 방향제시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제24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6~7일 양일간 경주 조선호텔에서 개최.

'눈을 뜨자 가슴을 펴자 마음을 열자'는 슬로건아래 열린 연수회에는 어린이지도자 3백여명을 비롯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관스님, 회장 철오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25명의 어린이지도자가 수계를 받았다.

경주 신선사 마애불보호각 '허술'

비올땐 바위에 녹물…맑은날도 황토 얼룩

경주 단석산 신선사 상인암 마애불상군(국보199호)이 당국의 허술한 보수관리로 훼손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4년 풍우에 마모되는 마애불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유리지붕으로된 보호각을 설치했으나 이로인해 빗물이 고이고 바위벽면에 녹물이 스며드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황토물이 흘러내려 얼룩무늬가 생기는 등 훼손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10월2일부터 6천9백20만원을 들여 마애불상군 바위윗면에 폭 1m, 깊이 50㎝~1m, 길이 10여m의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바위윗면이 헤머드릴 등으로 불성사납게 파헤쳐지고 있어 또다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목탁소리

푸대접 받는 성보

윤 기 석 〈취재2부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는 즈음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다.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복장유물이 도난사고를 우려, 1년 2개월여동안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돼 왔다는 것이다. 오죽 도난에 마음이 쓰였으면 성보를 파출소 무기고에까지 보관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귀중한 성보가 총, 탄환 등과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문화재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산골벽지에 있는 작은 사찰이 어떻게 성보를 보존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사찰뿐 아니라 종단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올해만도 기림사 노사나불 복장유물을 비롯 총 10건 15점의 성보가 각 사찰에서 도난당했다. 작은 암자는 물론 은해사나 쌍계사같은 교구본사에까지 도난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정부나 종단은 그저 속수무책일 뿐이다. 종헌종법에도 엄연히 명시돼 있는 성보유실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아무리 귀중한 성보를 잃어버려도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소임자를 찾기 힘들고 책임을 묻는 일도 철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난사고는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특수전문범죄라 할 수 있는 문화재범죄에 대해 마약단속반과 같은 전담반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대형 괘불탱화의 국보, 보물지정이 많았지만 괘불도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단지 괘불함에 넣거나 돌돌 말아 대웅전 등에 놓아 둘 뿐이다.

성보문화재의 1차 소유자는 당해사찰이다. 스님들은 말로는 '성보(聖寶)'라고 하지만 그에 걸맞는 보존관리가 과연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각 사찰 임의대로 성보를 관리하는 것을 종단차원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도화하는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MF의 한파가 거센 지금, 정부의 문화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불교계가 성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자임한다면 세심하고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범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티벳에서의 7년
티벳의 저항정신
살아있는 부처

티벳영화 3편 시·선·집·중



◇티벳을 지탱하는 불교정신을 생생하게 담아내 유럽에 티벳열풍을 불러 일으킨 독일 쿠비감독의 영화 '살아있는 부처'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며 제작됐던 화제작 '티벳에서의 7년'과 '서사적 규모의 기념비적인 극장용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영화매니아들을 열광시켰던 '티벳의 저항정신' '살아있는 부처'가 국내에서 상영된다.

프랑스 장자크 아노 감독의 '티벳에서의 7년'이 극장개봉작인 것과는 달리 독일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 퍼뜰멘스 쿠비 감독의 '티벳의 저항정신'과 '살아있는 부처'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단 이틀동안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토론시간도 준비되어 있어 그의 작품세계를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다.

'티벳에서의 7년'(20일 개봉)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었던 하인리히 하러의 티벳 체험기를 영화화한 장자크 아노 감독의 작품이다.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중국의 티벳 무력침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은 극찬을 받았으나 책과는 달리 티벳 정신세계에 대한 경외감은 찾아볼 수 없는 백인 우월주의적 관점이라는 혹평도 받았다.

'티벳의 저항정신'(16일 상영)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티벳인들의 믿음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통해 나타난다. 오늘날 티벳에 살고 있는 스님, 유목민들의 생활과 신앙을 통해 중국이 물질적 육체적 파괴만으로는 더 이상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국에 점령당한 티벳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에 불씨가 된 '티벳의 저항정신'은 중국과의 관계 문제로 중국압제에 항거하는 티벳인들의 장면은 삭제하고 상영된다.

'살아있는 부처'(17일 상영) 95년 바이에른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쿠비 감독이 81년 입적한 티벳 고승 기알와 카르마파의 환생을 7년동안 카메라로 추적한 끝에, 동쪽 티벳에서 수도승에 의해 발견된 환생한 소년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이 영화는 티벳인들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영혼불멸의 불교 윤회사상을 티벳 고승의 환생을 매개로 감각적으로 조명해 유럽에 불교열풍을 일으키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

감지연 기자

단신



석굴암 본존불 · 불국사 세계유산기념 우표발행

정보통신부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의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표를 발행, 9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첫 번째 묶음으로 석굴암 본존불과 불국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석굴암은 1백70원짜리 3백만장이, 불국사는 3백80원짜리 1백20만장이 발행됐으며, 두 종류를 합친 전지도 30만장이 선보인다.

日국보 백제관음상 미소 컴퓨터합성 원형 되살려

일본의 국보 중의 국보 백제관음상이 컴퓨터합성을 통해 1천3백년 전의 미소를 드러냈다.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인 하이비잔 보급지원센터가 현재 남아있는 백제관음상의 색채를 정밀분석, 제작당시의 모습을 컴퓨터 영상으로 복원해 낸 것.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에 소장돼 있는 백제관음상은 고대 한국불교의 일본 전파를 보여주는 불상이다. 4월 프랑스에서 열린 '일본의 해' 행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전시되면서 일본작으로 표기·전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⑦⑧

♦ A man that lives adhering to the cave, who is covered with much sin and sunk into delusion, such a one is far from seclusion for the sensual pleasures in the world are not easy to abandon.

동굴 속에 머물러 집착하고, 온갖 번뇌에 사로잡혀 미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 이 세상 욕망을 버리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 Those whose wishes are their motives, those who are linked to the pleasures of the world, they are difficult to liberated, for they cannot be liberated by others, looking for what is before coveting these and former sensual pleasures.

욕구에 따라 생존의 쾌락에 붙잡힌 사람들은 해탈하기 어렵다. 남이 해탈을 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현재의 욕망, 또는 과거의 욕망에 탐착한다.

♦ Lolik upon those men trembling in selfishness, like fish in a stream nearly cried up, with little water; seeing this, let one wander about unselfish, without forming any attachment to existences.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집착해 동요하고 있는 사람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메말라, 물이 적은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점을 보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해 착을 버리고.

♦ Having subdued his wish for both ends, having fully understood touch without being greedy, not doing what he has himself blamed, the wise does not cling to what is seen and heard.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잘 알아서 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듣는 일에 팔리지 않는다.

*adhere (v) 집착하다 (~to)
*sunk (a) (사람이~에) 빠져
*delusion (n) 미망, 미혹, 잘못된 생각.
*seclusion (n) 은둔, 한거(閑居)

주부신행담

내 인생의 해답

"그래, 내가 나를 옭아 매고 있었구나 불법 따르는 기쁨이…"



그림 · 이준석

서른 여덟살. 그때의 내 인생은 사방이 온통 깜깜한 암흑이었다. 화사한 봄날 너도나도 봄 나들이를 떠나고, 여름휴가 단풍구경 스키장 온천으로 떠나 즐길 때 나는 한줄기 빛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오로지 탈출을 꿈꾸는 일외에는.

10여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느껴야 했던 배신감은 내 삶을 무력하게 했다. 내 나이 스물 아홉살 때 중매로 남편을 만나 5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그 당시 그 나이에서는 빠르다 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댁도 그랬다.

남편이 가끔씩 외박하는 것 외에는 결혼해서 큰 불만없이 살았다. 사실 남편이 외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 만난 이 가씨란다. 남편은 평소 과묵한 편이었으나 잔정이 없다 뿐이지 나에게 잘하려 애썼다. 우리 에겐 아이가 없었다. 남편은 아이를 입양해 키워 볼까도 했지만 내가 영 내키질 않았다. 둘만의 행복을 택했다. 아이가 없다는게 그렇게 생활을 단조롭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 단조로움이 바로 남편의 외도를 불렀던 것이다.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나니 어느 한곳 의지할 데가 없었다. 친정에 가 울고불고 하기도 그렇고, 시댁에 가 '당신 자식이 이러니 책임지시오'라며 화를 내기도 그랬다.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이 뭘 하셨던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던 나는 질식해 버릴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마음이 왼쪽 가슴 쯤에 있는 것일까. 왼쪽 가슴이 조여오면서 몹시 아팠다.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법률상담소며 상담전화에 매달려도 보았다. 그러나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곳은 없었다. 남편을 향한 미운 감정은 가슴이 터져 버릴 만큼 더욱 더 피어 올랐다.

그렇게 1년여를 남편과 헤어지지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을 즈음 선배의 도움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다. 그 때는 혼자 절에 갈 용기도 없었던 때라 선배가 절에 간다고 하면 따라가 어설프게나마 의식을 함께했다. 그러기를 6개월여만인 1995년 11월13일. 신도증을 받는데 그때 문득 내 마음 속에 독소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한달에 한번 듣는 큰스님의 법문은 꿀물과도 같았고, 조계사 근처에서 구해 읽은 불서들은 꽁꽁 얼어 붙은 나의 가슴을 녹여주는 햇살이 되었다.

어느 큰스님의 책에서 읽은 글이 머리 속을 떠나질 않았다.

'세계 고통을 주는 대상도 실체도 없다. 고통이란 자기 마음의 집착이나 저항에서 온다. 모든 것은 찰나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것을 고정되게 보려는 생각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 내가 나를 옭아 매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가며 가슴이 후련해졌다.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면서 감동과 환희심으로 가슴은 차츰 따뜻해졌다. 밥을 지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느끼고 깨달으며 내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되었다.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온갖 것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따른다. 그 기쁨은 '나' 하나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자비가 담긴 마음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려 애쓴다. 부처님은 항상 내 속에 있어 모두에게 유익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픔은 내게 있어 스승이었고, 자아발견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내 남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아픔까지도 감싸안을 수 있게 했던 부처님. 내가 생을 다하는 날까지 든든한 스승이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

최지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10초에 9원!

날씬한 통화료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만큼 저렴한 PCS 016을 현대불교신문「부다피아 포교기금」을 통해 가입하시면 납입하신 통화료내의 5% 가 자동적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보시금으로 활용됩니다!"

■ 문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
TEL 02)732-1522/737-8881
FAX 02)737-0697

■ 후 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만족 동기 불교문화분부, 소목세마을, (사)길로심장회

* 예약가입, 실기입에 동참의사가 있으신 스님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PCS 016 맞춤요금제

●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 (10초당) 평상	할인	심야
스페셜 (자세 및 주말에 통화량이 많은 고객)	13,000원	38원	9원	9원
라이트 (월 통화량이 평균보다 적은 고객용)	10,000원	35원	28원	18원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 품 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료통화시간		200分	300分	400分
기본료(1개월)		36,000원	45,000원	53,0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17원	15원
	할인	14원	13원	12원
	심야	10원	10원	9원

●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비 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 상	19원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할 인	15원	평일 오전 6시 ~ 오전 8시 오후 9시 ~ 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심 야	10원	매일 오후 12시 ~ 다음날 오전 6시

● 플러스 인터넷 (월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6,000원의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따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1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기본료 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分, 98년 1월 한달간 200分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 등은 유료)
•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1월 가입 고객중 프리200, 300, 400을 선택 또는 변경하신 고객은 98년 3월1일 이후 요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 가입과 개통의 절차 ●

예약 가입 : 이용무당집이 희망하는 번호를 예약해 놓았다가 정식적 실가입(개통)합니다. 동봉하는 신청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희망번호(위의 네 자리)중 기입하여 FAX나 우편으로 현대불교신문사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보내주십시오.

실 개 통 : 「부다피아 포교기금」계좌로 핸드폰 기기값 · 가입비 입금과 동시에 개통하여 사용합니다.
■ 부다피아 포교기금계좌 국민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 단말기 가격 및 가입비는 (02)732-1522 영업부 내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문의 주십시오.

일 반 이 동 : 입금 즉시 개통 · 시험통화 후 택배(특송)를 이용하여 우송하여 드립니다.

전환 가입 : 011, 017 사용자는 ₩99,000을 보상해드립니다. 가까운 011, 017 영업소에 가시서 '해지' 하시고 해지약정서, 핸드폰, 밧데리, 충전기를 「부다피아 포교기금」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시고, 잔액을 입금해 주시면 개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모델 : 삼성 애니콜, 삼성 음성인식 2000, LG 싸이언, 현대 걸터버